

2022년 국학자료 수집·보존 공동학술대회

고문헌을 통해 존재 위백규를 조명하다

2022.10.14. (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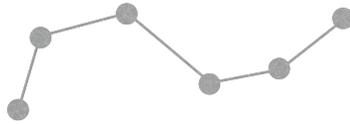
13:00 — 17:00

장흥군민회관 대회의실(3층)

주최 | 주관  전남대학교 한국학호남진흥원 존재기념사업회

후원  장흥군 Jangheung County  장흥문화원

2022년 국학자료 수집·보존 공동학술대회



고문헌을 통해
존재 위백규를
조명하다

주최 | 주관



세단
평원 한국학호남진흥원 존재기념사업회

후원



장흥군
Jangheung County



장흥문화원

고문헌을 통해 존재 위백규를 조명하다

목 차

기조강연	1
<hr/>	
존재 위백규의 삶과 사상, 전적, 고문서 이해준(공주대학교)	
발표 1	11
<hr/>	
존재 위백규 가 고문서 중에서 간찰의 학술적 가치 안동교(한국학호남진흥원)	
발표2	29
<hr/>	
장흥위씨 존재고택 소장 전적의 현황과 특징 이상현(충남역사문화연구원)	
발표3	45
<hr/>	
존재 위백규의 『환영지』연구 성과와 과제 정대영(국립대구박물관)	
토론문	61
<hr/>	

2022년 국학자료 수집·보존 공동학술대회

존재 위백규의 삶과 사상, 전적·고문서

1. 호남실학과 존재 위백규
2. 존재 위백규의 생애
3. 존재 위백규의 실학사상
4. 존재 고택 고서·고문서 자료

존재 위백규의 삶과 사상, 전적·고문서

이해준¹⁾

목 차

1. 호남실학과 존재 위백규
2. 존재 위백규의 생애
3. 존재 위백규의 실학사상
4. 존재 고택 고서·고문서 자료

오늘 “고문헌을 통해 존재 위백규를 재조명하다”라는 주제로 자료유형, 성격별 전문연구자의 의미있고 특별한 학술대회가 개최된다.

발제자는 아주 부족하지만, 오늘 안동교 선생의 고문서(간찰) 중심 교유 관계, 이상현 선생의 고서(간행본) 중심 활자, 판본 비교, 정대영 선생의 지리(환영지) 중심 지리서 발간 등의 특별한 주제 발제에 앞서 存齋 魏伯珪(1727~1798) 선생에 삶과 사상, 그리고 전적 고문서 자료에 대한 개괄적이고 특징적인 모습을 정리하는 기초발제를 하게 되었다.

나는 70년대 초반에 장흥 관산을 처음으로 찾아 왔었고, 그것이 인연이 되어 존재 위백규를 연구하게 되었다. 지금 기억하기로 당시만 하여도 조선후기 쟁쟁한 실학자들과 비교하여 존재 위백규는 그 상대적 인지도가 낮았고, 연구논문도 없는 상태였다. 그래서 논문을 작성하고자 욕심을 내었는데, 지도교수님에게서 다시 생각해 보라는 조언이자 변경 강요(?)를 받기도 하였다.

그러나 결국 나는 존재 위백규가 「만언봉사」와 「정현신보」를 통하여 보여준 향촌사회 경제론의 독보적 모습을 주목하여 강조하게 되었고, ‘존재 위백규의 향촌사회개선론’이라는 논문을 작성, 발표하게 되었다. 물론 그 이후 존재 위백규는 학계에서 호남실학의 3대가로 알려지면서 다른 연구자들에 의하여 많은 연구들이 추가로 이루어졌고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그리고 나는 귀한 인연으로 1981년 목포대학 사학과 교수로 부임하여, 정현신보와 만언봉사의 번역, 장흥 방촌의 마을지 편찬, 존재 위백규 선생의 동상 건립, 호남실학과 존재에 대한 연구, 강연 등 오래고 깊은 인연을 가지게 되었다. 부족하지만 이러한 깊은 인연으로 오늘 귀한 학술대회에서 기초 발제를 하게 되었다.

1) (현) 공주대학교 명예교수.

목포대 교수(81-94), 한국역사민속학회 회장(96-98), 국사편찬위원회 편사부장(99-01), 역사문화학회 회장(08-10), 공주대 문화유산대학원장(11-13), 한국서원학회 회장(11-14), 충남역사문화연구원장(13-14), 문화재청 문화재위원(05-15), 공주대 사학과 교수(94-19) 역임.

1. 호남실학과 존재 위백규

호남의 역사와 정신사를 조망하려 할 때 조선후기 실학은 아주 중요한 연구의 대상이다. 조선 시대의 선비정신과 관련하여 호남정신을 논의하는 경우, 조선전기의 정신사적 전통을 대개 기묘 사림들에서 찾고, 조선후기 사회와 호남의 정신사적 맥락은 실학에서 큰 연결고리를 맺는다 할 수 있다.

[반계 - 성호 - 다산]으로 연결되는 한국 실학의 큰 줄기와는 달리 호남지역에서는 18세기 중엽부터 장흥의 존재 위백규(1727~1798)를 비롯하여 나주 출신의 나경적(1690~1762), 순창의 신경준(1712~1781), 고창의 황윤석(1729~1791), 화순의 하백원(1781~1844) 등이 이를 이끌어갔다. 그리하여 존재 위백규는 호남실학의 3걸로 황윤석, 하백원과 손꼽혀지기도 하고, 호남실학의 4대가라 하여 신경준, 황윤석, 하백원과 함께 지목되기도 한다. 그런가 하면 신경준, 황윤석과 함께 '호남 삼천재'라고도 일컬어지는 탁월한 실학자였다.

특히 이들 중 호남실학자를 대표하는 장흥의 재야지식인 존재 위백규는 당 시대를 보는 식견이나, 현실 모순의 타개책들은 다른 실학자들과 비교하여 탁월한 인물로 알려진다. 존재의 사상적 특색은 다른 실학자들의 그것이 대부분 전 국가적인 경륜으로 중앙제도나 법제 개혁 등에 치중하여 이상론에 그친 감이 있는 것과 대조적으로, 그가 살았던 지방, 향촌사회의 구체적이고 실용성 있는 개선책의 강구에 중점을 두고 있었다.

특히 존재 위백규는 『정현신보』와 『만언봉사』를 통하여 당시의 사회모순을 지적, 그 개혁론을 제시하였는데, 그는 관리들의 부패와 각종 제도의 문란상을 40여 조목으로 세분하여 매우 혹독하게 비판한 것으로 유명하다.²⁾ 그리고 존재는 『환영지』라는 세계지도와 『해도지』, 『지제지』 같은 향토지리서를 편찬하기도 하였다.

2. 존재 위백규의 생애

위백규의 자는 자화(子華), 호는 계항(桂巷)·존재(存齋)로, 문덕(文德)의 아들이다. 어려서 종조인 간암 魏世鈺(1689~1766)에게 수학하였고, 천문·지리·율력·복서·병법·산학과 같은 폭넓은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공부하였던 것으로 알려진다.³⁾

위백규는 약관의 나이 20세 때인 1746년(영조 22)에 「花樹宗會規」를 만들어 시행했고, 22세 때인 1748년(영조 24)에는 長川齋에서 학생들을 모아 글을 가르쳤다. 24세 때인 1750년(영조 26)에는 장흥부사 李鎭儀에 의해 鄉薦에 올랐는데, 그 薦目에 “재주가 높고 행실이 아름다우며, 학문이 깊고 몽매한 이를 계발해주었다[才高行美 學邃啓蒙]”라고 했다. 그후 29세 되던 1755년

2) 河聲來, 「魏伯珪의 生涯와 思想」, 『實學論叢』, 전남대학교출판부, 1975. ; 李海濬, 「存在 魏伯珪의 사회개론 -18세기 말 향촌의 자율성 모색을 중심으로-」, 『한국사론』 5,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1979. 李海濬, 「호남실학의 한 면모를 드러낸 政絃新譜」, 『금호문화』, 금호문화재단, 1988년 4월호.

3) 그의 학문은 말년에 국왕 정조에게 알려졌을 뿐만아니라 당대 산림학자인 홍직필도 존재를 ‘天文 地理 律曆 卜筮 兵韜 算數 등을 蒐羅하지 않은 바가 없고 百工技藝를 目擊心解하여 璣衡을 手造함에도 度數가 차가 없었다’고 평가한다(『存齋集』 권24, 「墓誌銘」).

(영조 31)에는 일가 자제로 8세 이상인 아동을 모아서 橘友軒에서 가르쳤다. 또 養正塾을 세우고 「家塾學規」를 마련하였는데, 이 학규는 白鹿洞 學規를 따르고, 訓蒙에 대한 절목은 童蒙須知를 따르며, 堂長과 掌議가 행하는 여러 일들은 울곡의 隱屏精舍 학규를 따르도록 하였다.

한편 그는 여러 차례 과거시에 응시했는데 향시에서는 여러차례 합격하였지만 꿈을 이루지 못하고 1765년 생원시에 합격한 것을 끝으로 과거시험을 접고 향촌에서 강학과 교화에 힘을 쏟았다. 그리고 존재는 屏溪 尹鳳九(1683~1767)를 스승으로 삼아 학문적 성취가 높고 깊어졌으며 세상에 필요한 재능과 유용한 학문을 지녔다.⁴⁾

위백규는 40대에 이르러서는 문중의 모임과 조직을 마련하였고, 향촌활동에 있어서도 특별한 모습을 보여준다. 위백규는 41세 때인 1767년에 茶山草堂을 세우고, 여름에 社講을 실시했고, 43세 때인 1769년에는 家中四時會를 만들어 집안 모임을 활성화시켰다. 또 위백규의 향촌 활동 중 가장 체계적으로 정비된 모임은 社講會로 이를 통하여 선조들의 유훈과 향촌 활동에 주목하며 그 취지를 되살리고자 하였다. 연보에 의하면, 1767년(41세)에 사강회가 처음 시행되고, 1년 뒤인 1768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 것으로 추정된다. 『존재전서』에는 사강회 관련 문서들이 21건이나 수록되어 있다. 사강회의 규약은 會規, 講規, 農規로 구분되어 있고, 농규 다음으로 聯時調인 農歌九章이 실려 있다.⁵⁾

1774년(영조 50) 11월 25일에 社約의 조목을 추가하였는데 이때에 入學禮와 加冠禮를 규정하였다. 그리고 존재는 다산초당에서 鄉飲酒禮, 鄉射禮, 社講會를 계속 시행한 것으로 알려진다. 특히 1780년 향음주례에는 영암의 신사준이 賓이 되었고 인근에서 모인 老少가 수백 명이었다고 한다. 한편 위백규는 64세 되던 1790년(정조 14)에는 無枝契를 만들기도 한다.

한편 주목할 것은 존재가 1776년(정조 즉위년) 12월 21일 장흥 부사에 부임한 黃幹을 대신해 「封事」를 짓는 것이다. 위백규가 장흥 부사 황간에게 보낸 편지 2통이 『존재집』에 수록되어 있는데, 이를 보면 황간은 위백규가 시무에 조예가 깊다는 사실을 익히 알고 정조의 전교를 계기로 위백규에게 시폐에 대해 논한 「봉사」를 대신 써 주도록 부탁한 것으로 보이며, 이에 존재는 시폐를 논한 「봉사」를 황간을 대신하여 1778년(정조 2) 초에 저술하였다.⁶⁾

1794년(정조 18) 호남 연해지역에 해일이 발생하자 조정에서 徐榮輔를 慰諭使로 보냈다. 이때 서영보에 의하여 존재가 천거되는데 위백규는 경전을 널리 통하고 종족을 두루 잘 보살핌[博通經傳 善周宗族]으로 집안과 향리에서 뛰어난 善行이 있고, 집안 살림이 조금 넉넉해서 종족을 잘 구휼해 주었다⁷⁾고 하였다. 서영보의 천거로 그의 저술과 덕행이 정조에게 알려져 마침내 1796년(정조 20) 그의 나이 70세 되던 해에 선공감 부봉사에 임명된다.

4) 또 鼓山 任憲晦(1811~1876)가 『存齋集』 서문에서 “호남 산천은 기세가 빼어나고 경치가 아름다우니 어질고 특출한 인재들이 그곳에서 많이 배출되었다. 그 가운데 학술로 이름난 분들로는 河西 金麟厚, 高峯 奇大升, 遜齋 朴光日, 木山 李基敬이 으뜸이다. 네 분의 현철을 뒤이어 일어난 분은 存齋 魏公이다.”라 하듯이 “그 명성이 호남을 경도[聲譽傾一路]” 시킨 인물로 추앙받았다.

5) 김석희, 「(제5장) 국문시가의 작품세계」, 『존재 위백규 문학 연구』(이회문화사, 1995) ; 「18세기 향촌사회와 존재 위백규의 농가구장」, 『존재 위백규의 사상과 철학』(삼보아트, 2001)

6) 「封事」 序論, 總論, 學校 科擧 文體 用人 郡縣 官職 武科 奴婢 軍制 漕運 糶糴 宮屯 人吏 閹閹 戶帳 情賂 烽燧 城郭 禁盜 均役 海島 牧場 奢侈 紙物 貢物 松禁 堤堰 度量衡 塚地

7) 『承政院日記』 1794년(정조18) 12월 25일(무인) “魏伯珪 博通經傳 善周宗族 令人欽歎 而年至七十 泯而不章 此誠有司之過也 竝與李得一 令該曹 稟旨獎用 何如” ; 『竹石館遺集』 冊6 「湖南慰諭別單」 “長興進士魏伯珪 文學優長 博通經傳 少治學業中進士 年今七十 而居家居鄉 甚有善行 家計稍饒而善周宗族 所著文字經書筭疑及其他著述亦多 根據義理 所蓄淹博 似此賢士 埋沒不章 極爲可惜”

그리고 3월 6일 정조의 부름을 받고 사은숙배를 하기 위해 입대하여 정조 임금을 만날 수 있었다. 이때 정조가 『환영지』를 보았는데 역시 박식함을 증명할 수 있었다. 나이가 이미 노쇠하니 비록 객지에 와서 벼슬하기를 요구하기는 어려우나, 백성의 근심과 나라의 계책에 대해서 평소 마음에 강구한 바가 있으면 모름지기 연석에서 물러난 후 한 통의 문자로 써서 올리라" 하고 호조에 명하여 筆札을 내려 준다. 이에 존재는 그 다음날 당시의 폐단을 구제하는 요체 6조목을 논한 「萬言封事」를 올린다. 이때 올린 「만언봉사」는 존재가 평생을 두고 연구해 온 「정현신보」와 「봉사」 등을 바탕으로 10년에 걸쳐 연구한 끝에 완성한 그의 학문의 결정판으로 “立聖志明聖學, 簡輔弼舉賢能, 勵廉恥振紀綱, 正士習抑奔競, 律貪贓禁奢侈, 由舊章革弊政” 등 6개 항목으로 나누어 논하고 있다. 이때 정조는 「만언봉사」에 대한 비답에서 “십년 동안 연구하여 「만언봉사」를 지은 것이 있다고 들었다.”라고 언급하고 있었다.

그리고 바로 3월 8일에 정조는 존재를 옥과현감으로 제수하였고, 존재는 옥과현감으로 선정을 베풀다가 1797년에 건강이 좋지 않아 장흥으로 돌아왔는데, 이후로도 掌苑署別提·慶基殿승의 벼슬이 내렸다.

3. 존재의 위백규의 실학사상

존재 위백규는 실학자로서 학통이나 후대 학맥도 많이 알려지지 않는다. 그럼에도 위백규가 당시대를 보는 식견이나, 현실 모순의 타개책들은 중앙에서 활동하던 실학자들과 비교하여 탁월한 내용이 많았다.

특히 그의 사상적 특색은 다른 실학자들의 그것이 대부분 전 국가적인 경륜으로 중앙제도나 법제개혁 등에 치중하여 이상론에 그친 감이 있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그가 살았던 말단 지방사회의 구체적이고 실용성 있는 개선책의 강구에 중점을 두고 있었다. 때문에 그의 사상은 단순한 식자들의 전유물로서 진부한 이상추구나 지식의 나열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존재의 사회경제사상은 실생활의 체험이었고 그 속에서 쌓여진 고민과 문제이며 갈등이었고 현실을 바탕으로 한 것이었다. 위백규는 당시 저락하여 있던 현실상황의 근본요인을 정치 기강의 문란과 해이에서 찾는다. 온갖 폐단들이 누적된 이유는 무엇보다도 위국·애민하여야 할 지식인들이 자신의 본분을 망각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즉 국가의 원기로서 기능해야 될 지식인(정부당국자, 선비)들이 본분의식은 고사하고 안일과 타습에 젖어 사리사욕만을 추구하기 때문에 민·국 모두가 「六脈俱絶」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았던 것이다. 그는 만약 국가의 원기로서 이들 지식인들이 자기 역할과 본분을 다 지킨다면, 民志는 자연 안정될 것이고, 민지가 해이되어 생겨나는 온갖 정치·사회적인 병폐도 근절될 수 있으며, 국부·민안의 정치이상도 실현시킬 수 있다고 믿었다.

그가 생각하는 이상적 정치형태는 三代의 도덕정치 즉 왕도정치의 재현이었으며, 때문에 그의 사회개선책 중에는 교육과 학제의 문제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교화와 기강확립의 본원으로서 학교를 선택하고, 학교가 지식인계층의 집합소로서 그 기능을 중추적으로 수행할 경우, 각양의 정치·사회적 폐단은 종식될 수 있다고 믿었던 것 같다. 존재가 제시하는 사회경제론과 실

학사상을 보여주는 저술이 바로 『정현신보(政絃新譜)』와 「봉사(封事)」, 「만언봉사(萬言封事)」 등 폐정개혁에 관한 저술이었다.

· 『정현신보(政絃新譜)』

『정현신보』는 저자의 정치 철학과 실학사상을 가장 잘 대변하는 것으로, 위백규의 나이 30세 때인 1756(영조 32)에 처음 저술되었다. 위백규는 31세 때인 1757년(영조 33)에 덕산으로 스승 屏溪 尹鳳九를 찾아뵈었을 때 時弊 10조를 보여준다. 이 시폐 10조가 바로 「정현신보」로 윤봉구는 이를 보고 “이는 정치를 담당한 사람에게 글 한 통을 써서 의견을 말할 수도 있지만, 초야에서 하는 말은 무익하다. 다만 선비도 폐단을 구제할 방법을 몰라서는 안 되므로, 폐단을 구제할 방법을 조목별로 개진하는 것이 좋다.”라는 가르침을 주었다.

이에 장흥으로 돌아온 위백규는 폐단을 구제한 내용인 救弊를 추가하여 「정현신보」를 보완한다. 「정현신보」를 보면 앞의 13조목(학교·공거·용인·군현·관직·전제·노비·군제·무선·조운·궁둔·전결 등)만 시폐를 서술한 設弊와 폐단을 구제한 救弊가 갖추어져 있는데, 이 13조목이 바로 윤봉구의 가르침에 따라 구폐를 추가하여 보완한 「정현신보」의 내용이 아닌가 한다.

구폐는 모두 19조로 人吏·閥閥·戶帳·僧尼·冠服·錢布·烽燧·禁盜·堤堰·牧場·捕虎·市廛·海島·魚鹽·牛酒松禁·塚地·貢物·工醫·技術 등을 합해 32조목에 걸쳐 폐단을 구하는 방법을 논하고 있다. 그리고 「정현신보」의 총론과 後敍에서는 법은 和民의 마지막 수단임을 지적하고, 마음에서 우러나서 따르도록 해야 한다 하고 있다.⁸⁾

· 「봉사(封事)」와 「만언봉사(萬言封事)」

그 후 존재는 「정현신보」의 보완을 중단한 채 원고를 오랜 세월 동안 시렁에 올려놓고 지나다가 1776년(정조 즉위년) 12월 21일 장흥 부사에 부임한 黃幹을 대신해 「封事」를 지으면서 다시 폐정개혁론에 관심을 기울이게 된다. 위백규가 장흥 부사 황간에게 보낸 편지 2통이 『존재집』에 수록되어 있는데, 이를 보면, 황간으로부터 아이에게 부과하는 군포를 조사하여 면제하는 일 등 시무에 관한 여러 조항의 질문을 받고서 풍속이 피폐하고 해이해져 모든 일에 기강이 없으니 수령이 백성을 위하는 뜻을 보여 시폐를 바로잡는 것이 최선의 방책이라고 일러주고 있다. 장흥부사 황간은 위백규가 시무에 조예가 깊다는 사실을 익히 알고 정조의 전교를 계기로 위백규에게 시폐에 대해 논한 「봉사」를 대신 써 주도록 부탁한 것으로 보이며, 이에 존재는 자신의 저술 「정현신보」를 바탕으로 장흥에서 보았던 문제점들을 29조목으로 시폐를 논한 「봉사」를 황간을 대신하여 1778년(정조 2) 초에 저술하였던 것이다.⁹⁾

8) 『政絃新譜』 救弊序, 總論, 總論後序.

設弊 : 學校 貢舉 用人 郡縣 官職 田制 奴婢 軍制 武選 漕運 糶糴 宮屯 田結

救弊 : 學校 貢舉 武選 用人 郡縣 官職 田制 奴婢 軍制 漕運 糶糴 田結 宮屯 人吏 門閥 戶帳 僧尼

冠服 錢布 烽燧 禁盜 堤堰 牧場 捕虎 市廛 海島 魚鹽 牛酒松禁 塚地 貢物 工匠

또한 위백규는 「봉사」를 저술한 뒤에 이를 바탕으로 다시 「정현신보」를 보완했음을 ‘政絃新譜後序’에서 언급하고 있다. 연보에 보면 65세 때인 1791년(정조 15) 겨울에 「정현신보」를 다시 보완했다고 밝혀져 있는데 이때 새로 보완한 내용이 실폐 없이 구폐만 수록되어 있는 ‘人吏’ 이하의 19조목과 ‘政絃新譜總論’ 및 ‘政絃新譜後序’라고 생각된다.

「만언봉사」는 위백규가 68세 때인 1794년(정조 18) 태풍으로 재난을 당한 호남 연해 여섯 고을을 위로하고자 조정으로부터 파견되어 왔던 된 위유사 서영보(徐榮輔)에 의해 정조에게 천거되면서 올린 봉사이다.

「만언봉사」는 위백규가 평생을 두고 연구해 온 「정현신보」와 「봉사」 등을 바탕으로 10년에 걸쳐 연구한 끝에 완성한 그의 학문의 결정판으로 “立聖志明聖學, 簡輔弼舉賢能, 勵廉恥振紀綱, 正士習抑奔競, 律貪贓禁奢侈, 由舊章革弊政” 등 6개 항목으로 나누어 논하고 있다.

정조는 「만언봉사」에 대한 비답(批答)에서 “십 년 동안 연구하여 「만언봉사」를 지은 것이 있다고 들었다.”라고 언급한 사실로 볼 때, 「만언봉사」는 위백규가 평생을 두고 연구해 온 「정현신보」와 「봉사」 등을 바탕으로 10년에 걸쳐 연구한 끝에 완성한 그의 학문의 결정판이고 할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위백규의 폐정개혁론에 관한 저술인 「정현신보」, 「봉사」, 「만언봉사」는 위백규가 당면한 시폐와 그 구제 방안을 평생 연구하여 저술한 그의 학문의 결정체이다. 그리고 이 세 편의 글은 서로 유기적으로 밀접하게 연관된 저술이다.

· 다시 보는 존재의 경제사상

존재 위백규가 바라보는 사회현실에 대한 관심영역은 다른 실학자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러나 위백규의 사회개선론이 가진 특징은 이들 문제를 보는 시각과 구체적 대안에 있다. 즉 그의 개선론은 제도와 법제가 관행되는 말단 지방사회의 현실에서 구체화된다. 중간수탈의 방지와 그를 통한 민생의 구제는 그가 생각한 최선의 현실타개책인 동시에, 자신과 같은 양심적 향촌지식인의 참여와 견제로서 그 목표가 달성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했던 것 같다. 전 생애를 향촌에서 보냈던 그의 생활기반에 밀착된 이 같은 사유는 바로 재야지식인으로서의 독특한 면모이기도 하다.

그의 향촌사회개선론은 크게

- ① 향촌질서를 유지하려는 교화의 면과
- ② 정치기강의 해이와 사회의 침체에 따른 민생의 도탄을 구제해 보려는 면,
- ③ 향촌지식인 중심의 자율적 질서관(학교론, 국방론, 수세론 등)

으로 나누어 살필 수 있다.

위백규는 민생도탄의 근본요인을 기강해이와 상·하 당직관리나 지식인의 본분 망각에 두고, 이

9) 「封事」序論, 總論

學校 科擧 文體 用人 郡縣 官職 武科 奴婢 軍制 漕運 糶糴 宮屯 人吏 閹閹 戶帳 情賂 烽燧 城郭 禁盜 均役 海島 牧場 奢侈 紙物 貢物 松禁 堤堰 度量衡 塚地

러한 결과가 교육의 부실과 기회의 불균등에 연유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교육개선을 통해 그러한 모순을 배제하려는 의도를 크게 부각시킨다. 즉 교육기관으로서의 학교는 이 같은 목적을 수행하는 중심적 존재로서 기능이 크게 확대·강화되고 있는 것이다. 서원·향교의 운영에 향촌사회의 지식인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가능한 한 모색하고 있다거나, 吏胥들의 규찰을 교·원생들이 할 수 있도록 구상하는 것은 결국 광범한 지식층을 활용, 사회견제세력으로 등장시켜 향촌의 질서를 유지하려는 것이었다.

둘째의 민생안정의 문제는 당대의 거의 모든 양심적 지식인들이 대상으로 삼은 과제이며, 궁극적으로 그것은 경제력의 증대나 경제구조의 개편에 앞서 수탈방지론적인 성격을 갖는 것이었다. 존재의 경우도 국부민안의 이상이 구현되지 않는 이유를 국가의 민력 갈취에 의한 민생의 불안정이라든가, 민생의 질고에 따라 국가의 재정이 모패되는 것으로는 보지 않는다. 그 이유를 존재는 사리를 도모하는 비양심적 관료들의 중간착취, 소모에 있다고 보았기 때문에 군현·관직의 수를 축소하는 일과 함께 합리적인 관리선발론(「貢舉」論)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민폐의 진원인 이서·수령의 통제방안을 각양으로 모색하였으니 특히 탐학과 수탈방지는 물론 그들의 기능을 능률적으로 조직적으로 유도하기 위해 마련한 ① 하급 이서에 대한 처우개선과 교육실시. ② 능력별 관리임용과 시정기회의 보장. ③ 실적위주의 엄격한 고과 등은 주목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민생안정과 관련하여 또 하나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그의 향촌자율적인 공평부세론이다. 그는 중간수탈로부터 민중을 보호하기 위하여 향중공론(鄉中公論)을 통해서 자율적으로 세액을 정할 것을 주장하였다. 이를 통해 우리는 그가 이러한 과정에서 향촌의 양심적 지식인들을 민중대변자 혹은 주도적 존재로 상정하려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결국 이같이 보면, 위백규가 추구하는 사회개선론의 저변에 깔려있는 향촌지식인의 역할확대는 향촌의 자율성과 공의의 구현이라는 측면으로 집약될 수 있고 그것은 바로 향촌사회의 지배층동향 내지 구조적 변모를 암시하는 한 모형이 아닐까 한다. 즉 향촌사회의 지식인들이 중간계층으로서 사회견제, 비판과 민중옹호의 양면적 기능을 수행, 사회조직의 매체가 된다고 하는 사실은 다변화하는 당시의 신분·계층 혼효와 짝하여 새로운 사회구조 형성의 모티브로서 큰 의미를 지니는 것이다. 향촌지식인이라고 하는 민중적 입장의 계층을 핵심으로 사회구성력의 범위가 변모되는 모습을 읽게 되는 것이다.

순조대에 전라좌도 암행어사 兪星煥은 그가 올린 別單에서

근세 이래三班의 仕籍에 들어간 호남 선비가 매우 드물고, 호남 지역 선비의 추세가 점점 낮아졌다. 그리하여 뛰어난 재주와 학문을 지닌 이가 선발되지 못해 출사할 길이 없고, 명문가와 별열가의 자제는 자포자기를 달게 여기고 있어 이를 답답하게 여긴 여론이 있는 지 오래되었습니다.” 라 하여 호남 차별을 거론한 다음, “선조(정조) 때의 고 익찬 신 黃胤錫은 학행이 매우 깊었고, 고 참봉 신 李馥遠은 지조와 행실이 곧고 반듯했으며, 고 현감 신 魏伯珪는 학식이 깊고 넓었습니다. 이 세 사람은 모두 경전을 연구하고 몸을 수양했던 선비였으며, 학업에 사승의 연원이 있고 온 고장의 모범이 되어 엄연히 당시 도내의 儒宗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선조[正祖]께서 인재를 잘 알아보시는 명철한 지혜로 특별히 장려하고 발탁하

여 지금까지 영광스럽게 사람들의 눈과 귀에 생생하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라 하여 호남의 대표적 인재로 황윤석, 이복원과 함께 역시 위백규를 꼽고 있다. 특히 위백규의 학문은 백과전서적 박학과 농촌사회의 모순을 개혁하고자 한 사회개혁론에서 그 정체가 발휘되어 특별한 평가받고 있다.

이에 덧붙여 발제자는 의문점 하나를 언급하고자 한다. 즉 다산 정약용은 위백규가 죽은 뒤 2년 만에 이웃한 강진 땅으로 귀양 와서 18년을 지낸다. 그의 개혁사상 형성에 이러한 호남지역의 여러 실학적 분위기가 큰 영향을 주었다고 보여진다. 그러나 많은 경우 그런 경향과 성격을 이야기하는 연구자들은 거의 없고, 신기하게 다산도 그의 저술에서 존재나 존재의 주장, 논거를 언급한 적이 한 번도 없다.

그러나 돌이켜 보면 다산의 실학적 저술에서 호남인맥들과의 교류, 영향과 협조는 매우 중요하다. 부연하면 다산은 호남에 훑으로 와서 주인이던 호남의 학자·문인들과 교류하면서 그의 경륜과 포부를 십분 발휘한 인물이었고, 그가 것처럼 위대한 업적을 남길 수 있었던 바탕에는 당 시대 호남인들의 정신적 분위기와 기대가 반영되어 있었던 것이다.

우리는 때로 다산이 만약 호남이 아닌 영남이나 관동지방으로 유배되었더라도 과연 그 같은 업적을 남길 수 있었을 것인지에 대해 의문을 가져 볼 필요가 있으며, 만약 그것이 강진이나 호남이었기에 가능했던 것이라면 이는 다른 어느 사실보다도 중요한 문제가 될 수도 있다. 그래서 필자는 다산의 주변에, 혹은 그 이전부터 실학적 분위기를 성숙시켜왔던 호남의 재야지식인들에 대한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고, 특히 존재가 지녔던 탁월한 사상과 사회경제론이 다산에게 연결되었을 것이나 일언의 논의나 언급도 없는 것이 아쉽고, 의문이기도 하다.

4. 존재 고택 고서 고문서 자료

존재 위백규의 저술은 문집, 지리지를 비롯하여 고문서 자료로 남아 전한다. 특히 위백규의 문집은 1875년에 24권 12책의 목활자본으로 任憲晦의 서문을 부쳐 『存齋集』이 간행되었고, 다음으로 1974년에 앞서 빠진 것까지 모두 수록하여 경인문화사에서 영인본 상하 2책의 『存齋全書』로 간행되었다. 그리고 2013년에 『存齋集』을 저본으로 하여 한국고전번역원의 한국문집번역총서가 나오기도 하였다.

『존재집』에는 권1 詩, 권2~3 疏, 권4 狀·書, 권5~10 筭義, 권11 說, 권12~14 格物說, 권15 說, 권16 原類, 권17 辨, 권18 學規 등, 권19 政絃新譜, 권20 然語·序, 권21 序·記·跋, 권22 銘·箴·祭文·祝文·碑誌, 권23 墓誌·行狀·傳, 권24 附錄 年譜 등이 수록되어 있다. 『존재전서』에는 상책에 詩賦, 疏, 書, 雜著, 格物說, 四書筭義, 序, 記, 辨, 年譜, 하책에는 政絃新譜, 寶瀛誌, 然語, 祭文, 墓道文, 雜著, 附錄 등이 수록되어 있다.

위백규의 문집에서 詩는 전체 량에 비해 작품이 그리 많지 않은 편이고,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讀書筭義’이다. 이는 四書를 중심으로 해석한 글로 모두 5권이나 되는데 이로써 존재의 경학에 대한 깊이를 볼 수 있다.

그리고 가장 중시되는 것이 바로 실학자 존재의 모습으로 經世論 자료가 많다. 다음에 상세하게 소개해 볼 萬言封事와 封事 및 政絃新譜가 그것이다. 그리고 이밖에 사물과 역사 및 우주의 이치와 원리를 탐구한 格物說이나 原類 등도 있다.

宋穉圭는 존재의 행장에서, ‘政絃新譜, 分賑節目, 寰瀛誌 등 90여 권이 있었다’고 하였으며, 南公轍은 연석에서 정조에게 ‘저자의 불만한 문자가 100여 권이나 된다’고 하였으니, 상당한 양의 저작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문집에 수록되지 않은 「支提誌」, 「古琴」 등도 있다.

그리고 다음에 여러 선생님들이 상세히 다루고 있듯이 존재고택에는 다양한 자료들이 있다. 이들 존재 위백규와 존재고택에 소장된 저서와 고문서는 2020년 한국학호남진흥원에서 호남한국학 기초자료해제집 2집으로 『장흥 장흥위씨 존재고택』을 발간하여 소개하고 있다. 존재고택 기탁자료는 900여 건에 이르며 자료의 다양성과 15·6세기부터 20세기에 이르는 작성 시기의 광범함, 그리고 여러 저자 필자들이 함께 하는 귀중한 자료이다. 고서의 경우에는 경·사·자·집이 골고루 소장되어 있고 필사본이 많으며, 고문서는 교지와 시권을 비롯하여 소지, 호적, 명문, 시문, 간찰 등이 다양하게 소장되고 있다.

그리고 오늘 이들 저서와 고문서 자료에 대하여는 저의 발제에 이어 안동교 선생, 이상현 선생, 정대영 선생의 귀한 발제가 있으므로 이를 주목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부족한 저의 발제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한다.

□ 참고 논저

- 하성래, 「위백규의 생애와 사상」, 『실학논총』, 전남대출판부, 1975.
이해준, 「존재 위백규의 사회개선론」, 『한국사론』 15집, 서울대 국사학과, 1979.
하성래, 「18세기 호남사회의 양상과 존재의 개혁사상(1)」, 『다산학보』 8집, 1986.
이해준, 「정현신보와 만언봉사(해제)」, 『국역 정현신보』, 장흥군, 삼화문화사, 1987.
김석희, 『존재 위백규 문학 연구』 이회문화사, 1995
김석중·안황권 편저, 『존재 위백규의 사상과 철학』, 도서출판 삼보아트, 2000
김형연, 『존재 위백규의 사상과 철학』, 도서출판 삼보아트, 2001
전남문화원연합회, 『조선후기 향촌문화사와 존재 위백규』, 2003,
김희태, 「존재 위백규의 선양활동과 문화유산의 활용」, 전남문화원연합회, 2003
안동교, 「존재 위백규의 사상」, 전남문화원연합회, 2003
이종범, 「존재 위백규의 가통과 향촌활동」, 전남문화원연합회, 2003
위흥환, 「존재 위백규의 학풍과 교유관계」, 『한국시가문화연구』 15집, 2005.
서종태, 「존재 위백규의 폐정개혁론에 대한 연구」, 전북사학회, 2011.
김건우, 「존재 위백규의 향촌계몽활동과 그 의미」, 전북사학회, 2011.
위정철, 『존재 위백규와 다산 정약용의 생애와 사상연구』, 한국학술정보 2012
이해준, 「조선후기 사회경제론과 장흥 인맥」, 『장흥문화』 42호, 장흥문화원, 2020.
이해준, 「방호집 해제」, 『방호선생문집』, 장흥문화원, 2020.

MEMO

2022년 국학자료 수집·보존 공동학술대회

존재 위백규 가 고문서 중에서 서간(書簡)의 학술적 가치

1. 머리말
2. 서간의 현황과 구성
3. 서간의 주요내용과 학술적 가치
4. 맺음말

존재 위백규 가 고문서 중에서 서간(書簡)의 학술적 가치

안동교¹⁾

목 차

1. 머리말
2. 서간의 현황과 구성
3. 서간의 주요내용과 학술적 가치
4. 맺음말

1. 머리말

- 몇 년 전에 장흥위씨 존재고택의 기록자료가 한국학호남진흥원에 기탁 보관됨
- 진흥원은 이 기록자료들을 목록으로 정리하고 해제집을 간행함
- 2020년에 『장흥 장흥위씨 존재고택』(호남한국학 기초자료해제집 2)을 발간
- 이 해제집의 부록에 ‘존재고택 기탁자료 목록’이 실려 있음(260~375쪽)
- 古書 460여 책이 經史子集으로 분류됨
古文書 416여 건이 형태별로 분류됨
목판(환영지) 46판과 기타 유물 2점 정리
- 920여점에 달하는 존재고택의 기록자료는 위백규의 자신, 직계가정, 방계가문, 향촌사회, 당대 유림활동 등을 연구하는 데 기여할 것임
- 필자는 고문서 중에서 약 150통에 달하는 한문 서간들에 주목하고(諺簡, 慰狀, 婚書는 제외), 그중에서도 위백규가 받은 79통의 서간과 위백규가 보낸 8통의 서간을 연구대상으로 삼음
- 이 발표는 서간에 내재된 단편적인 정보들을 어떻게 학술적으로 접근하여 활용할지를 모색한 일종의 試論임
- 18세기 영, 정조 시대에 存齋 魏伯珪(1727~1798)가 주고받은 서간들을 분석하여 그 속에 담겨진 학술적 내용과 의미를 밝히고자 함

1) 한국학호남진흥원, 자료교육부장

2. 서간의 현황과 구성

- 존재고택의 고문서는 교지류 24건, 시권류 11건, 소지류 17건, 전최 3건, 첩정 1건, 감결 1건, 망기 2건, 문안단자 1건, 존문 2건, 호적류 32건, 명문류 7건, 유서 5건, 시 12건, 만시 12건, 서문 4건, 발문 2건, 행장 1건, 묘지 2건, 제문 4건, 축문 2건, 상서 1건, 상량문 2건, 서간 150건, 언간 1건, 위장 3건, 혼서 5건, 통문 2건, 포천장 1건, 기타 문서로 구성됨
- 위백규의 고조인 魏廷烈(1580~1656) 때부터 고문서가 생산되어 魏文德(1704~1784)과 魏伯珪 부자에 이르러 폭발적으로 증가하였고 위백규의 자손 대에도 다수 추가됨
- 각종 고문서 416여 건 중에서 서간이 150건으로 압도적인 분량을 차지함
- 한문 서간은 조선조 학자들이 자신의 의사를 전달·소통하던 가장 보편적인 통신수단이었던 만큼 현존하는 고문서 중에서도 가장 방대한 분량을 차지하는 게 일반적인 현상
- 서간 150건 중에서 위백규가 받은 79통이 낱장 형태로 소장되어 있고, 위백규가 보낸 8통 역시 낱장 형태로 소장됨
- 발급자와 수급자가 확인된 것만 도합 87통인데,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1 - 위백규가 받은 서간]

(가나다순/발급시기순)

전체순번	문서명/발급자	수급자	발급시기	발급자 정보	주요 내용
609	1796년 高時良 서간	위백규	1796. 11. 16	창평 柳村, 호는 華谷	- 유생 고시량이 옥과현감에게 보낸 편지 · 가을에 왕립해 주어 매우 감사
610	1796년 高時采 서간	위백규	1796. 4. 21	창평 柳村 1748-1821 호는 慕齋, 高傳川 후손	- 유생 고시채가 옥과현감에게 보낸 편지 · 현감 부임을 축하 · 작은 고을이지만 경륜을 펼치기 바람
618	1797년 金相夔 서간 1	위백규	1797. 1. 21	창평현령, 본관은 延興, 자는 一甫	- 창평현령 김상기가 옥과현감에게 보낸 답장 · 書員 6~7명을 보내 달라 요청받았는데 현재 書僮이 2명 뿐이라 함
619	1797년 金相夔 서간 2	위백규	1797. 4. 4		- 창평현령 김상기가 옥과현감에게 보낸 편지 · 늙어 병든 동병상련의 신세를 한탄
620	1797년 金相夔 서간 3	위백규	1797. 7. 24		- 창평현령 김상기가 위백규에게 보낸 답장 · 家禮輯覽은 많이 인출하지 못해 살 곳이 없음
621	1796년 金時模 서간	위백규	1796. 11. 12	창평 高邨 거주	- 유생 김시모가 옥과현감에게 보낸 편지 · 세모에 치를 醜禮를 걱정해줌 · 三川은 자신의 고향이고 羅甫와 세의가 있음 · 선정을 기대하고 후학으로서 교육을 받고 싶음
622	1797년 金胤行 서간 1	위백규	1797. 1. 1	본관은 김해, 金完 후손, 영암 출신	- 사천현감 김윤행이 옥과현감에게 보낸 답장 · 선달에 貶坐한 후로도 은총이 융숭하니 거취를 잘 결정해야함
623	1797년 金胤行 서간 2	위백규	1797. 1. 23		- 처남 김윤행이 옥과현감에게 보낸 답장 · 누이의 건강을 묻음 · 行下할 때는 잘 살펴야 함 · 行器는 도착했음
624	1796년 金濟萬 서간	위백규	1796. 7. 14	和柔翁主의 사위 ?	- 창평현령 김제만이 옥과현감에게 보낸 답장 · 성은을 입어 移遷하게 되었음 · 20일쯤 옥과를 지나가게 되면 방문할 생각
632	1796년 南麟考 서간	위백규	1796. 8. 22	南公轍 아들	- 순창군수 남인구가 옥과현감에게 보낸 답장 · 雙轎를 빌려 달라 했는데 부응할 수 없음

전체순 번	문서명/발급자	수급자	발급시기	발급자 정보	주요 내용
641	1797년 徐鼎修 서간	위백규	1797. 5. 18	1749~1804 본관은 달성	- 전라감사 서정수가 옥과현감에게 보낸 답장 · 모래에 감영을 떠나 이입함
643	1796년 宋必淵 서간 1	위백규	1796. 4. 13	恩津 출신, 자는 孟源, 黃胤錫 교유	- 유생 송필연이 옥과현감에게 보낸 편지 · 옥과현은 본래 청한하여 유현들이 소요한 곳 · 공무 여가에 精一공부를 하고 있는지 물음
644	1796년 宋必淵 서간 2	위백규	1796. 4. 22		- 유생 송필연이 옥과현감에게 보낸 답장 · 시와 술을 보내주어 감사 · 목천현감 황윤석과 함께 한것 토론하였음
645	1796년 宋必淵 서간 3	위백규	1796. 11. 14		- 유생 송필연이 옥과현감에게 보낸 편지 · 지어 보내준 跋文의 중적을 알 수 없음
646	1797년 宋好臣 서간	위백규	1797. 2. 19	동북현 龍巖 거주	- 동북현 백성 송호신이 옥과현감에게 보낸 편지 · 예전 永平 別試의 추억을 말함 · 옥과현에서 선정을 베풀길 기대함
651	1797년 申德彬 서간	위백규	1797. 8.그믐	본관은 高靈	- 유생 신덕빈이 위백규에게 보낸 답장 · 고령신씨 족보 편찬과 관련된 질문을 함
652	1796년 愼師浚 서간	위백규	1796. 8. 18	영암 거주, 1734~96, 愼昌徵 아들, 二懷齋, 진사	- 정릉직장 신사준이 옥과현감에게 보낸 답장 · 김인후·이홍발·金範·송명흠을 이어서 곡성현에 武 城의 絃歌가 그치지 않을 것 · 시무6조로 촉발된 대학제생들의 捲堂은 신경 쓸 것이 없음
657	1797년 梁周翊 서간	위백규	1797. 5. 5	본관은 남원, 1722~1802 양대박 후손, 문과, 無極集	- 병조참의 양주익이 옥과현감에게 보낸 편지 · 옥과현의 金得光 산송 일을 잘 처리해 줄 것 · 선조 문집을 完營에서 간행 중이라 함
658	1796년 嚴思勉 서간	위백규	1796. 8. 23	1750~? 진사	- 동북현감 엄사면이 옥과현감에게 보낸 답장 · 雙橋는 빌려드리기 어렵고, 獨橋는 빌려주겠음
660	1796년 月井書院 서간	위백규	1796. 4.그믐	나주 光谷里, 사암 박순 제향	- 나주 월정서원에서 옥과현감에게 보낸 편지 · 박순·김계휘·심익·김정철 4선생을 제향함 · 齋舍와 講堂 중수에 협조를 부탁
663	1796년 魏光翼 서간	위백규	1796. 4. 7	함흥 출신, 1745~1819, 진사	- 종친 위광익이 옥과현감에게 보낸 편지 · 萬言疏로 인한 태학, 四學, 重臣들의 물의를 잠재 우려면 한두 차례 감영에 辭狀을 내는 게 좋음 · 陵典誌 속편 간행에 쓸 印冊紙를 부탁
664	1796년 魏光翼 서간	위백규	1796. 6. 4		- 자산부사 위광익이 옥과현감에게 보낸 답장 · 印冊紙를 보내주어 매우 감사함
665	1798년 魏光翼 서간	위백규	1798. 2.그믐		- 종친 위광익이 위백규에게 보낸 답장 · 魏伯純의 생원시 입격을 축하 · 자신의 아들과 당길 두 사람도 모두 합격하여 한 가문에서 세 명의 新恩과 네 명의 白牌가 나옴
676	1796년 柳匡天 서간	위백규	1796. 5. 10	광주 五湖里, 1732~99, 문과 歸樂窩集	- 승지 유광천이 옥과현감에게 보낸 답장 · 만안소로 사망에 물의가 일어 안타까움 · 물의에 대처하는 방법을 제시함 · 歸樂窩序와 詩를 지어 보내주어 감사함
678	1765년 柳雲翼 서간	위백규	1765. 윤2. 4	본관은 진주, 1734~? 문과, 柳敍五의 아들	- 유운익이 진사 위백규에게 보낸 편지 · 진사에 입격하니 천관산의 초목도 빛날 것 · 先人도 매번 남쪽고을의 제일 文詞로 칭찬했음
679	1756년 尹鳳九 서간	위백규	1756. 9. 27	1681~1767 호는 屏溪, 위백규 스승	- 스승 윤봉구가 위백규에게 보낸 편지 · 그곳으로 귀양 가는 李基益을 보살피줄 것 · 조카가 소과에 합격하여 어제 내려옴
684	1796년 尹心約 서간 1	위백규	1796. 3. 26	윤봉구의 아들, 東部舍, 영유현령	- 동부령 윤심약이 옥과현감에게 보낸 편지 · 위백규가 정한 이조서리 吳宗淵은 자신 집안의 10 여대 단골리라 함

전체순 번	문서명/발급자	수급자	발급시기	발급자 정보	주요 내용
					· 이조 堂參價 문제 처리 · 종이를 넉넉히 보내달라고 함
685	1796년 尹心約 서간 2	위백규	1796. 5. 19		- 동부령 윤심약이 옥과현감에게 보낸 답장 · 아들이 요절하여 慘毒함 · 한홍유가 상소하여 위백규를 비판한 일 · 옥과 검방면에 사는 金宗輝를 보살펴줄 것
686	1796년 尹心約 서간 3	위백규	1796. 8. 19		- 동부령 윤심약이 옥과현감에게 보낸 답장 · 금년 농사는 이곳이나 그곳이나 대풍일 것 · 보내주신 10폭은 매우 감사함
687	모년 尹心緯 서간	위백규	모년. 8. 26	윤봉구 맏아들, 1716~? 생원, 인천부사	- 윤심위가 위백규에게 보낸 편지 · 어제 榜眼을 보고 입성했다는 것을 알았음 · 지금 수각교의 종형 집에서 묵고 있으니 그곳으로 찾아와주기 바람
688	1796년 尹孝寬 서간 1	위백규	1796. 3. 22	강진 출신, 1745~1823 본관은 해남, 문과, 竹麓遺稿	- 좌랑 윤효관이 옥과현감에 보낸 편지 · 만언소로 인한 물의를 전달하고 감영에 辭狀을 두 세 번 올리라 함 · 성균관의 草記, 啓本, 批旨를 베껴서 사천현감 김윤행에게 보냄
689	1796년 尹孝寬 서간 2	위백규	1796. 7. 7		- 좌랑 윤효관이 옥과현감에 보낸 답장 · 褒題에서 상을 차지한 것을 축하함 · 옥과 선비 金相鎰를 찾아봐 달라고 부탁
690	1796년 尹孝寬 서간 3	위백규	1796. 10. 13		- 좌랑 윤효관이 옥과현감에 보낸 답장 · 行下의 일에 대해서 처리 방안을 말함
691	1798년 尹孝寬 서간 4	위백규	1798. 2. 그믐		- 威下 윤효관이 옥과현감에 보낸 답장 · 자신은 벼슬을 버리고 고향으로 돌아갈 것임 · 위백순의 생원 입격을 축하함 · 관직생활을 잘못된 것에 자괴감이 듦
693	1796년 李奎玉 서간	위백규	1796. 4. 22	곡성 거주, 동지중추부사	- 同知 이규옥이 옥과현감에게 보낸 편지 · 1749년 가을에 광양 과거장에서 춘부장을 뵈 · 시를 한 수 지어서 보냄
694	1796년 李燾 서간	위백규	1796. 6. 15	남원 거주, 1731~? 문과	- 병조좌랑 이도가 옥과현감에게 보낸 편지 · 만언소 물의와 관련해 辭狀을 올릴 것 · 흉년에 賑政을 어찌 감당하는지 물음 · 옥과 宋奎東의 일을 잘 처결해달라고 부탁
695	1796년 李得養 서간	위백규	1796. 6. 28	1760~? 수원 거주, 생원	- 기장현감 이득양이 옥과현감에게 보낸 답장 · 체직되어 서둘러 출발하느라 인사드리지 못함 · 瘴氣로 병이 들었고 쇠잔한 백성을 소생시킬 계책도 없음
699	1770년 李普溫 서간 1	위백규	1770. 12. 27	1728~? 본관은 용인, 문과	- 장흥부사 이보온이 위백규에게 보낸 편지 · 장흥 고을의 폐단을 조목조목 나열해주어 기쁨 · 빌려준 책은 잘 읽고 돌려드림 · 이번의 천거는 춘부장, 金夢龍, 文桂國으로 함
700	1770년 李普溫 서간 2	위백규	1770. 12. 28		- 장흥부사 이보온이 위백규에게 보낸 편지 · 보내준 2책을 읽고 法門의 규모를 앎 · 부탁한 두 조목은 마땅히 주선하겠음
701	1771년 李普溫 서간 3	위백규	1771. 3. 24		- 장흥부사 이보온이 위백규에게 보낸 답장 · 陸演과 水操를 행하느라 몸이 고달픔 · 兩稅를 다 거둔 뒤 한 번 찾아가겠다고 함
702	1772년 李普溫 서간 4	위백규	1772. 8. 6		- 장흥부사 이보온이 위백규에게 보낸 편지 · 조정의 부름을 받아 내일 떠남 · 빌려온 책 70권을 모두 돌려보냄
703	모년 李普溫 서간 5	위백규	편지 받은 날		- 장흥부사 이보온이 위백규에게 보낸 답장 · 作文은 小心과 放膽 두 가지 속에서 이뤄짐 · 責勉해준 말은 잘 실천할 생각임

전체순 번	문서명/발급자	수급자	발급시기	발급자 정보	주요 내용
704	1796년 李師稷 서간 1	위백규	1796. 4. 27	영광 남산, 1732~1810 李萬榮 후손, 訥幸齋集	- 사돈 이사직이 옥과현감에게 보낸 편지 · 보리 흉년에 고민스러울 것이라고 걱정 · 옥과 수령으로 나가게 된 것은 임금의 은총
705	1796년 李師稷 서간 2	위백규	1796. 9. 13		- 사돈 이사직이 옥과현감에게 보낸 답장 · 사직서는 임금의 은혜에 매우 황공한 일임 · 나중에는 관아로 복귀한 소식을 들음
706	1796년 李師稷 서간 3	위백규	1796. 10. 18		- 사돈 이사직이 옥과현감에게 보낸 답장 · 직접 오셔서 子婦의 觀行을 이끌겠다고 하니 기다리는 중임
707	1796년 李師稷 서간 4	위백규	1796. 10. 29		- 사돈 이사직이 옥과현감에게 보낸 편지 · 흉년에 糶政을 걱정함 · 서울에서 만언소에 대해 비방하는 일이 잠잠해져 다행임
708	1797년 李師稷 서간 5	위백규	1797. 1. 7		- 사돈 이사직이 옥과현감에게 보낸 편지 · 문하에 든 아들에게 늘 따듯한 충고를 해줘 감사
709	1797년 李師稷 서간 6	위백규	1797. 4. 3		- 사돈 이사직이 옥과현감에게 보낸 편지 · 손녀가 어미를 따라 먼 곳에 있어서 안타까움 · 사직서를 경솔하게 올려서는 안 됨
710	1796년 李潤明 서간 1	위백규	1796. 7. 12	1736~? 본관은 전주, 진사	- 곡성현감 이윤명이 옥과현감에게 보낸 편지 · 김매기 이후에 가뭄이 심해서 걱정임 · 蓮根 몇 되를 보내주기 바람
711	1796년 李潤明 서간 2	위백규	1796. 8. 24		- 곡성현감 이윤명이 옥과현감에게 보낸 답장 · 雙轎를 다른 관청에 빌려주기 어려움
712	1796년 李潤明 서간 3	위백규	1796. 8. 29		- 곡성현감 이윤명이 옥과현감에게 보낸 답장 · 남원 관아에 가서 순찰사를 뵈고 돌아옴 · 雙轎를 아전에게 내렸으니 파손되지 않게 할 것
713	1796년 李潤明 서간 4	위백규	1796. 9. 10		- 곡성현감 이윤명이 옥과현감에게 보낸 답장 · 濟州箋文을 감독하는 관리에 차정되었음 · 轎子는 잘 돌려받게 되어 다행임
714	1796년 李潤明 서간 5	위백규	1796. 12. 3		- 곡성현감 이윤명이 옥과현감에게 보낸 편지 · 還政을 마감했는지 물음 · 院登面에서 保授한 소[牛隻]의 일을 논함.
715	1796년 李潤明 서간 6	위백규	1797. 윤6. 8		- 곡성현감 이윤명이 옥과현감에게 보낸 편지 · 병상에 누웠다고 하는데 어떤 증상인지 물음 · 자신은 더위증으로 신음하고 있음
720	1750년 李鎭儀 서간 1	위백규	1750. 4. 4	1703~? 본관은 전주, 문과	- 장흥부사 이진의가 위백규에게 보낸 답장 · 獅岳(사자산)에서 돌아온 뒤로 피곤함 · 풍우로 피해를 보았다 하니 걱정됨
721	1752년 李鎭儀 서간 2	위백규	1752. 4. 13		- 사간원정언 이진의가 위백규에게 보낸 답장 · 가을에 慶科를 치를 예정이니 그때 만나 얘기하자고 함.
722	1752년 李鎭儀 서간 3	위백규	1752. 6. 18		- 사간원정언 이진의가 위백규에게 보낸 답장 · 서울에서 치를 각종 과거시험의 정보를 전달함 · 빗 두 자루는 잘 받았음
723	1797년 李憲儒 서간 1	위백규	1797. 2. 1	1733~? 본관은 여주, 진사	- 담양부사 이현유가 옥과현감에게 보낸 편지 · 손자의 冠禮에 賓으로 초빙하고자 함
724	1797년 李憲儒 서간 2	위백규	1797. 윤6.20		- 담양부사 이현유가 옥과현감에게 보낸 편지 · 위백규가 어제 전취에서 貶을 받은 것에 대해 의아하게 여김 · 자신은 4년 동안에 두 번 中을 맞아 돌아감
725	1796년 李侯圭 등 서간	위백규	1796. 4. 27	영광 남산 거주	- 유생 이후규 등이 옥과현감에게 보낸 편지 · 선조 穎波亭 李岸의 遺事에 발문을 적어주어 감사하다는 내용

전체순 번	문서명/발급자	수급자	발급시기	발급자 정보	주요 내용
728	1796년 林濟遠 서간	위백규	1796. 9. 11	1737~? 본관은 나주, 尼山 거주	- 충청감사 임제원이 옥과현감에게 보낸 편지 · 옥과 수령으로 부임하여 경륜을 펼치길 기대 · 족속 林載謙이 옥과 大明洞에 살고 있으니 들러봐 주길 부탁
730	1796년 壽司郎 서간	위백규	1796. 7. 1	南達孫, 鄭晚錫 등	- 비변사 낭청 10명이 옥과현감에게 보낸 편지 · 오랜 관례에 따라 비변사의 筆債을 받는 사람을 보 내니 넉넉히 도와달라고 함
734	1792년 崔夢岳 서간 1	위백규	1792. 11. 13	1718~1802 영암 거주, 養吾堂集	- 최몽암이 위백규에게 보낸 답장 · 袁安과 같은 사람을 알아보지 못했다고 함 · 책자는 글을 다 쓴 후에 돌려줘도 좋음
735	1796년 崔夢岳 서간 2	위백규	1796. 8. 20		- 공조참판 최몽암이 옥과현감에게 보낸 편지 · 관직의 거취에 대해서 논함
736	1796년 崔粹綱 서간	위백규	1796. 9. 5	자는 季章, 정약용과 교유	- 진안현감 최수경이 옥과현감에게 보낸 편지 · 長疾에 걸려 저승을 오가는데 竹漉을 써야 낫는다 고 하니 많이 보내주길 바람
737	1796년 崔昌國 서간 1	위백규	1796. 7. 22	1726~? 光州 거주, 문과	- 돈녕부도정 최창국이 옥과현감에게 보낸 답장 · 선정을 베푼다는 소문을 들음 · 책자를 정중히 돌려주고 편지지도 보내주어 감사
738	1796년 崔昌國 서간 2	위백규	1796. 9. 7		- 돈녕부도정 최창국이 옥과현감에게 보낸 편지 · 還官한지 이미 오래되었다고 들음 · 혈뜻는 사람은 적고 칭찬하는 사람은 많다고 하니 매우 기쁨 · 泮主人을 보내는 일이 마음 쓰일 것
741	1796년 洪良浩 서간	위백규	1796. 5. 4	1724~1802 본관은 풍산, 문과, 耳溪集	- 예조판서 홍양호가 옥과현감에게 보낸 편지 · 1754년에 시관으로서 위백규의 문장을 처음 봄 · 본도의 사우들에게 高名을 익히 들었으나 한 번도 만나 뵈지 못함 · 어려운 상황에 수령 역할을 잘 해주기 바람
742	1797년 洪龍健 서간	위백규	1797. 7. 24	평안도 용강 출신, 본관은 남양	- 장흥부사 홍용건이 별제 위백규에게 보낸 편지 · 單子에 題音하여 보냈음 · 산삭한 關記는 잘 받았음
743	1778년 黃翰 서간 1	위백규	1778. 1. 4	1713~? 서울 거주, 본관은 창원, 문과	- 장흥부사 황간이 위백규에게 보낸 편지 · 松田을 摘奸하다 보면 반드시 사단을 일으키게 될 터라 고민스러움
744	1778년 黃翰 서간 2	위백규	1778. 3. 19		- 장흥부사 황간이 위백규에게 보낸 편지 · 조카분의 죽음이 참담하고 함 · 大賓을 행할 날짜가 가까워졌는데 客舍에 일이 많 아 근심스러움
745	1778년 黃仁紀 서간 1	위백규	1778. 1. 17	黃翰의 아들, 1747~1831, 생원, 金元行 문인, 一水然語	- 황인기가 위백규에게 보낸 편지 · 춘부장과 집사의 배려로 교유하게 되어 다행 · 위백규집안을 德門이라 하고 五星과 八龍에 비유
746	1778년 黃仁紀 서간 2	위백규	1778. 4. 13		- 황인기가 위백규에게 보낸 편지 · 그에게 海倉에 가서 고기 잡는 모습을 봄 · 배 안이 天上과 같아 흥금을 한바탕 씻어냄
747	1778년 黃仁紀 서간 3	위백규	1778. 6. 5		- 황인기가 위백규에게 보낸 편지 · 부모 병구완하는 일이 어떠한지를 물음 · 천리 길을 달려오느라 갖은 고생을 함
748	1778년 黃仁紀 서간 4	위백규	1778. 윤6.15		- 황인기가 위백규에게 보낸 답장 · 수백 명이 모인 落成宴에 덕의 군자들만 보이지 않 아 한스러움
749	1778년 黃仁紀 서간 5	위백규	1778. 9. 11		- 황인기가 위백규에게 보낸 답장 · 서울의 琴師를 만나 병중의 회포를 펼치고자 하니 거문고를 빌려달라고 함

전체순 번	문서명/발급자	수급자	발급시기	발급자 정보	주요 내용
750	1778년 黃仁紀 서간 6	위백규	1778. 11. 29		- 황인기가 위백규에게 보낸 편지 · 橘枝의 아름다운 시구에 차운시를 짓지 못하다가 이제야 지음 · 책력 세 개를 보내드리고 책력을 읊은 시 한 수를 보냄
752	1777년 李普溫 서간 6	위백규	1777. 4. 7		- 이보온이 위백규에게 보낸 답장 · 천 리나 떨어져 만나보기 쉽지 않음 · 전복 두 개를 잘 받았음
754	1796년 任長源 서간	위백규	1796. 5. 17	1734~1804 문과, 葵庵集	- 사헌부장령 임장원이 옥과현감에게 보낸 편지 · 담양의 죄인 申得成을 옥과를 거쳐 동복현으로 송치하는 문제를 논의

[표2 -위백규가 보낸 서간]

(발급시기순)

전체순 번	문서명/발급자	수급자	발급시기	주요 내용
667	1764년 魏伯珪 서간 1	魏文德	1764. 7. 6	- 위백규가 부친 위문덕에게 올린 답장 · 祠宇와 관련된 일로 송사가 벌어져 完營으로 가서 上司에게 주선하고 있으나, 상사가 오히려 黨戰으로서 의심하여 反題하는 일이 있게 되어 고민스럽다고 함 · 점쟁이에게 四柱를 묻자 내년 과거시험 운수는 좋고 올해는 官厄이 있겠지만 조용히 기다리면 괜찮을 것이라 했음
668	1764년 魏伯珪 서간 2	魏文德	1764. 8. 27	- 위백규가 부친 위문덕에게 올린 편지 · 이틀 간 과거시험을 치렀는데 終場에서 제8인으로 입격함 · 아우들은 향시를 어떻게 보았는지 鄉榜을 보지 못해 답답함 · 任友와 남한산성으로 가서 會試 공부할 하기로 함 · 試卷이 아직 오지 않아 등수를 알 수 없음 · 義題, 賦題, 疑題를 적어 보냄 · 큰 風雨에 농사 작황이 어떠한지 물음 · 서울의 쌀값은 예전과 같고, 小學 강론을 폐하지 않음
669	1765년 魏伯珪 서간 3	魏文德	1765. 윤2. 23	- 위백규가 부친 위문덕에게 올린 답장 · 회시에 입격한 뒤에 내려오는 일정을 전함 · 15일에 屏溪선생을 뵈었는데 크게 칭찬해줌 · 말의 네 발굽에 피가 맺혀 獸鬻을 불러 짐을 놓음 · 遊街의 뜻을 밝히고, 먼저 장흥부사를 찾아빈 뒤에 친지를 두루 방문할 계획임 · 京債는 70냥이 들었음
670	1765년 魏伯珪 서간 4	아우	1765. 윤2. 13	- 진사 위백규가 아우에게 보낸 편지 · 8일에 唱榜하고 11일에 길을 떠나 13일에 素沙에 도착한 뒤 屏溪로 감 · 才人은 4명으로 하되 잔칫날에는 妓樂을 베풀지 말 것이며, 본 관아의 三絃手를 부르면 좋을 것 · 18일 쯤 德山에서 출발할 터이니 말은 雙溪로 마중 나오면 좋겠음
671	1796년 魏伯珪 서간 5	魏道立	1796. 5. 11	- 옥과현감 위백규가 만아들 위도립에게 보낸 편지 · 보리 수확, 모내기 상황을 묻고 구매한 소가 어떠한지 물음 · 壽童이 옷감을 준비하고 종이 한 권을 擣砧해줄 것 · 辭狀이 封還되었는데 20일 쯤 다시 올릴 계획임
672	1796년 魏伯珪 서간 6	魏道及	1796. 5. 11	- 옥과현감 위백규가 둘째아들 위도급에게 보낸 편지 · 아내 김해김씨의 가슴 어혈 증세를 치료할 방법을 전함 · 보리 작황과 곤궁한 살림을 걱정함

전체순 번	문서명/발급자	수급자	발급시기	주요 내용
				· 모내기 상황과 소가 일을 잘 하는지를 물음 · 藥果 등을 낭비하지 말고 네 어미의 요기 거리로 비축할 것
673	1796년 魏伯珪 서간 7	魏道立	1796. 8. 25	- 옥과현감 위백규가 맏아들 위도립에게 보낸 편지 · 內行의 절차를 편지대로 거행하는지 물음 · 雙橋를 곡성현감에게 빌리는데 簾帳은 스스로 갖추어야 함 · 移安 축문은 조카 麟健을 시켜 禮書를 고증케 할 것 · 이안 때 필요한 여러 절차와 기물 등을 상세히 말함
674	1796년 魏伯珪 서간 8	아들	1796. 11. 7	- 옥과현감 위백규가 아들에게 보낸 답장 · 還穀 문제를 자세히 언급함 · 도살 금지가 갈수록 엄해지니 절대로 범하지 말 것 · 살림살이에 대해 여러 가지 내용을 지시함

2-1. 서간의 시기별 분류

- 현전하는 서간 중에서 1750년 4월 4일에 장흥부사 李鎭儀(1703~?)가 위백규(24세)에게 보낸 답장이 가장 이른 시기의 서간이며, 1798년 2월 그믐에 魏光翼(1745~1819)과 尹孝寬(1745~1823)이 위백규(72세)에게 보낸 편지가 가장 늦은 시기의 서간임
- 위백규가 받은 서간은 크게 두 시기로 구별됨
- 1750~1780년에 받은 서간은 장흥부사로 부임한 이진의의 李普溫(1728~?)·黃鞵(1713~?)과 그의 아들 黃仁紀(1747~1831) 그리고 스승 尹鳳九, 친구 柳雲翼 등이 보낸 편지
- 1790~1798년에 받은 서간은 위백규가 옥과현감으로 있을 때 인근고을에 부임한 감사, 부사, 군수, 현령, 현감과 중앙정계에 포진한 호남출신 벼슬아치들이 보낸 것
- 전라감사 서정수, 담양부사 이현유, 순창군수 남인구, 창평현령 김상기, 동복현감 엄사면 등이며, 예조판서 홍양호, 참판 최몽암, 승지 유광천, 좌랑 윤효관 등

2-2. 서간의 인적 분류

- 師門과 관련 : 스승 尹鳳九(1681~1767)와 그의 두 아들 尹心緯와 尹心約의 서간
- 가족과 관련 : 위백규가 부친 위문덕, 아우, 두 아들 위도립·위도급에게 보낸 서간
- 친인척과 관련 : 친척 위광익과 인척 金胤行(처남), 尹孝寬, 李師稷(사돈)이 보낸 서간
- 벼슬아치와 관련 : 김상기, 김제만, 남인구, 서정수, 신사준, 양주익, 엄사면, 유광천, 이도, 이득양, 이보온, 이윤명, 이진의, 이현유, 임제원, 최몽암, 최수경, 최창국, 홍양호, 홍용건, 황간, 임장원 등이 보낸 서간
- 지인과 관련 : 고시모, 고시채, 김시모, 송필연, 송호신, 신덕빈, 이규옥, 이후규, 황인기 등이 보낸 서간
- 1750년에 위백규를 鄉薦한 장흥부사 李鎭儀의 서간 3통과 1754년에 위백규의 문장을 높이 평가한 洪良浩(1724~1802)의 서간 1통은 소장이 확인되는데, 1794년에 위백규를 등용하도록 조정에 청한

호남위유사 徐榮輔(1759~1816)의 서간은 확인되지 않음

- 서간을 통해서 볼 때, 위백규는 李珥 → 金長生 → 宋時烈 → 權尙夏 → 尹鳳九로 내려오는 기호유학의 한 맥을 이었으면서도, 당대에 명성을 떨친 유학자 김원행(1702~1772), 송명흠(1705~1768), 송환기(1728~1807) 등과 교유한 흔적이 없어 다소 의아함
- 동시대를 살아간 실학자 신경준(1712~1781), 황윤석(1729~1791), 홍대용(1731~1783) 등과도 주고 받은 서간이 없음
- 金砥行, 宋明輝, 南致熏 등 40여 명에 달하는 윤봉구 문하의 동문들과도 교유한 흔적이 없고, 그의 문하에서 공부한 金光吉, 李在根, 韓宗國 등 10여명의 제자들이 보낸 서간도 없음
- 이는 위백규의 교유가 폭이 좁았거나 매우 선택적이었다는 방증

3. 서간의 주요내용과 학술적 가치

- 개인·문중기관 등에는 行, 草書로 쓰인 많은 서간들이 활자화한 문집에 실리지 못한 채 낱장 또는 첩본 형태로 소장됨
- 문집을 편찬할 때에 이른바 ‘유교적 義理’가 담긴 장문의 서간을 원집 書卷에 편입시키는 것이 통례이기 때문에, 별집·속집·습유 등이 뒤이어 간행되지 않는 한 나머지 서간들은 고문서 형태로 잔존할 수밖에 없음
- 문집에서 배제된 이러한 서간들은 연구자들의 관심과 주목을 끌지 못하고 사장되는 것이 예사임
- 문집에서 소외된 서간이라고 하여 모두 무의미하고 무가치한 것일까? 서간내용을 어떻게 접근하고 의미 부여할 것인지에 따라 서간의 가치는 살아날 수 있으며, 설령 일상적인 안부만을 물은 서간이라 할지라도 어느 시점에 누군가와 교유한 흔적이 남아 있어 인물의 교류사를 고증하는데 도움이 됨
- ‘유교적 의리’로 충만하지 않더라도 어떤 서간에는 사상·역사·문화·생활의 측면에서 문집이 담지 못한 단편적이면서도 특별한 정보들이 숨어 있으며, 이러한 정보들은 인물의 사상과 삶을 연구하는 데 문제해결의 실마리와 풍부한 상상력을 제공하기도 함
- 존재가 주고받은 서간은 해제집에 수록되어 있고, 각각의 서간이 담고 있는 주요 내용들은 표1과 표2에 정리해둠
- 위백규가 받은 서간 중에 萬言疏 분란과 辭狀 제출을 언급한 내용이 가장 많고, 雙轎를 빌리는 내용, 稱念 내용, 褒貶題 내용, 善政을 기대하는 내용이 그 다음으로 많으며, 畫員 요청, 家禮 輯覽 구입, 거문고와 책을 빌려달라는 내용도 들어있음
- 위백규가 보낸 편지에는 과거시험, 遊街 행렬, 만언봉사 사건, 아내의 질병 등에 관한 내용이 들어 있음
- 이 서간의 주요내용들이 존재 위백규를 연구하고 『존재집』을 이해하는 데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 몇 가지 사례를 찾아보고자 함

3-1. 존재의 교유관계와 書卷 보완

- 『존재집』 제4권에 활자화한 서간이 들어 있음
- 위백규가 스승 윤봉구, 장흥부사 황간, 영변부사 서영보 등 11명에게 보낸 서간임
- 수록된 순서대로 서간을 인용하고 주요 내용을 적시함

구암 선생에게 올림[上久菴先生] … ‘인물성동이설’ 을 논하고 질정함
 장흥부사 황간에 보냄[與黃長興翰] 1 … 관아에 출입하는 의리
 장흥부사 황간에 보냄[與黃長興] 2 … 黃口에 세금 매기는 것을 면제하는 문제
 영변부사 서영보에게 보냄[與徐寧邊榮輔] … 옥과현감에 임명된 일
 지사 최몽암에게 답함[答崔知事夢岳] … 과거시험, 만인소, 옥과현감 임명 건
 참봉 유맹환에게 보낸 별지[與兪參奉孟煥別紙] 1 … 경기전령을 사직하는 문제
 참봉 유맹환에게 보냄[兪參奉] 2 … 마비증상으로 경기전령에 부임키 어려움
 이대래에게 보냄[與李大來] 1 … 경전 문구 해석
 이대래에게 보냄[與李大來] 2 … 경전 문구 해석
 이대래에게 보냄[與李大來] 3 … 덕성을 기르고 기질을 변화시키는 공부
 이대래에게 보냄[與李大來] 4 … 인간세상의 是非
 이대래에게 답함 문목[與李大來問目] 5 … 주역 문구 해석
 김섬지에게 보냄[與金燮之] 1 … 문장공부와 독서방법
 김섬지에게 보냄[與金燮之] 2 … 小學題辭 문구 해석, 문장공부
 정 사문에게 보냄[與鄭斯文] … 河圖洛書 해석
 아우 진사 백순에게 보냄[與舍弟進士伯純] … 牟還穀 독촉, 청렴한 관직생활
 둘째 아들 도급에게 보냄[與次子道及] … 질병을 다스리는 방법 제시
 직장 신사준에게 보냄[與愼直長師俊] … 신씨 집안의 글을 짓는 문제

- 참고로 유맹환(1744~?)은 1786년에 진사에 입격하고 1797년 7월에 경기전 참봉에 임명된 인물이며, 이대래는 장흥 용산에 거주한 李達運으로 본관은 인천이고 淸江 李昇의 7대손임
- 김섬지와 정 사문은 인물 정보가 묘연함
- 가족에게 보낸 서간을 제외하면, 『존재집』 書卷에는 위백규가 서간을 보낸 9명의 이름이 보이고, 해제집에는 위백규에게 서간을 보낸 약 40여명의 이름이 보임
- 이 중에서 『존재집』 과 해제집 양쪽에 모두 보이는 인물은 윤봉구, 황간, 최몽암, 신사준 정도임
- 서간은 주고받는[往復] 것이 일반적인 관례이므로, 위백규가 40여명에게 서간을 받았다면 그만큼 답장을 보냈을 것임
- 그런데 현행 『존재집』 에는 보낸 서간이 고작 9명 분량임
- 이렇게 된 까닭은 후손들이 『존재집』 을 편찬할 때에 ‘유교적 義理’ 가 담긴 장문의 서간을 주로 편입시키고, 불편한 정치 담론이나 시시콜콜한 생활 얘기는 누락시킨 때문일 것

- 물론 발급한 서간을 모두 수습하지 못했을 경우나 간행 지면을 줄이려는 교육지책일 수도 있음
- 이러한 의미에서 해제집에 수록된 서간들은 위백규의 고유관계와 문집의 書卷부분을 간접적으로 보완해줄 수 있을 뿐 아니라, 詩卷이나 기타 문장에 등장하는 어떤 특별한 상황을 이해할 때도 큰 도움을 줌
- 예컨대 『존재집』 권1의 「황지실 인기의 지체 시축에 차운하여[次黃芝室仁紀支提詩軸韻]」를 꼼꼼히 이해하려면 해제집에 수록된 黃仁紀가 1778년에 보낸 서간들을 읽어보아야 하며, 『존재집』 권21의 「대명 고헥제 어필 진묵에 공경히 쓴 후서[敬書大明高皇帝御筆眞墨後]」를 정확히 이해하려면 해제집에 수록된 宋必淵이 1796년에 보낸 서간들을 참고해야 함

3-2. 萬言封事 분란을 해소하는 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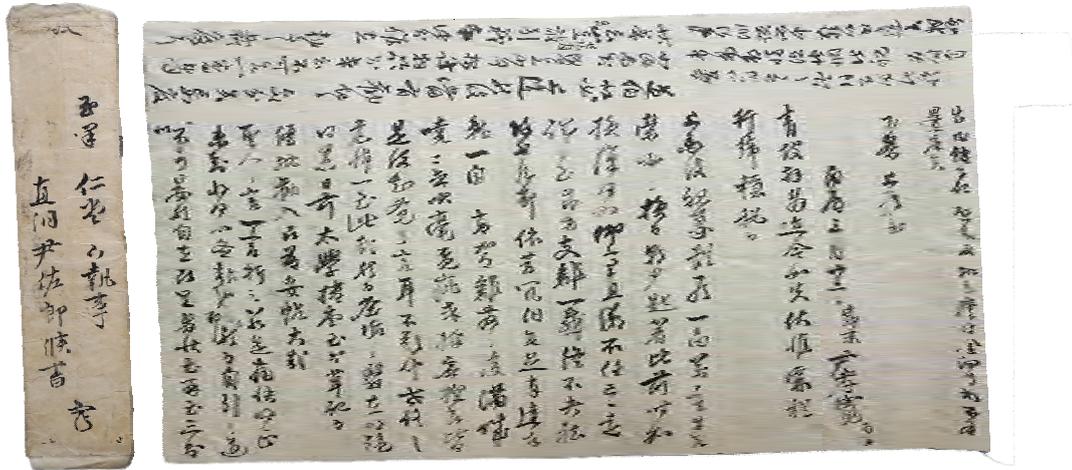
- 위백규는 1765년에 생원시에 입격했으나 대과에 급제하지 못하여 벼슬길에 나가지 못한 채 일흔을 바라보는 나이가 됨
- 1794년(68세) 8월에 태풍으로 호남 연해 여섯 고을에 재난이 발생하자 정조는 檢校直閣 徐榮輔를 호남위유사로 파견
- 서영보는 장흥 고을에 도착한 뒤 위백규의 문집을 구해 보고 곧바로 조정에 계문함
- 1795년 11월에 정조는 전라감사에게 명을 내려 위백규를 올려 보내고 『환영지』를 께짝에 담아 자물쇠를 채워 밤새워 올려 보내라는 비답을 내림
- 1796년 3월 3일에 한양에 들어가 7일에 사은숙배하고 「만언봉사」를 올려 비답을 받음
- 「만언봉사」에는 이른바 시무6조가 들어 있는데, ‘전하의 뜻을 세우고 전하의 학문을 밝히는 일’ ‘보필할 사람을 가려서 어질고 재능 있는 인물을 기용하는 일’ ‘염치를 장려하고 기강을 떨치는 일’ ‘선비들의 습속을 바로잡고 서로 앞 다투어 출세하려는 습관을 억제하는 일’ ‘뇌물을 탐하는 행위를 단속하고 사치를 금하는 일’ ‘옛 제도에 따라 잘못된 정치를 개혁하는 일’
- 그해 3월 20일에 옥과현감으로 부임함
- 그러나 4월에 「만언봉사」의 내용 때문에 太學의 유생들이 捲堂하고 四學도 通文을 돌렸는데, 임지에 도착한 위백규는 자신이 올린 「만언봉사」로 인해 태학과 사학이 분분하다는 소식을 듣고 적잖이 당황함
- 이 분란이 『존재집』에는 다음처럼 적혀 있음(『존재집』 6, 전주대학교 한국고전학연구소 번역본 참고)

“4월에 태학(太學)의 유생들이 선생이 상소문에서 자신들을 비난했다며 권당(捲堂 동맹휴업)하였다. 사학(四學)도 시험을 거부하고 통문(通文)을 돌렸으나, 상의 조율에 힘입어 중지되었다. 대개 만언소가 알려지자 조정이 놀라 떨고 이 사람 저 사람이 선생을 헐뜯고 배척했는데, 상께서 조정(調整)하였다.” - 「연보」

“비로소 비답이 내려오자 사람들이 눈을 비비며 매우 놀랐는데, 상소문 내용 가운데 벼슬아치의 행태를 질책하는 표현이 많고, 사풍(士風)이 예전 같지 않다고 언급한 것으로 인하여, 공을 시끄럽게 헐뜯고 비방하였다. 태학(太學)과 사학(四學)의 유생들이 성균관을 비우고 나가 글쓰기를 거부하는 지경이 되었으나 임금의 적절한

조율에 힘입어 그치게 되었다.” - 「행장」

- 정조의 적절한 조율에 힘입어 이 분란은 10월 하순 경에야 잠잠해지는데(1796년 10월 29일 李師稷 서간에 나옴), 6개월 여 동안 위백규는 어떤 조치를 취했을까. 그리고 태학의 유생들이 4월에 권당을 시작한 것이 사실일까.
- 尹孝寬이 1796년 3월 22일에 옥과현감 위백규에게 보낸 서간(전체순번 688)을 정서하여 살펴보자.



.....

就一自 高駕離發之後，滿城
 曉曉，或吹毫覓疵，或構虛捏無，皆
 是沒知覺之言，耳不欲聞，世路之
 危怖，一至此哉，然而塵垢之翳，在明鏡
 何累，日前 太學捲堂，至於草記，而
 優批勸入，即爲妥帖，大哉
 聖人之言，一言折之，若是痛快明正，
 未知將何以圖報也耶，然而自引之道，
 似不可晏然自在，即呈辭狀，至再至三，則
 道伯似必 上達然後，當有勸起之處分矣，妄度
 如此，未知 盛意如何，探討物論，則或云不可無一番辭
 狀，或云蔭官豈敢引義乎，此則惟在執事之裁度耳.....
 丙辰三月廿二日，戚末，尹孝寬，拜手。

“..... 한 번 현감의 행차가 떠난 뒤로 도성이 온통 시끄러워 혹자는 털을 붙여 흠집을 찾으려 하고 혹자는 허위를 날조하니, 모두 물지각한 말들이어서 듣고 싶지 않습니다. 세상의 살벌함이 이 지경에 이르렀단 말입니까. 그러나 더러운 때가 자옥이 낀들 밝은 거울에 무슨 누가 되겠습니까. 일전에 태학이 捲堂하여 草記하기에 이르렀으나 임금께서 우악한 비답으로 勸入하여 곧바로 일이 해결되었으니 위대하도다, 전하의 말씀이여! 한마디로 질충하여 이처럼 명쾌하게 바꾸시니 장차 어찌 보답해야 할지요. 그러나 自引하는 도리로 보면 편안히 있을 수는 없을 듯하니 곧장 辭狀을 두세 번 올리면 전라감사가 반드시 상당한 연후에 勸起의 처분이 있을 것입니다. 제 생각은 이러한데 현감은 어찌 여기시는지요? 세론을 들어보면 혹자는 한 번 사장을 올리지 않을 수 없다 하고 혹자는 蔭官인데 굳이 자인할 게 있겠는가 합니다. 이 문제는 현감께서 헤아려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1796년 3월 22일에 戚末 윤효관 드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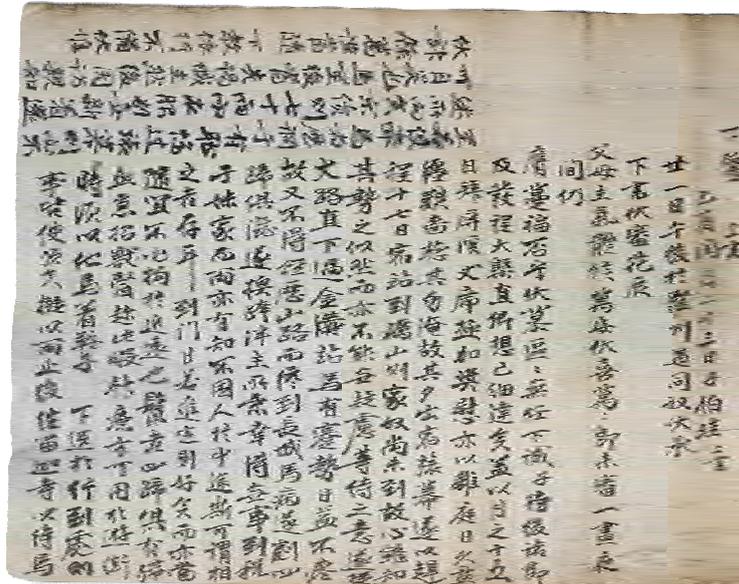
- 윤희관의 이 서간에 따르면, 태학의 捲堂은 위백규가 옥과현감으로 부임한 후 3월 하순에 바로 시작되었으며, 정조가 적절히 조율하여 처분을 내렸지만 自引하는 도리로 辭狀을 두세 차례 올리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대처방법을 제시함
- 그리고 辭狀을 올리는 게 맞다,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라는 세론을 전하기도 하였고, 태학의 草記, 啓本, 批旨를 베껴서 사천현감 김윤행(위백규의 처남)에게 보냈으니 참고하도록 권함
- 위백규의 먼 친척인 위광익도 1796년 4월 7일에 보낸 서간에서 「만언봉사」로 인한 太學, 四學, 重臣들의 물의를 잠재우려면 한두 차례 감영에 辭狀을 내는 게 좋겠다는 충고를 하였고, 유광천이도 등도 같은 의견을 제시함
- 신사준은 태학 유생들의 권당은 신경 쓸 것이 없다 하였고, 윤심약은 헌납 한홍유가 상소하여 위백규를 비판한 일은 옳지 않다고 두둔함
- 위백규는 이들의 조언과 충고를 받아들여 그해 5월에 두 차례 사직상소를 올렸고(1796년 5월 11일에 위백규가 아들 위도립에게 보낸 편지), 이 글은 『존재집』 제4권에 들어 있음
- 문집에는 드러나지 않지만, 이렇게 서간에는 외직으로 나간 위백규를 구원하기 위해 조정과 재야의 친지들이 긴박하게 움직인 방증들이 드러남

3-3. 과거시험과 遊街 얘기

- 위백규는 東堂試, 鄉試에 여러 차례 합격하고 1765년(영조41) 生員 覆試에 합격하였으나 대과에는 끝내 급제하지 못함
- 조선조에는 대과나 소과(생원, 진사)에 합격하면 遊街를 할 수 있었는데, 이는 과거에 합격한 사람이 광대를 데리고 사흘 동안 풍악을 울리면서 거리를 돌며 시험관, 선배, 친척 등을 찾아보는 일임
- 여기에서 ‘三日遊街’ 나 ‘遊街三日’ 이니 하는 말이 생겨났고, 유가 행렬을 그린 그림(遊街圖)도 남아있음
- 위백규도 유가를 행했을까, 현재 『존재집』 「연보」 1765년(39세조)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봄에 반촌에 있으면서 『소학』을 공부했고, 2월 29일에 강경하여 생원(生員) 복시(覆試)에 합격했다. 윤월(閏月 윤2월)에 병계 선생을 뵈고, 여름에 남쪽으로는 도솔암(兜率庵)까지 유람하고, 동쪽으로는 옥룡사(玉龍寺)까지 갔다가 돌아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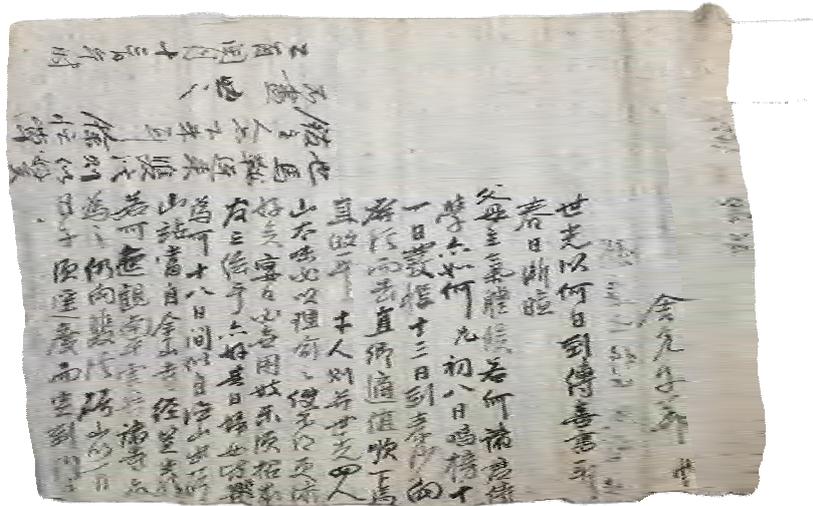
- 유가에 관한 장면은 「연보」와 기타 문장에 한 군데도 보이지 않는데 과연 그럴까. 다음의 두 통의 서간을 주목해 보라.



……

鬣者四蹄,俱有帶
 血,急招獸醫,趁此暇針療,方可用於遊街
 時,須以他馬着鞍子,下送於行到處,則
 事皆便順矣,擬以雨止後,往留迦寺,以待馬
 至,…… 馬至後,當先謁城主,然後周訪親知
 伏計,……
 乙酉閏月二十三日,子,伯珪,上書.

“…… 말의 네 발굽에 모두 피가 맺혀 있으니 급히 수의사를 불러서 이 겨를에 맞춰 침으로 치료를 해야 바야흐로 遊街 때에 쓸 수 있을 것입니다. 모름지기 다른 말에 안장을 붙여서 걸음이 이르는 곳으로 내려 보내주신다면 일이 모두 순조로울 것입니다. 비가 그친 뒤에 절로 가서 머무르며 말이 오길 기다리겠습니다. …… 말이 온 뒤에 마땅히 먼저 장흥부사를 배알하고 나서 친지들을 두루 찾아뵈 계획입니다. …… 1765년 윤2월 23일에 아들 백규가 글월 올림.”



……兄, 初八日唱榜, 十一日發程, 十三日到素沙, 向屏溪而去, 直卿適值順下馬直歸耳, 才人則并世光四人, 山太味必以理喻之, 使不得更添, 好矣, 宴日必無用妓樂, 須招本官三絃手亦好, ……
乙酉閏月十三日午時, 舍兄, 子華, 拜.

“…… 형은 8일에 唱榜하고, 11일에 길을 떠나 13일에 素沙에 도착하여 屏溪로 향하였네. 直卿은 마침 내려가는 말을 만나 곧바로 돌아갔다네. 才人은 世光이를 포함하여 4인으로 하고, 山太味는 반드시 이치로 깨우쳐서 참여하지 못하게 함이 좋겠네. 잔칫날에는 반드시 妓樂을 쓰지 말고 모름지기 장흥관아의 三絃手를 부르는 것도 좋겠네. …… 1765년 윤2월 13일 오시에 형 자화가 보냄.”

- 아버지 위문덕에게 올린 편지에서는 遊街 행차에 필요한 좋은 말을 내려 보내주길 바라고 말이 오면 遊街하면서 먼저 장흥부사에 인사한 뒤 친지들을 두루 방문하겠다고 말했음
- 아우에게 보낸 편지에서는 유가 행차 때 필요한 재인과 음악에 관해서 미리 당부해 두고 있음
- 이 역시 위백규도 유가 행차를 벌였음을 알려주는데 이는 悅親의식, 문중 선양의식의 발로로 보임

4. 맺음말

- 위에서 살폈듯이 위백규가 주고받은 서간에는 그의 문집이 담지 못한 다양한 정보들이 파편적으로 들어있음
- 이러한 다양한 정보들을 내용별, 시기별로 분류 정리하다 보면 위백규 생애의 어떤 단면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을 얻게 됨
- 또한 이러한 단편적이면서도 특별한 정보들을 연결하고 조합하다 보면 문집이 담지 못한 사실들을 입체적으로 구성하거나 논증하는 데 필요한 학술적 자료가 됨
- 이 점이 문집에 들어가지 못한 서간들을 주목하는 이유임
- 해제집에 수록된 위백규가 주고받은 87통의 서간들은 위백규 교유의 폭을 확장시켜 주는 역할을 하였고, 문집이 담지 못한 소소하면서 요긴한 정보들, 예컨대 위백규 삶에서 일종의 큰 소용돌이였던 「만언봉사」 얘기나 과거시험과 관련된 遊街 행차 얘기를 풀어가는 데 양념 역할을 하였음
- 이처럼 서간에 내재된 단편적이면서도 특별한 정보들을 어떻게 학술적으로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 깊이 고민할 필요가 있음

MEMO

2022년 국학자료 수집·보존 공동학술대회

장흥위씨 존재고택 소장 전적의 현황과 특징

1. 들어가는 말
2. 소장 전적의 현황과 주요서적
 - 1) 소장 전적의 전체 현황
 - 2) 소장 고서의 판본현황과 주요 서적
3. 소장전적의 특징
 - 1) 위백규 저작[著作]의 진상[進上]
 - 2) 고택 소장 서적의 형성
 - 3) 가문출판의 면모
4. 나오는 말

장흥위씨 존재고택 소장 전적의 현황과 특징

이상현¹⁾

목 차

1. 들어가는 말
2. 소장 전적의 현황과 주요서적
 - 1) 소장 전적의 전체 현황
 - 2) 소장 고서의 판본현황과 주요 서적
3. 소장전적의 특징
 - 1) 위백규 저작(著作)의 진상(進上)
 - 2) 고택 소장 서적의 형성
 - 3) 가문출판의 면모
4. 나오는 말

1. 들어가는 말

장흥위씨 존재고택은 존재 위백규(魏伯珪, 1727~1798)의 생가로 국가민속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다. 고택에는 위백규를 비롯하여 아버지 위문덕(魏文德, 1704~1784)과 선조들의 전적 및 문서들이 보관되어 왔다. 필자는 2016년 고택에 방문하여 종손 어른신을 뵈었다. 당시 성남에 거주하시면서 고택을 수시로 오셔서 관리하고 계셨는데, 소장하고 있는 자료들은 모두 성남 집에 옮겨 놓으셨다고 했다. 그리고 보관하고 계신 자료들은 세대를 거듭 전승해서 소장하고 있던 와중에 일부 잃어버린 것이 많았다는 이야기도 하셨다. 당시 자료는 확인하지 못하고 한국호남학진흥원에 옮겨지고 나서야 일부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6년이 지난 오늘에서야 자료집을 통해 전체를 접할 수 있었다.

당시 호남지방 가문출판을 주제로 박사학위논문을 진행 중에 있어서 자주 방촌에 방문하였지만 중간에 주제가 바뀌는 바람에 방촌유물전시관의 고전적만 목록을 정리하고 고택의 자료는 정리하지 못하였다. 이 기회를 통해 정리된 자료의 분석을 통해 존재고택 자료의 특징을 설명하고자 한다.

서지적 분석을 시도한 고서는 모두 460책이다. 한국호남학진흥원에서 2020년에 발행한 『호남한국학 기초자료해제집2-장흥 장흥위씨존재고택』에 수록되어 있는 목록집을 바탕으로 하였다. 소장하고 있는 고서는 사부분류를 통해 분류작업을 진행하고 그 안에서 중점적으로 나타나는 책의 종류는 무엇인지 살펴보고 그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고자 한다. 그리고 판본현황을 살펴보고 그 가운데 중요 서책을 설명하고자 한다. 고택에 소장된 고서의 경우 조선중기 금속활자본과 임진왜란 이전에 간행된 서적이 남아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리고 소장 전적 가운데 정조대 위백규 저술 서적을 진상하면서 나타난 일말의 과정과 진상된 서적의 종류를 살펴보고 당시 서적 진상의 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와 함께 소장 서적이 형성된 배경과 과정을 살펴보고 고택을 포함한 방촌에서 간행된 서적을 통해 장흥위씨가 장흥에서 출판인쇄에 끼친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1) 충남역사문화연구원, 선임연구원

2. 소장 전적의 전체 현황과 주요서적

1) 소장 전적의 전체 현황

장흥위씨 방촌 존재고택의 유물 전체 수량은 모두 925점이다. 이를 종류별로 살펴보면 전적이 460점, 목판 46점, 고문서류 417점, 지함 2점으로 나누어진다. 전적을 다시 책별로 나누면 231종 460책으로 구분된다.²⁾

231종을 대상으로 전통적인 사부분류법(史部分類法)에 따라 주제별로 구분해본다면 경부 54종, 사부 83종, 자부 15종, 집부 79종으로 나눌 수 있다. 그 가운데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은 사부와 집부이다.

사부의 경우 먼저 위백규(魏伯珪)의 아버지인 위문덕(魏文德)이 조상의 자료들을 정리하면서 만들어진 사마방목(司馬榜目), 가장(家狀) 등이 필사본 형태로 남아 있으며, 위백규가 저술하였거나 관여된 족보류, 행장(行狀) 그리고 옥과현감으로 있었을 때 작성된 책자 형태의 문건 등이 집중되어 있다. 그 외에도 집안의 인물에 대한 기록을 정리하여 필사본 형태의 책자로 만들어 놓았으며 동계(洞契) 등 문중과 방촌(傍村) 계모임 관련 자료와 장흥지역 유림들과 친목 도모를 위한 계모임 관련 책자들이 존재한다. 이 때문에 사부를 유문별(類門別)로 살펴보면 잡사류 30종, 전기류 22종에 집중되어 있다.

집부의 경우 위백규의 저술한 시문집이 남아 있어 각각 개별 필사본 형태로 남아 있는 것과 이를 정리하여 문집으로 간행하기 위해 만들어진 초고본 존재집이 있다. 이와 함께 위백규의 스승인 윤봉구와 관련된 서적들이 있다. 그리고 후손들이 조상의 문적을 정리하여 간행한 문집과 가문과 관련된 사람들의 문집들이 집중되어 있다. 위백규가 정리하여 필사한 것으로 추정되는 것과 위백규를 비롯하여 과거시험을 위해 공부했던 관련 서적이 많이 남아 있다. 과거시험을 위해 시문, 변려문, 과거시험 답안, 사서의, 오경의에 관한 것을 필사하여 책자로 만든 것들이다. 집부를 유문별로 살펴보면 총집류 31종, 별집류 40종으로 집중되어 있다.

경부도 사부와 집부에 미치지 못하지만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사서류가 24종으로 집중되어 있다. 다른 가문과 마찬가지로 사서류인 『논어(論語)』, 『맹자(孟子)』, 『대학(大學)』, 『중용(中庸)』이 모두 갖춰져 있으며 언해본(諺解本)도 함께 소장하고 있다. 특히 사서와 언해본은 일부를 제외하고 모두 조선 후기 유행했던 방각본(坊刻本)이며, 방각본 모두 전주 완판 방각본이다. 완판본이라고 불리는 전주 방각본은 한글소설과 사서류, 유서류, 예서, 동몽서류, 역사서류 등 여러 책을 간행하여 판매하였다. 그중 간기 부분에 '전주하경룡장판(全州河慶龍藏版)', '풍패신간(滂沛新刊)'의 기록이 있는 것들이다. 이 방각본은 호남은 물론 경상도에서도 나타날 정도로 많이 간행되어 퍼져 있는 책으로 당시에 유행한 판본이다. 이 방각본을 소장하고 있었다는 것은 당시 존재고택에서 이 방각본 책을 구입하여 소장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가장 많은 종수를 차지하는 집부의 별집류는 19세기 후반에서 20세기 중반에 간행된 것이 주를 이루고 18세기 이전의 문집은 2~3종 뿐이다. 위백규를 제외한 나머지 장흥위씨의 문집이 8종이나 되며 모두 일제강점기에 목활자나 석인본으로 간행된 것이다. 이 중 위백규와 그의 아버지 위문덕이 조상의 문집을 잘 정리해 놓은 것도 있고 후손들이 추가로 정리한 것도 있다. 이러한 문집들을 잘 보관하였다가 인쇄비용이 저렴한 일제강점기에 간행한 것이다. 다만 존재고택에서 필사본으로 소장하고 있지만 1875년(고종 12) 목활자로 간행된 위백규의 문집 『존재집(存齋集)』과 『신편십구사략속집대명기(新編十九史略續集大明記)』 그리고 1822년(순조 22)에 간행된 목판본 『신편표제찬도환영지(新編標題纂圖寰瀛誌)』를 소장하고 있지 않은 것이 확인된다.

시기별로는 17세기에 간행된 서적이 약간 있으며 대부분 18~19세기 후반 간행된 서적이 많이 남아 있다. 일제강점기와 1950~70년대에 간행된 서적도 일부 나타난다.

2) 자료집에는 성격이 다른 책이 합철된 경우에는 개별 건으로 취급하였다. 하지만 본 발표문에서는 합철된 3건의 책을 각각 하나의 책으로 보았다. 따라서 존재고택의 전체 전적은 230종 457책으로 발표문은 이를 토대로 작성하였다.

이상의 주제별 현황을 상세히 나타내면 아래의 <표 1>과 같다.

구분		종수	구분		종수
경부 54종	총경류	1	자부 15종	유가류	5
	역류	4		병가류	1
	서류	3		잡가류	2
	시류	4		천문산법류	1
	춘추류	3		술수류	1
	예류	7		유서류	5
	사서류	24			
	소학류	8			
사부 83종	편년류	2	집부 79종	총집류	31
	별사류	2		별집류	40
	잡사류	30		서간류	5
	초사류	5		사곡류	1
	전기류	22		소설류	2
	보계류	7			
	정법류	10			
	지리류	5			

[표-1] 장흥위씨 존재고택 소장 고서의 주제별 현황

2) 소장 고서의 판본 현황과 주요서적

존재고택 소장 고서의 판본은 크게 간행본과 필사본으로 나뉘지며, 간행본은 목판본, 금속활자본, 목활자본, 석인본으로 구분된다.

판본별로 보면 필사본이 122종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다음으로는 목판본 54종이며, 목활자본과 석인본은 비슷한 비율이고 금속활자본이 가장 적은 비중을 차지한다.

판종 수량	목판본	활자본		필사본	석인본
		금속활자본	목활자본		
종수	54	12	23	122	21
책수	157	16	56	174	54
총계	231종 457책(3책은 합철로 책수에서 제외)				

[표-2] 장흥위씨 존재고택 소장 고서의 판종별 현황

필사본의 비중이 가장 많은 것은 앞에서 살펴본 위백규의 문집 초고를 비롯하여, 과거시험을 준비하기 위해 시문과 변려문, 과거시험 답안 등이 필사본 형태로 많이 남아 있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위백규를 비롯한 장흥위씨의 문적과 행장 등이 필사본으로 남아 있어 많은 비율을 차지한다. 그중에서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이 과거시험과 관련된 필사본들이다. 이 필사본들은 과거시험을 대비하기 위하여 시험에 높은 빈도로 출제되는 것들만 모아 놓은 것들이다. 종류도 사서의(四書疑), 오경의(五經義), 과시(科詩), 과부(科賦), 대책문(對策文), 과표(科表) 등이다. 지난 과거시험 문제에 출제되었거나, 시험에 합격한 사람들의 글만을 뽑아 따로 필사하였다. 더불어 중국보다는 조선의 과거시험에 출제된 내용이 주를 이루는 것을 볼 수 있다. 특히 『의(義)』라는 오경의의 내용이 담긴 책의 경우 위백규가 필사했거나 공부한 것으로 여겨진다. 책의 마지막 부분에 ‘同苦’라는 제명하에 ‘魏伯珪 任萬源 任永源’ 3인이 기록되어 있다.³⁾ 모두 장흥사람으로 함께 공부하였고 1764년(영조 40) 증광시에 함께 참여하였다. 이때 당시 위백규가 아버지인 위문덕에게 보낸 서간에 자신은 임우(任友)와 남한(南漢)에 가서 회시공부를 하기로 했다고 하였다.⁴⁾ 그리고 특히나 위백규는 이때 시험과목이 오경의에서 나와 회시에 합격하여 생원되었다. 때문에 『의』 필사본은 위백규가 과거시험을 공부했던 책이자 그를 생원에 합격할 수 있게 해준 책이라고 할 수 있다.

목판본의 경우는 경부 사서류의 방각본이 모두 목판으로 인쇄한 책들이 많이 나타나며, 일부 문집과 역사서가 목판으로 간행된 것이다. 특히 『북도능전지(北道陵殿誌)』의 경우 같은 장흥위씨와 교류를 통해 소장한 것으로 확인된다. 이 책은 위창조(魏昌祖) 편찬한 것으로 1747년 위창조가 처음 편집하여 만들어진 『북로능전지(北路陵殿誌)』를 영조가 열람하고 홍문관 윤동도(尹東度)와 이이장(李彝章)을 불러 교정하게 하였다. 1757년 약방제조 김한철(金漢喆)에게 속록(續錄)을 8권으로 나눠 총 3책으로 간행하여 올릴 것을 명하였다. 1757년과 1758년 영조는 위창조에게 속록을 첨삭하여 바로잡고 어제 서문과 추기 등을 편집하도록 하였다. 영조는 이를 열람하고 함경도 감영에서 간행할 때 관련된 내력을 적게 하였다. 이 내용은 범례에서 확인된다.⁵⁾

『북도능전지』가 간행된 약 40년 뒤 다시 속편을 함흥에 사는 위광익이 만들고 있었으며 이를 1796년 위백규에게 보낸 편지에서 밝히고 있다. 또한, 그는 만언봉사와 관련하여 상소문과 비답(批答)을 베껴서 보내준다고 언급하였다.⁶⁾ 이를 통해 위백규는 함흥지역에 장흥위씨들이 세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그들과 지속적으로 교류를 하고 있었다.

『북도능전지』는 영조의 어명으로 함경감영에서 간행하여 5대사고와 승정원, 홍문관, 예문관, 시강원, 교서관에 보내 보관하도록 한 책이다. 이러한 책을 존재고택에서 소장하기에는 간행장소에서 멀고 책의 내용과는 연관성도 떨어진다. 하지만 위광익과 편지를 통해 『북도능전지』의 소장 경위가 추정된다. 위창조는 함경도 출신으로 위광익의 아버지 위영조(魏榮祖)와는 형제관계가 확인된다.⁷⁾ 위창조는 『북도능전지』의 간행에 참여하면서 받은 간행본을 형인 위영조에게 전해주었을 것이며 다시 위광익을 통해 위백규에게로 전달된 것이다. 이는 먼 친족간에 교류를 보여주는 동시에 교류를 통해 함흥에서 장흥으로 책이 옮겨졌음을 보여준다.

소장하고 있는 활자본은 금속활자본과 목활자 본으로 나눌 수 있다. 금속활자본은 갑진자본 4종, 임진자본 1종, 신연활자본 7종이므로 구분할 수 있다. 이 중 갑진자본은 조선전기 금속활자본으로 『동래선생남사상절(東萊先生南史詳節)』, 『동래선생오대사상절(東萊先生五代史詳節)』, 『동래선생수서상절(東萊先生隋書詳節)』, 『동래선생진서상절(東萊先生晉書詳節)』 4종이다. 이 책들은 중국 남송 학자 여조겸이 중국 역사서를 알기 쉽게 풀이한 것으로 각각 시대별로 나누어져 있다.

갑진자는 성종대에 만들어진 금속활자로 1484년(성종 15)에 을유자를 녹여 만든 금속활자이다. 당시

3) 『선사을유시사마방목(宣賜乙酉式司馬榜目)』의 앞표지 이면에 을유년 즉 1765년(영조 41) 정월에 임영원과 소학을 외우고 2월에는 조흥강에 들어갔으며 29일에 회시를 보았다는 내용에서 함께 과거시험을 준비한 동시에 시험도 함께 치른 것을 알 수 있다.(권수용, 『장흥 장흥위씨 존재고택-호남한국학 기초자료해제집2-』, 한국학호남진흥원, 2020, 35쪽.)

4) 권수용, 위의 책, 2020, 147쪽.(1764년 위백규 서간)

5) 정은주, 「『北道陵殿誌』와 『北道(各)陵殿圖形』 연구」, 『한국문화』 67, 규장각한국학연구원, 2014, 262쪽.

6) 권수용, 위의 책, 2020, 224쪽.(1796년 위광익 서간)

7) 『국조문과방목』 권15(규장각한국학연구원 [奎106])

갑인자와 을해자가 오래 사용되어 깨끗하게 인쇄되지 않았고 글자 크기가 커서 종이가 많이 들고 책이 무거워 불편하였다. 이에 새로운 금속활자를 만들고자 글자가 균일하지 못해 사용을 꺼려했던 을유자를 녹여 만들었다. 이로 인해 종래의 활자 크기보다 작고 모양이 해정하다. 이 활자는 갑인자, 을해자 다음으로 오래 사용되었으며, 임진왜란 이전까지 인본이 비교적 많이 남아 있다.⁸⁾

하지만 존재고택에서 소장하고 있는 갑진자본 4종의 경우 남아 있는 인본이 거의 없어 동일본을 찾기 어려우며 책의 규모를 알 수가 없다. 그 중 『동래선생오대사상절』, 『동래선생수서상절』의 경우 똑같이 1책에 권1~권5까지 구성되어 있고 책의 첫머리에는 전체목록이 기재 되어 있어 그 규모를 알 수가 있다. 『동래선생오대사상절』은 전체 10권으로 구성되어 있고 『동래선생수서상절』은 20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두 책 모두 역사서이므로 내용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도 살펴볼 수 있다.

갑진자본으로 간행된 책 이전에 『동래선생교정북사상절(東萊先生校正北史詳節)』⁹⁾ 이란 책이 1403년(태종 3)에 금속활자인 계미자로 간행되었는데 소장본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책은 권4~5, 권6만 남아 있어서 전체적인 구성을 확인할 수 없다. 그 때문에 계미자로 간행된 책이 갑진자본의 저본(底本)이 되는 지는 좀 더 확인이 필요하다. 다만 조선시대 역사서 간행에 있어서 그 경향을 살펴는 데 중요한 단서가 되며, 조선전기에 간행되어 임히다가 조선후기에는 간행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존재고택의 소장본과 동일한 판본은 고려대학교 도서관에 『동래선생당서상절(東萊先生唐書詳節)』 1책이 소장되어 있으며, 일본 궁내청 서릉부에 보관되어 있는 『동래선생십칠사기상절(東萊先生十七史記詳節)』 273권 110책이 있다. 2005년 경주 옥산서원에서 발견된 갑진자본 『동래선생상절』은 9종 60책으로 완본으로 본 소장본과 연관성이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공개가 되어 있지 않아 확인하기 어렵다.

목활자본은 23종이 확인되며 그 가운데 존재고택에서 간행한 책들이 확인된다. 특히 1842년 장천재(長川齋)에서 간행된 『장흥위씨족보(長興魏氏族譜)』와 1941년 위계신이 간행한 『장흥위씨가첩(長興魏氏家牒)』은 간행주체가 명확히 나타나 있고 간기가 있거나 책 마지막 부분에 간행참여자 목록을 기록하고 있다. 두 책 모두 간행에 참여한 참여자가 기록되어 있으며, 모두 장흥위씨로 구성되어 있다. 이외에도 간기는 없지만 서문과 발문을 통해 『위씨세고(魏氏世稿)』를 비롯한 『계서유고(溪西遺稿)』 등 선조의 문집들도 목활자로 간행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대체로 족보의 경우는 글자가 얇은 인서체 형태의 활자를 사용하였으며 문집의 경우는 글자가 크고 비교적 두꺼운 필서체 형태의 활자를 사용하였다. 족보는 문집에 비해 많은 양의 정보와 내용을 담아야 하기에 작은 글자를 포함하여 활자를 만들기에 좀 더 용이한 인서체 활자가 많이 사용되는 경향을 보인다.

족보와 문집은 19세기 말부터 인쇄기술이 보편화 되어 증가하는 추세에 따라 목활자본이 많이 간행되었다. 또, 목판보다는 목활자가 인쇄비용에 있어서 적게 들기도 하였다. 문집과 족보 등이 활발하게 간행되는 배경에는 함부로 인행되어 배포하기 어려웠던 사회적 제약¹⁰⁾을 벗어났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경제적 여유가 있고 자신의 선조와 가문의 선양을 위한 의지가 있다면 문집간행에 있어서 특별한 어려움은 없었다. 이러한 사회적 흐름에 따라 존재고택과 방촌의 장흥위씨들도 족보와 문집을 간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석인본의 경우 목활자와 비슷한 경향으로 족보와 문집간행에 사용된 인쇄방식이다. 석인본은 석회석을 이용하여 수용성 부분을 생기게 하고 그 부분에 유성 잉크를 칠하여 종이에 인쇄할 수 있는 원리를 응용한 것이다. 조선에는 1899년에 도입되어 많이 이용되지 못하다가 1920년대 책자 간행이 활기를 띠던 동시에 지방으로 석인 인쇄가 보급되면서 활발하게 인쇄되었다. 이 석인본은 이전의 인쇄술과 대치되어

8) 천해봉, 『한국서지학』, 민음사, 2010, 351쪽.

9) 권4,5는 국보 제149-1호로 지정되어 있고, 권6은 국보 제149-2호로 지정되어 있다.

10) '문집간행이 자가선양(自家宣揚)의 증표라 점이 향촌 사회에서 제약을 받아 경제적 여건이 마련되었더라도 향촌 사회에 인정을 받지 못하면 인행될 수 없었다.'(옥영정, 「지방목활자(地方木活字)에 의한 문집(文集)의 인출(印出)에 관한 일고(一考) - 호남지방(湖南地方)을 중심으로 -」 『서지학보』 26, 한국서지학회 2002, 87쪽 재인용)

좀 더 개량된 방법으로 책을 염가에 대량 발간할 수 있었기 때문에 경제적 여유가 없어 간행하지 못했던 문집이나 족보들도 이때 당시에 많이 간행될 수 있었다.

3. 소장 전적의 특징

1) 위백규 저작(著作)의 진상(進上)

고택에는 존재집연보(存齋集年譜)가 2책 존재한다. 모두 연보와 행장을 수록한 책으로 하나는 존재집을 간행하기 전에 원고본으로 인찰공책지(印札空冊紙)에 연보와 행장의 내용을 기재한 다음 수정할 부분에 붉은색을 이용하여 수정사항을 표기하였다. 다른 하나는 동일한 인찰공책지이지만 붉은색을 사용하여 광곽과 계선을 그려 넣어 표기한 것으로 권말 부분에 존재집목록(存齋集目錄)과 위도한(魏道儻)이 1801년에 쓴 지(誌)가 기록되어 있다. 존재집목록에는 위백규가 저술한 책의 목록과 정조가 그의 저술을 올려보내라고 했을 때 내각(內閣) 즉 규장각으로 들여보내진 책들이 함께 표기되어 있다. 그리고 위도한이 쓴 글에는 위백규의 저술된 책에 대한 것과 정조에게 책을 진상하고 그 뒷이야기들이 담겨 있다.

위의 내용은 계부 계항공(위백규) 문집목록이다. 평소에 저술한 것이 많이 있었는데 다 기록하지 못하였고 여기에 실은 것이 불과 십 분지 일이다. 그중 24권은 병진년(정조 20, 1796)에 임금의 부름을 받을 때 저작들을 궤적에 넣고 열쇠로 잠가 임금께 바쳤다. 임금께서 미처 다 보지 못하시고 갑자기 여러 군신에게 주시고 돌려주라는 하교가 없어서 계항공의 저작 중 집에 없는 것이 많았다. 그러나 궁궐의 준엄함에 능히 임금께 요청할 수 없는 것 또한 하늘의 뜻일 것이니 어찌 깊은 한이 아니겠는가. 나머지 약간의 권들을 수록하여 당세에 입언이 있어 군자의 교정이 있기를 기다릴 뿐이다.

1801년(순조 1) 동지 종자 도한이 삼가 쓰다.¹¹⁾

위도한이 쓴 글에는 본래 저술한 것이 많았으나 다 기록하지 못해 목록에 실은 것이 10분의 1밖에 되지 못하고 그중 24권은 정조의 명에 의해 서울로 올려보냈다고 언급하고 있다. 정조가 죽고 되돌려 받을 방법이 없었고 임금에게 올려보낸 것 이외에 복본이 없어 집안에 남아 있는 것 중에는 빠져 있는 것이 많았다. 그럼에도 나머지 저작된 책을 수습하고 정리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존재집목록에는 ‘시(詩), 부(賦), 서(序)를 비롯하여 사서차의(四書筭義), 환영지(寰瀛誌), 학규(學規), 경서조대(經書條對)’ 등 31종 45권이 표기되어 있으며 그 아래에는 내각으로 보내진 책에 대해서는 ‘內閣入’이라고 표기하였다. ‘內閣入’이라고 표기된 책은 시·서·설 등 14종 24권에 해당된다. 위백규의 저술된 책의 규모에 대해 존재집 부록 행장에는 송치규가 위백규가 저술한 책을 합하면 모두 90권이 된다고 하였다. 그 가운데 24권은 정조가 위백규를 대내에 불러들일 때 규장각에 봉입(封入) 하였다고 밝히고 있다.¹²⁾

11) ‘右伯父桂巷公文集目錄也 平日所著多不能盡錄 所載不過十之一 而其中二十四卷 丙辰承召時 入盛櫃子 具鎖鑰封上 睿覽未訖 上遽棄群臣 未有還賜之教 本藁不在家者多 而九重嚴邃 未能上請 是亦天也 何必深恨也 其餘若干卷 謹爲收錄 以俟當世立言 君子之校讐云爾 歲崇禎三辛酉日南至從子道儻謹誌’(『존재집연보』 「존재집목록」)

12) “嘗抄經傳中格言 至論 名曰 古琴 每酒醺意到 輒諷誦之 如學規 禮說 經書條對 讀史筭錄 詩 疏 傳記 序說合雜著 九十餘卷 而其中二十四卷 赴召時封入於內閣”(魏伯珪 箸, 『存齋集』 卷二十四, 「附錄(行狀)」)

서명	詩	賦	序	跋	記	書	說	狀	誌
권차	二卷	一卷	二卷	一卷	一卷	一卷	二卷	二卷	二卷
비고	內閣入		內閣入				內閣入		
서명	傳	銘	文	疏	辭	解	辨	墓表	四書筭義
권차	一卷	一卷	二卷	二卷	一卷	一卷	一卷	二卷	五卷
비고	內閣入				內閣入				內閣入
서명	然語	禮說隨錄	寰瀛誌	政絃新譜	陶蘇眞影	屏溪先生經禮問答	明史評	鄉約節目	分賑節目
권차	一卷	一卷	二卷	二卷	一卷	一卷	一卷	一卷	一卷
비고	內閣入	內閣入	內閣入	內閣入	內閣入				內閣入
서명	學規	海道誌	原類	經書條對					
권차	一卷	一卷	二卷	一卷					
비고	內閣入		內閣入						

[표-3] 연보에 기재된 존재집목록

그리고 다암(茶岳) 위영복(魏榮馥)은 『존재집』을 간행하면서 문집간행 과정과 위백규가 저술한 책들의 행방에 대해 「존재집간행시말(存齋集刊行始末)」을 작성하여 자신의 문집인 『다암유고(茶岳遺稿)』에 실어 놓았다. 「존재집간행시말」에는 위백규의 문고(文稿)가 거의 100권에 가까웠지만, 당시 편성된 원고를 거두어 모은 것이 겨우 50여 권이었다고 한다. 그리고 그중 24권은 대내에 진상되어 정조가 열람한 뒤 규장각에 소장되었고 나머지 30여 권은 사가에 있다고 하였다.¹³⁾ 이를 통해 정조에게 진상된 위백규의 저술은 24권임을 알 수 있으며 『존재집연보』에 기록되어 있는 ‘존재집목록’의 수량과도 똑같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위백규의 저술이 정조의 귀에 들어간 것은 1794년(정조 18) 어사 서영보가 서계(書啓)를 올리면서이다. 서영보는 위백규에 대해 경전에 널리 통하고 문중 사람들을 잘 돌보아 사람들을 흠탄케 한다고 하였으며 익산의 이득일과 함께 등용하는 것을 추천하였다.¹⁴⁾ 이후 1795년(정조 19) 정조는 연설(筵說)에서 승지 임제원(林濟遠)과 남공철(南公轍)에게 호남에서 제일 뛰어난 인물을 물었고 이들은 위백규가 가장 뛰어나다고 언급하였다. 이어 정조가 위백규의 문집에 관해서 묻자 남공철이 그의 집에서 볼만한 글이 백여 권 있다고 언급하였다. 정조는 그의 글을 볼 수 있는지 물었고 도신(道臣)들에게 명하여 올려보내도록 하였다.¹⁵⁾ 이에 위백규를 선공감 부봉사(繕工監副奉事)에 제수하고 한성으로 올라오도록 하였으며, 그가 편찬한 『환영지』 등 100여 권이 있으니 내각에서 도신에게 분부하여 올려보내도록 하였다.¹⁶⁾

위백규는 『환영지』를 먼저 올려보내고 문집 등 저술한 책들을 등사하여 올리고자 하였다. 문집을 올릴

13) “선생께서 저술한 문고(文稿)는 거의 백 권에 가까웠으나 당시에 편성된 원고를 거두어 모은 것은 겨우 오십여 권 이었는데 모두가 풍속의 교화를 돕고 세도(世道)를 지키는 글이었다. 그 가운데에서 24권은 정조 때 임금이 열람한 뒤 규장각에 소장되었고 그 나머지 30여 권은 지금도 선생의 사가(私家)에 먼지 덮인 상자 속에 금이나 옥처럼 간직되어 감춰져 있다. 세상 사람들은 다만 선생의 이름만 알고 선생의 실질은 잘 모른다. 만일 또 이대로 몇 대가 지나 버리면 그 누가 능히 궤 안에 감추어진 보물을 알겠는가?”(오항령 등 역저, 『국역 존재집』 1, 흐름출판사, 2013, 해제)

14) 『일성록』, 정조 18년(1794) 12월 25일 자 기사.

15) 魏伯珪 著, 『存齋集』 卷二十四, 「附錄(京奇)」

16) 『일성록』, 정조 19년(1795) 11월 27일 자 기사.

당시 한성으로 올라올 것을 재촉하는 관문(關文)과 저술한 책을 올려보내는 일에 대해 진행 상황을 장계로 아뢰도록 7번이나 재촉하였다. 매우 급박한 상황 속에서 문집 가운데 미처 등사하지 못하고 집에 보관되어 있던 원고를 그대로 올려보내는 일이 발생하게 되었다. 초고조차 고택에 남아 있지 않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것이다. 위백규의 저작들을 올려보낼 때 귀작에 넣고 열쇠로 잠겨 임금에게 올려 보내졌다. 정조가 승하하고 난 뒤 진상된 서적을 돌려받지 못하고 내각에 보관된 위백규의 저작 24권은 전존여부가 불투명하게 되었다.

이후 저작 졸한지 4년만인 1801년 아들 위도립(魏道立)과 조카인 위도한이 가장(家藏)되어 있던 유고(遺稿)를 수습 정리하고 존재집목록을 작성하였다. 초기에 100여 권이라는 분량에 비하면 상당히 줄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지방의 사족이 임금의 명에 의해 저작물을 올릴 때 초고본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임금이 볼 수 있도록 등사하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등사에 필요한 물품들은 관에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고택에서 마련하여 제작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위백규의 저작물을 빨리 올려보내라고 재촉했을 때 전라도관찰사와 장흥도호부사는 함께 재촉만 했을 뿐 저작물의 등사에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위백규는 옥과현감이라는 관직을 받았지만 사라진 저작물들은 되찾지 못하고 영원히 유실되어 버렸다. 조선시대에는 민간에서 왕에게 서적을 진상하는 경우가 더러 있었으며, 민간에 소장하고 있는 서적을 올려 보내어 소장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다. 고택에 남아 있는 '존재집목록'과 관련된 내용을 통해 인쇄본이 아닌 저작물인 경우 어떠한 과정을 거쳐 진상되었는지 엿볼 수 있었다.

2) 고택 소장 서적의 형성

고택에 소장된 서적을 보면 일부 서적을 제외하고는 특정 인물과 특정 시기에 서적이 집중적으로 형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고택의 서적 가운데 가장 많은 수량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필사본이다. 이 필사본들을 살펴보면 두 인물에 집중되어 형성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첫 번째로 위백규의 아버지인 위문덕이다. 그는 조선 중기 유학자로 자는 의여(懿汝), 호는 춘곡(春谷) 혹은 영이재(詠而齋)이다. 1740년(영조 16) 사마시에 합격하여 성균진사가 되었으나 벼슬에 대한 뜻을 접고 낙향하였다. 고향에서 후학을 양성하는 데 힘을 썼으며, 성리학에도 힘을 쏟아 깊이 있는 문장을 많이 남긴 인물이다. 그와 관련된 필사본 서적은 11종이 있으며 목판본은 1종이 있다. 목판본의 경우 『송정재경신증광사마방목(崇禎在庚申增廣司馬榜目)』으로 그가 사마시에 합격한 후 30여 년이 지나 영남관찰영에서 간행된 것이다. 그의 필사본을 살펴보면 저술 및 편술한 책과 소장한 책으로 나누어진다. 저술 및 편술한 서적을 살펴보면 사마방목과 조상에 관한 기록을 정리한 것이다.

편술한 서적은 자신의 사마방목과 5대조 위곤의 사마방목을 작성한 것이다. 먼저 그가 사마시에 합격하고 사마방목을 간행해야 하는데 생원에서 장원한 최홍간이 상중에 시험을 본 것으로 관유(館儒)들이 배척하여 알성과 참방회에 참여할 수 없었고, 진사 장원한 민백창은 갑자기 죽어 진행되지 못했다. 이에 1760년(영조 36) 위문덕은 자신이 직접 사마방목을 완성하였다. 그가 사마방목을 작성한 지 8년 뒤에 합격자 중 관직에 있는 사람들이 힘을 모아 1768년 영영(嶺營)에서 간행하였고 위문덕에게 보내졌다. 위문덕은 자신의 사마방목 말고도 자신의 5대조인 위곤(魏鯤)의 사마방목을 완성하였다. 이 사마방목은 1549년(명종 4)에 실시된 생원·진사시로 합격자를 기록한 것으로 이때 위곤은 진사시 3등 60인으로 합격하였다. 사마방목이 완성된 시기를 보면 1760년으로 위문덕이 자신의 사마방목을 만들면서 함께 자료를 모아 할아버지의 사마방목을 완성한 것이다.¹⁷⁾ 그리고 그는 조상과 관련된 내용을 모아 필사해 놓았으며, 자신의 저술들을 필사하여 남겨 놓았다.

그가 소장한 책에는 '春谷'이라는 장서인을 사용하여 책의 권수제면 하단부분에 찍어 놓았다. 3종의 책

17) 기유식 사마방목의 경우 필사본이 여럿 존재하는데 미국 하버드대학 소장 필사본과 계명대학교 동산도서관 소장 필사본이 대표적이다. 미국 하버드대학교 소장본은 존재고택 소장본과 내용과 형식이 약간 다른 것이 확인된다.

이 찍혀 있는데 2종은 논어와 맹자 장구 필사본이고 나머지 1종은 변려문만 모아 필사한 과거시험을 대비한 서적이다. 그 외에도 장서인을 찍지 않은 책도 있을 가능성은 있지만 명확하게 나타난 것은 이것뿐이다.

여기서 주목되는 점은 아들 위백규와 위문덕이 선조의 문적들을 정리하고 책으로 엮어 놓는 작업을 함께 진행하였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한 필사본이 다수 나타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춘곡가장(春谷家狀)』은 위문덕과 위백규의 합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책은 위문덕이 선조의 행적들을 정리하여 초고를 완성하였다. 그가 『가장』을 정리하게 된 배경에는 안항공(顔巷公) 위덕후(魏德厚)가 써놓은 가언(嘉言)과 선행(善行) 그리고 유계(遺誡) 등이 경술년 즉 1670년(현종 11)에 고택이 화재로 인해 일부분이 화를 입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로 인해 훼손되거나 흩어져버린 선조의 문적과 행적을 정리하여 『가장』을 만들었다. 그리고는 아들 위백규에게 초고를 다시 정사하도록 시켰다. 이러한 내용은 위백규가 1772년 쓴 총서(總舒)에 기록해 놓았다.¹⁸⁾

다음으로는 존재 위백규가 저술한 서적과 과거시험을 공부했던 자료들로 총 81종이나 된다. 먼저 그가 저술한 시, 부, 등 문집을 비롯한 지리, 예법 등의 서적들이 있고, 아버지 위문덕의 영향으로 선조들의 행적을 정리하여 지은 행장이 있다. 그리고 옥과현감으로 재직했을 때의 자료와 스승 윤봉구와 관련된 자료들이 있다. 그중에서도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는 것은 과거시험을 대비하기 위한 서적과 위백규가 직접 저술한 서적이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과거시험을 대비하기 위해 구입했거나 필사한 서적들은 대부분 아버지 위문덕과 위백규에 의해 형성되었다.

위문덕은 1740년 진사시에 합격하고 한양으로 올라가 성균관에 유학까지 하고 왔기 때문에 과거시험에 필요한 책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고 일부는 구비하고 있었다. 위백규의 경우 25세에 한양의 윤봉구에게서 수학하면서 필요한 책을 선생에게서 얻거나 필사했으며 과거시험을 준비하였다.¹⁹⁾ 이후 진사시에 입격하였고 지속해서 과거시험을 치르고 준비를 했다. 특히 위문덕은 자신이 이루지 못한 과거급제를 아들 위백규가 이뤄주길 바랐으며, 실제로 위백규가 증광시(增廣試)를 보러 갈 때 여비 때문에 곤란하지 않도록 배려하면서 집안 사정을 걱정하지 않도록 하였다.²⁰⁾ 더불어 별시(別試)가 생기면 시험에 응시할 것을 권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과거급제를 위해 여러 가지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따라서 관련 서적을 구하는데 있어서도 부족함이 없었을 것이다.²¹⁾ 과거시험을 위한 교재를 구비하는 과정에서 위백규의 친척 어른인 위세옥의 도움을 받았다. 위세옥은 한양에서 살면서 화전(花田) 이재(李緯), 섬촌(蟾村) 민우수(閔遇洙), 직암(直菴) 신경(申暲), 병계(屏溪) 윤봉구(尹鳳九) 등 경화사족과 접했을 때부터 좋은 관계를 유지하였으며, 특히 윤봉구와는 같은 동네에 살면서 가장 잘 아는 사이였다.²²⁾ 위세옥은 한양의 친구들에게 과거시험 관련 서적은 물론 증광별시 소식을 받아 볼 수 있었으며, 이러한 정보는 위문덕과 위백규에게도 전해졌다. 위백규가 스승 윤봉구와 인연을 맺게 된 것도 위세옥의 도움이 컸었다.

앞서 언급했던 책들 이외에 위세옥이 소장했던 서적을 그대로 물려받았을 것으로 생각되는 보이는 책들이 보인다. 그 서적들을 보면 다음과 같다.

18) ‘춘곡가장 1권은 아버지께서 문헌이 오래되면 없어질까 두려워서 만든 것으로 백규에게 명하여 초고를 정사하게 했다’라고 기록해 놓았다. (권수용, 위의 책, 2020, 135쪽)

19) 병계선생 윤봉구는 제자인 위백규가 오래 머물며 강습할 수 없는 것을 안타까워했으며, 『주자대전(朱子大全)』이 없는 것을 알고 맏아들 윤심위(尹心緯)에게 완영(完營)에 협의 하여 한 질을 구해달라고 하였다.(위백규, 『存齋集』 卷二十四, 「附錄(年譜)」)

20) 이종범, 「存齋 魏伯珪의 學問과 政論의 연원과 형성: 傍村 魏氏家の 傳乘과 轉換을 중심으로」 『역사문화연구』19, 한국외국어대학교 역사문화연구소, 2003, 18쪽.

21) 위문덕은 독자로 부친의 재산을 그대로 물려받았으며, 숙부 위세린이 가업을 도우면서 자신이 상속받은 옥답(沃畝) 8두락까지 위문덕에게 귀속시켰다. 이로 인해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었고, 과거시험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충분한 여력이 있었다.

22) 위백규, 『存齋集』 卷二十三, 「行狀(良庵處士魏公行狀)」

번호	서명	편저자	판종	권책수	발행년	비고
1	東萊先生南史詳節	呂組謙 撰	金屬活字本(甲辰字)	3권 1책(零)	중종대	
2	東萊先生五代史詳節	呂組謙 撰	金屬活字本(甲辰字)	5권 1책(零)	중종대	
3	東萊先生隋書詳節	呂組謙 撰	金屬活字本(甲辰字)	5권 1책(零)	중종대	
4	東萊先生晉書詳節	呂組謙 撰	金屬活字本(甲辰字)	4권 1책(零)	중종대	
5	重刻校正增補皇明資治通紀	陳建 編	木版本	5권 5책	미상	중국본
6	朱文公校昌黎先生集	韓愈(唐) 著	木版本(覆刻)	1권 1책(零)	임진왜란 이전	갑인자 복각본
7	尤菴先生言行錄	宋近洙(朝鮮) 編輯	木活字本	1책	미상	

[표-4] 위세옥의 소장 서적(추정)

위 6종의 책 중 4종은 책이 간행된 지 오래된 고본(古本)이고 다른 하나는 간행 당시 구하지 않으면 얻기 힘든 책이며, 마지막으로 중국본은 지방에서 구하기 더더욱 힘든 책들이다. 이 책들은 당시 지인을 통해 구하거나 책패를 통해 구입해야 되는 책들로 당시 한양의 경화사족들과 관계가 있는 위세옥이 구입해 소장했던 것으로 짐작된다.

위세옥은 한양에 있으면서 넉넉한 외가 덕분에 부족함 없이 생활하였다. 그리고 장흥으로 내려와 살면서 궁핍하였지만, 책상 양옆에 책을 항상 쌓아두고 읽었다. 또, 현재 다산재 위치에 서재를 짓고 책을 모아두고 독서를 했으며, 아이들을 가르치기도 하였다. 노년에는 천관산 인근 야산을 개간하여 약초를 재배하여 생계를 유지하였지만, 죽도 먹지 못하는 날이 많았다. 그러면서도 방안 가득 많은 책을 사들였다. 그는 문학에 뛰어나 각 문체에 두루 능했고 기억력이 뛰어나 고금의 진귀한 서적과 국조사실(國朝事實)에 해박하지 않은 것이 없었다. 또 어려운 생활 속에서도 조금도 개의치 않고 경서와 역사서를 두루 읽으며 손에서 책을 놓지 않았던 인물이다.²³⁾ 따라서 위의 서적들은 거의 역사서가 대부분이고 귀중본이기 때문에 위세옥이 한양에 있을 때 가지고 있다가 장흥으로 이사 오면서 가지고 내려온 책들 중 하나가 아닐까 생각된다.

이 중에는 위백규가 『신편십구사략속집대명통기』를 저술하면서 참고했을 『황명자치통기』 중국본이 있다. 이 책의 경우 위세옥을 통해 구입하기 보다 자신이 서울을 왕래하면서 구했을 가능성도 있다. 이처럼 존재 고택에 소장된 전적들은 위문덕과 위백규 대에 구입하거나 저술 및 필사되어 갖추어졌고 일부는 위세옥이 소장하던 서적이 유입된 것으로 생각된다.

3) 가문출판의 면모

고택에 소장되어 있는 전적을 살펴보면 앞서 확인한 것처럼 위백규를 중심으로 저술된 문집과 선조의 기록을 정리한 서적, 과거시험 관련 서적 등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이외에도 주목되는 것은 위백규와 방촌의 장흥위씨가 서적을 다수 간행한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위백규는 옥과현감 시절에 왕이 내려보낸 윤음을 다시 목할자로 『어제윤음』으로 간행한 적이 있으나 고향에 돌아와서는 서적 간행에는 관여하지 않았다. 그대신 그의 문집과 저술들이 후손들에 의해 간행되었다. 서적을 주로 간행했던 장소는 방촌에 있는

23) 위백규, 『存齋集』 卷二十三, 「行狀(良庵處士魏公行狀)」; 이종범, 앞의 논문, 2003, 13·17쪽

장천재와 다산재(茶山齋)이다.

이 장천재는 존재고택이 있는 방촌에서 멀지 않은 곳으로 장흥군 관산읍 옥당리에 소재하고 있다. 이 재 각은 조선 중종(1450년경)대 강릉 참봉(康陵參奉) 진현(晉賢)이 자신의 어머니이며, 장흥 위씨 관산파조 유형(由亨)의 부인인 의인(宜人) 평산신씨(平山申氏)의 묘소를 정하여 장천동에 만든 묘각이다. 이를 다시 1659년(효종10)에 암자를 철거하고 재실을 건립하여 현재의 모습을 하고 있다. 이 장천재는 방촌에 거주하는 장흥위씨의 주요 재실 중 하나이며, 아동들을 가르치기 위한 장소로 활용되었다. 위백규를 비롯한 방촌의 장흥위씨들은 이 장천재에서 글을 배우고 또,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장소로서 문중에서 운영되는 일종의 서당과 같은 역할도 겸하였다. 장천재에는 ‘俯溪堂’, ‘則休樓’, ‘說樂憲’, ‘長川齋’, ‘追遠樓’의 편액이 걸려 있어 장천재라는 명칭 이외에 다른 이름으로 사용되기도 하였다.

다산재는 위백규에게 학문과 스승의 연을 맺도록 도움을 준 위세보의 서재이자 독서의 공간이었다. 위세보 사후 위문덕과 위백규는 이곳에서 후학을 가르치며 향음주례(鄉飲酒禮)를 시행하고 사강(社講)모임을 열어 집안사람들과 공부하기도 하였다. 이후 서재를 재실로 변경하고 후손들의 강학장소로 사용되었다.

두 장소는 모두 동족마을의 아이들을 교육하는 장소로서 여러 서적을 구비하고 있었다. 위백규는 젊은 시절 장천재에 머물면서 독서와 아동들을 가르쳤고 학규(學規) 만들어 관리하였다. 고택의 서적을 살펴보면 책의 앞뒤표지에 ‘加衣’ 또는 ‘加’를 쓰고 다산재를 표기하고 있으며, 간혹 장천재를 표기한 서적도 나타난다. 이는 책가의(冊加衣)로 책 표지가 상하지 않도록 종이나 헝겊을 덧씌우는 것을 말한다. 서책의 표지에 ‘가의’표기가 있는 것은 책가의를 하여 그 장소에 보관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장천재와 다산재는 동족마을의 도서관 역할도 함께 겸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장천재에는 『천자문』과 『환영지』 책판을 보관하고 있었다. 이러한 공간에서 서적을 간행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장흥지역에서 서적을 많이 간행한 곳을 살펴보면 관아와 사찰을 제외하고 민간에서는 방촌의 장흥위씨가 많은 서적을 간행하였다. 고택을 포함하여 방촌의 장흥위씨의 간행 서적들을 보면 다음과 같다.

번호	서명	저자	판종	책수	간행년	간기	소장처
1	長興魏氏族譜	魏道亨 等	목활자본	6책	1842년	崇禎四壬寅長川齋重刊	존재고택
2	長興魏氏熊川公派家乘	魏啓信 等	목활자본	1책	1941년		존재고택
3	聽禽遺稿	魏廷勳 等	목활자본	1책	1936년		존재고택
4	西溪遺稿	魏白純	목활자본	2책	1936년	茶山齋 發行	존재고택
5	魏氏世稿	魏德厚 等	목활자본	3책	1933년	魏啓龍家	존재고택
6	春坡遺稿	魏瓘植	목활자본	1책	1933년	魏啓龍家	방촌전시관
7	三足堂遺稿	魏世寶	목활자본	1책	1936년	茶山齋	전남대, 고대
8	詠而齋遺稿	魏文德	목활자본	3책	1936년	茶山齋	국립중앙도서관
9	長興魏氏大同文案	魏啓忠 等	목활자본	2책	1927년	昭和二年 石川齋	방촌전시관
10	德菴遺稿	魏錫奎	목활자본	2책	1961년?	辛丑仲秋 長川齋刊行	방촌전시관
11	長興魏氏族譜	魏德厚 等	목판본	3책	1819년	崇禎三己卯/俯溪堂刊板	방촌전시관
12	長興魏氏族譜	魏啓忠 等	목활자본	14책	1856년	丙辰春開刊于長川齋	방촌전시관
13	長興魏氏族譜	魏相基 等	목활자본	9책	1883년	崇禎五癸未冬長川齋開刊	전북대

14	新編十九史略續集大明紀	魏伯珪	목활자본	2책	1875년 추정		국립중앙도서관
15	存齋集	魏伯珪	목활자본	12책	1875년		서울대
16	新編標題纂圖寶瀛誌	魏伯珪	목판본	1책	1822년		서울대
17	千字文	周興嗣	목판본	1책	1665년	康熙四年乙巳七月	방촌전시관
18	魏氏行狀		목활자본	1책	미상		방촌전시관
19	魏氏誌狀碣表		목활자본	2책	미상		방촌전시관

[표-5] 방촌 장흥위씨 간행 서적

존재고택을 포함하여 방촌의 장흥위씨의 간행 서적을 살펴보면 19종이 있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주로 목활자로 간행했으며 일부 목판본이 나타난다. 그 가운데 1933년에 인행(印行)된 『위씨세고(魏氏世稿)』와 『춘파유고(春坡遺稿)』의 경우 활자의 자형 좌우가 상하보다 길면서 가느다란 필획의 필서체 목활자를 사용하였다. 이와 같은 모양의 목활자는 1936년 다산재에서 인행된 『삼족당유고(三足堂遺稿)』, 『서계유고(書溪遺稿)』, 『영이재유고(詠而齋遺稿)』, 1927년 『장흥위씨대동문안(長興魏氏大同文案)』 인행에도 사용되었다.²⁴⁾ 이는 한번 여러 종류의 책을 간행하기 위한 것으로 조선후기부터 목활자로 책을 간행하면 한 종류만 간행하는 것이 아니라 두 종류 이상 간행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신편십구사략속집대명통기(新編十九史略續集大明紀)』와 『존재집(存齋集)』도 동일한 목활자를 사용한 것으로 보아 『존재집』을 간행하면서 『신편십구사략속집대명통기』를 함께 인행한 것이다.

간행장소를 보면 장천재가 가장 많고, 다산재가 그다음 이용되었다. 부계당은 장천재를 가리키며, 위계룡의 집에서도 책이 간행되었다.

간행서적을 살펴보면 17세기에 『천자문』이 한차례 간행되다가 이후 족보류가 주로 간행되었고 20세기 초가 되면 문집을 다량으로 간행하는 경향을 보인다. 17세기에 『천자문』이 간행된 배경에는 이때 방촌에서 문중 기반을 확실히 다지고 있던 시기였기 때문이다. 가학과 가업을 진흥하고 향촌에서 강학과 교화조직에 참여하여 주도하는 등 지역에서의 위상을 높였다. 그러면서 독서와 학업을 통해 가문의 위상을 한층 높이고자 하였고 소과와 무과 보다는 문과 출신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여 이를 강화하고자 하였다.²⁵⁾ 따라서 교육을 위한 첫걸음으로 『천자문』을 간행하여 학업의 기초를 쌓고 나아가 향촌에도 배포하여 자신의 위상을 높이는데 사용한 것이 아닐까 생각할 수 있다. 19세기에 족보류가 주로 간행되었는데 이는 사회적으로 족보기록을 통해 조상의 업적을 공유하려는 경향과 함께 종중의 단합과 협동이 중시되었기 때문이다. 특히나 장흥위씨는 지역에서의 문중기반을 확실히 다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를 유지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일 수도 있다. 20세기 초가 되면 문집을 다량으로 간행하게 되는데 이를 주도한 인물이 위계룡이다. 그는 17세부터 과거시험 공부를 위해 주로 시문류의 책을 9년간 여러 책을 필사한 인물이다. 그는 필요한 책을 구입하거나 구입하기 어려우면 필사하여 소장하였고 자신의 책에는 장서인을 찍어 소장하였다. 그는 집안에 필사본으로 남아 있는 선조들의 문적들이 점차 사라지는 것을 보고 이를 보전하기 위해 서적을 간행하였다. 이때 여러 종류의 서적을 간행할 수 있었던 것은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19세기 말부터 인쇄기술이 보편화 되고 목활자의 인쇄비용이 이전에 비해 적은 비용으로 인쇄가 가능했기 때문이다. 더불어 한번 인쇄할 때 여러 종의 책을 인쇄하는 것이 효율적인 측면과 비용적인 측면에서 훨씬 용이했기 때문이다.

이처럼 존재고택을 비롯한 방촌의 장흥위씨는 문중의 단합과 함께 지역에서의 위상을 높이는 방편의 하나로 서적을 간행하였다. 19세기 간행된 호남지방 목활자본을 종합해 보면 총 14개 지역이며 그중 주요

24) 옥영정, 앞의논문, 2002, 78쪽.

25) 이종범, 앞의 논문, 2003, 6쪽.

인행(印行) 지역 중 하나가 장흥이 되었다. 그리고 장흥지역의 목활자본을 살펴보면 절반이상 가량이 장흥 위씨의 문집임을 알 수 있으며 간행장소가 다산재와 위계룡집임이 나타나게 되었다.²⁶⁾ 이러한 사실을 비추어 보면 전라도 장흥지역은 지방인쇄문화가 활발한 곳 중 하나이고 방촌의 장흥위씨가 인쇄활동에 있어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였다.

26) 옥영정, 앞의논문, 2002, 79쪽.

4. 나오는 말

장흥위씨 방촌 존재고택에 소장되어 있는 전적의 전체 현황과 주요 전적 그리고 그 특징에 대해서 살펴 보았다. 전체 전적은 231종 460책이며, 사부와 집부의 서적이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보통 집부의 비율이 가장 많은 경향이 나타나는데 위백규의 영향인 듯 사부의 비율이 집부보다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소장 전적 가운데 필사본이 50%를 넘어 가장 많이 남아 있으며, 이것 또한 위백규가 저술한 서적과 아버지 위문덕의 저술이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 특히 위백규와 위문덕이 과거시험을 치르기 위해 공부했던 과거시험 대비 서적도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당시 어떠한 책으로 과거시험 공부를 했는지 엿볼 수 있다. 그다음으로 많은 것은 목판본인데 19세기에 많이 퍼졌던 전주 완판 방각본의 경부서적들이 다수 소장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소장본 가운데 가장 주목되는 것은 15세기 성종 대에 주도된 금속활자인 갑진자로 간행된 『동래선생남사상절』, 『동래선오대사상절』, 『동래선생수서상절』, 『동래선생진서상절』이다. 완질로 남아 있지 않아 아쉽지만 갑진자본으로 간행된 4종을 포함한 여조겸 편찬 역사서는 쉽게 찾아볼 수 없는 희귀한 서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세종대 갑인자로 간행된 『주문공교창려선생집』의 변각본도 소장되어 있어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서지적인 분석을 통해 존재고택 전적의 특징을 살펴보자면 첫 번째로 위백규 저작이 정조에게 진상되는 모습을 살필 수 있다는 점이다. 민간에서 왕에게 책을 진상하는 일은 조선시대에 자주 있었던 일인데 반해 어떠한 과정을 통해 진상되는지 잘 알려지지 않았다. 물론 위백규가 자발적으로 진상한 것이 아닌 왕명에 의한 진상이지만 조선시대 서적을 관 혹은 왕에게 진상할 때 모습을 살펴볼 수 있었다. 두 번째로 고택의 전적이 형성되는 모습이 소장된 서적과 문서들을 통해 유추할 수 있다는 점이다. 전체적으로 정확히 알기는 어려우나 초기에 형성된 서적들은 어떠한 과정을 통했는지 알 수가 있으며, 서적 형성에 조력했던 위세옥에 대해서도 알 수 있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존재고택에 소장된 전적 가운데 방촌에서 간행된 서적이 여럿 보이고 고택 이외에 소장된 여러 서적을 함께 살펴봤을 때 당시 인쇄문화를 살펴볼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장흥위씨의 경우 17세기부터 서적을 조금씩 인쇄해 왔고 주로 인쇄된 서적이 족보와 문집류였다. 이러한 시류는 당시 사회적인 분위기와 동일한 모습을 보여준다. 또한, 장흥지역에서 간행된 서적 중 방촌의 장흥위씨가 간행한 서적이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서 당시 사용된 활자나 출판문화를 주도해 나갔던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만큼 장흥지역이 출판인쇄의 중심지 역할을 한 셈이라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국조문과방목』 (규장각한국학연구원 [奎106])

『일성록』

『존재집』

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원, 『한국족보의 특성과 동아시아에서의 위상』, 계명대학교 출판부, 2013.

유태일, 『한국문헌학연구』, 서울아세아문화사, 1989.

오항령 등 역저, 『국역 존재집』 1, 흐름출판사, 2013.

전남대학교 문헌학연구소·전라남도, 『전남 서원의 목판』, 전남대학교 출판부, 1990

천해봉, 『한국서지학』, 민음사, 2010

이상현, 「조선시대 호남 의병가문의 서적간행연구」,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20.

권수용, 『장흥 장흥위씨 존재고택-호남한국학 기초자료해제집2-』, 한국학호남진흥원, 2020.

김희태, 「존재 위백규의 선양활동과 문화유산의 활용」 『전남도립대학교 논문집』 5, 2003.

옥영정, 「지방목활자에 의한 문집의 인출(印出)에 관한 일고 - 호남지방을 중심으로 -」 『서지학보』 26, 한국서지학회 2002.

-----, 「광주필서체목활자와 인본 연구」 『서지학연구』 25, 한국서지학회, 2003.

-----, 「16세기 후반~17세기 조선의 목활자 인쇄와 출판문화적 의미」 『한국문화』 72,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2015.

이종범, 「존재 위백규의 학문과 정론의 연원과 형성: 방촌 위씨가의 전승과 전환을 중심으로」 『역사문화연구』 19, 한국외국어대학교 역사문화연구소, 2003.

정은주, 「『복도능전지』와 『복도(각)능전도형』 연구」, 『한국문화』 67, 규장각한국학연구원, 2014.

MEMO

2022년 국학자료 수집·보존 공동학술대회

존재 위백규의 『寰瀛誌』 연구 성과와 과제

1. 서론
2. 기존 연구 성과 검토
3. 『환영지』 연구의 과제
 - 3.1. 서지학 분야
 - 3.2. 고지도, 지리지 분야
4. 결론

존재 위백규의 『寰瀛誌』 연구 성과와 과제

정대영¹⁾

목 차

1. 서론
2. 기존 연구 성과 검토
3. 『환영지』 연구의 과제
 - 3.1. 서지학 분야
 - 3.2. 고지도, 지리지 분야
4. 결론

1. 서론

存齋 魏伯珪(1727-1798) 선생은 湖南을 대표하는 실학자로 중앙의 近畿 지역에서 멀리 떨어진 장흥에서 학문에 일가를 이루어 낸 입지전적인 인물이다. 고창의 頤齋 黃胤錫(1729-1791), 순창의 旅菴 申景濬(1712-1781), 화순의 圭南 河百源(1781-1845)과 함께 호남을 대표하는 4대 실학자로 널리 알려져 있기도 하다. 존재 위백규의 다학문적인 연구성과에 대해서는 이미 각 방면에서 상당한 분량의 연구성과가 축적되어 있으며, 이러한 존재학의 연구는 현재 진행형이라 할 수 있다.²⁾ 존재 위백규의 다양한 학문 세계에서 동양의 전통적인 天下觀에 의거하여 하늘(九天)과 땅(九州)을 지도와 개념도를 통해 설명한 지리지인 『寰瀛誌』는 일찍이 학계에 주목을 받아왔다.

『환영지』는 일반적인 지리지와는 차이점이 있는 독특한 체계와 구성을 가진 서적이다. 기존의 지리지가 특정 지역, 혹은 국가를 대상으로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다루는 책이라면, 『환영지』가 수록하고 있는 세계는 우주를 포함한 천문과 중국의 華夷사상에 입각한 땅의 개념을 설명하는 ‘宇宙誌’(cosmography)의 성격을 띄고 있다.³⁾ 특히 필사본에서 등장하는 「利瑪竇天下圖」는 利瑪竇 즉, 마테오리치(Matteo Ricci, 1552-1610)의 천하도인 ‘坤輿萬國全圖’(1602년 목판본 간행)를 기록하고 그에 대한 평가를 남겼다는 점에서 역사학 및 고지도, 지리학 연구자들에게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

1) 국립대구박물관, 학예연구사

2) 존재 위백규에 대한 분야별 연구성과는 위정철 선생이 체계적으로 정리해 놓은 목록이 존재한다. 지면을 빌어 정치한 목록에 심심한 감사를 드리는 바이다. (장흥위씨 누리집 참조: <https://jhwi.or.kr/reference/10989>) 이 연구현황 목록에는 학위논문, 문학, 철학, 실학, 교육, 출판 순의 분류는 물론 저자별 논문 현황도 정리되어 있어 존재학 연구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3) ‘코스모그래피’라는 단어는 오상학(2015, 『천하도-조선의 코스모그래피』, 문학동네)에 의해 제시된 단어로 조선에서 제작한 천하도와 위백규의 『환영지』의 개념을 명징하게 설명하고 있다.



[도1] 정서본 『환영지』에 수록된 「이마두천하도」⁴⁾

그러나 기연구된 바와 같이 본 지도는 마테오리치의 ‘곤여만국전도’와는 다른 조선에서 제작된 13장본 輿地圖에 수록된 도교적 관념의 세계지도인 일명 ‘천하도’이다. 천하도에 대한 위백규의 이해의 과정은 『환영지』가 제작된 근본적인 이유가 되기 때문에 해당 지도를 빼고서는 『환영지』 讀法이 가능하지 않다. 본문의 방대한 자료 자체가 서문에서 다룬 바와 같이 낯선 세계지도를 이해하기 위해 방대한 논증 자료(지도, 지리지, 개념도)를 바탕으로 「이마두천하도」를 이해하는 방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이다. 『환영지』라는 지리지 자체가 ‘「이마두천하도」를 조선 지식인 위백규의 관점에서 학문적 논증으로 이해하기 위한 讀法 안내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환영지』에 대한 연구방법과 접근은 역사, 철학, 예법, 지리학, 고지도, 지리지, 서지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시도될 수 있을 것이다. 필자는 書誌學을 전공하여 地理志와 古地圖를 연구하는 연구자이다. 따라서 존재 위백규의 방대한 학문세계를 이해한다는 것도 어불성설이거니와 『환영지』 1책에 대해서도 일부 전공 분야에 대해서만 管見을 논할 수 있을 따름이다. 본 글에서는 기존 『환영지』의 연구성과와 현황을 살펴보고, 필자의 연구영역인 서지학과 지리지, 고지도학 상에서 향후 연구에 대한 제언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4) 한국학호남진흥원 소장 필사본 『환영지』, 장흥 장흥위씨 존재고택 기탁자료, 문서번호: 위1-1-3-5.

2. 기존 연구 성과 검토

『환영지』에 대한 기존 연구는 총론에 해당하는 해제를 비롯하여 역사학, 지리학(특히 고지도, 지리지 분야)에서 이루어졌다. 환영지를 간접적으로 언급한 저술까지 포함한다면 검토할 기 연구성과는 역사학, 지리학 분야에서 상당수가 존재한다. 『환영지』와 본문에 수록된 「이마두천하도」가 18세기 조선의 지성사와 지리인식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사료로 인용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환영지』 자체를 수단이 아닌 목적으로 하는 연구로 한정한다면 다음과 같은 연구를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다. 각각의 연구의 성격과 학문적 기여를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1974년 간행된 영인본 『存齋全書』에서 존재 위백규와 학문 세계를 다룬 하성래의 해제를 들 수 있다.⁵⁾ 본 해제는 위백규의 약력과 학문활동을 체계적으로 기술하였으며 본 영인본의 체제와 그 의의를 설명하고 있다. 2022년 현재까지도 국역본을 비롯하여 해당 『존재전서』가 연구에 활용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환영지』가 국역 『존재집』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하성래는 본 해제에서 존재고택에 있는 4종의 『환영지』 판본을 최초로 제시하였다. 1.초고본, 2.정초본, 3.정서본, 4.목판본으로 1,2,3번은 필사본이며 4번은 1882년 후손이 위영복에 의해 목판본으로 간행된 책이다. 영인본 『존재전서』의 편집체계는 해제를 상세히 숙독하지 않으면 자칫 혼돈할 수 있게 된다. 그 까닭은 필사본 원고와 활자본, 그리고 여타 독립 저술이 혼재되어 있기 때문이며, 독립 저술의 경우 판본에 따라 여러 판본을 별도의 설명 없이 수록하고 있기도 하다. 『환영지』의 경우가 이러한 사례에 해당하는데, 상하권 2책으로 구성된 영인본의 하권에 수록된 『환영지』는 3번의 정서본과 4번의 목판본이 수록되어 있다. 해제에만 짧게 언급되어 있어 주의를 요하는 점은 2번 정초본의 경우 수정사항 등 3번의 정서본과 비교해볼 만한 문헌학적 가치가 있기 때문에 2번 정초본의 ‘서문+목차’를 수록하고 바로 다음에 3번 정서본의 서문, 목차, 본문의 순서로 영인 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결국 『존재전서』에서는 1번 초고본, 2번 정초본 가운데 본문에 해당하는 지리지와 지도 부분은 누락이 되어 있음을 숙지해야 할 것이다. 현재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장흥위씨 존재고택의 소장본을 정리하여 1번, 2번, 3번의 자료가 각각 ‘위1-1-3-3’, ‘위1-1-3-4’, ‘위1-1-3-5’번의 번호로 정리되었으며, 목판본의 경우 해당 『환영지』 목판이 조사 및 정리되었다. 영인본의 간행 이후 『환영지』 연구자들은 본 영인본 『존재전서』의 내용을 이용하여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배우성(2014)의 경우 2번 정초본을 수정표시가 되기 이전의 글자를 독해하여 ‘정초본1’로, 붓으로 수정사항이 기록된 본문을 ‘정초본2’로 표기하여 구분해서 연구를 진행한 바 있다.⁶⁾

역사학 분야의 대표적인 연구성과는 배우성(2014), 김봉곤(2016)의 연구를 들 수 있다. 배우성은 조선 시대 중화의식의 시대별 변화를 살펴본 그의 책에서 제6부-4장 전체를 『환영지』의 서지적 분석과 구성에 대한 분석 및 해석에 할애하고 있다.⁷⁾ 『환영지』가 구상한 세계’라는 부제의 본문에서는 『환영지』 자체에 대한 세계지리지적인 연구와 판본의 대조 및 분석, 위백규의 중화의식에 대한 연구를 진행한 역작으로 평가된다. 그는 본문에서 영인본 『존재전서』의 3번 정서본과 4번 목판본을 비교하여 변화과정을 살폈으며, 2

5) 위백규 저, 1974, 영인본 『存齋全書』 상권, 경인문화사, 1-6쪽.

6) 배우성 저, 2014, 『조선과 중화』, 돌베개, 488쪽.

7) 배우성 저, 2014, 앞의 책, 484-514쪽.

번 정초본의 서문과 목차 또한 3, 4번과 대조하여 본문의 수정양상을 논증하였다. 본서는 1번 초고본과 2번 정초본의 본문 및 지도가 정식으로 공개되지 않은 영인본을 대상으로 한 연구라는 시대적 한계가 존재한다. 2번 정초본의 경우 목차와 본문의 지도 간의 순서가 다른 경우가 있어 교감이 필요하며, 초고본의 경우 저자가 당시 검토할 수 있는 상황하에 있었다면 판본의 시기적 변화를 더욱 심화시킬 수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된다. 하지만 『환영지』 개별 저술에 대한 지성사, 문헌학적인 상세한 연구성과는 후대 연구자들에게 『환영지』의 이해와 연구의 방향을 제시해 주었다는 큰 의의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김봉곤(2016)은 『환영지』에 대한 기존 역사학, 지리학 등 연구성과를 종합적으로 정리하고 분석하여 위백규의 역사지리인식을 검토하였다.⁸⁾ 필자는 역사학 전공자가 아니기 때문에 역사분야에 대한 평가는 필자의 능력을 벗어나는 것이므로 이에 대해서는 평가를 할 수 없다. 하지만 본 논문에서는 기존 연구에서 간과되었던 서지학 분야의 핵심적인 오류를 지적하여 바로잡는 성과가 관련 연구자의 한 사람으로 진일본한 성과를 이룩하였다고 평가를 하고자 한다. 기존의 『환영지』는 발문에 있는 “崇禎後四壬午暮春日不肖孫榮馥謹跋”라는 문장을 통해 ‘승정후4임오’가 1822년이기 때문에 서지사항에 간행년도를 1822년으로 표기하였다. 이는 무비판적으로 수용된 것으로 보이는데, 한국학을 대표하는 종합 백과사전인 『한국민족문화대백과』의 『新編標題纂圖寰瀛誌』의 항목에도 간행년도를 1822년으로 표기하고 있다.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운영하는 고서종합검색시스템인 ‘고전적종합목록시스템’에 전국에 소장되어 있는 『환영지』를 살펴보면 1822년 간행의 본서 혹은 1925년 판권지를 붙여 재간행된 판본 2종만이 확인되고 있다. 김봉곤은 논문에서 茶品 魏榮馥(1832-1884)의 생몰년과 근거를 제시하여 1822년이 될 수 없으며 ‘1882년’으로 정정되어야 옳음을 제시하고 있다.⁹⁾ 향후 본 연구를 바탕으로 향후 『환영지』의 연구를 진행할 시 목판본의 시기를 1882년으로 유념하여 이해를 도모해야 할 것이다.

고지도와 지리지 분야에서는 대표적으로 방동인(2001), 오상학(2005, 2015a, 2015b)과 양보경(1987), 박혜민(2018)의 연구를 각각 들 수 있다. 방동인은 그의 책에서 ‘중국식 세계지도’의 하위 분류로 ‘1.산해경식 천하도’를 들면서 위백규의 『환영지』에 수록된 「이마두천하도」에 대해 고대 중국의 도교식 세계관이 유입되어 발전된 형태로 인식하여 논지를 진행하였다.¹⁰⁾ 다만 ‘천하도’에 대한 이후 고지도학계의 다양한 연구성과를 통해 ‘천하도’의 상한선이 임진왜란 이전으로 올라갈 수 없으며, 1600년대 초 조선에서 자생으로 제작된 것이 통설로 받아들여지게 되면서 고대 세계관의 전통 유래설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부분으로 남아있다.

오상학은 조선의 고지도에 대한 개론적 소개(2005)¹¹⁾와 조선의 ‘천하도’에 대한 상세한 사료적 탐구(2015a)¹²⁾, 전통지리학에서 『환영지』와 「이마두천하도」가 갖는 의미(2015b)¹³⁾를 관련 연구자 가운데 지속적으로 심화 연구를 진행한 바 있다. 조선이 17세기 초에 제작한 천하도에 대한 기존의 다양한 연구성과

8) 김봉곤, 2016, 「『寰瀛誌(환영지)』를 통해 본 存齋 魏伯珪의 역사지리인식」, 『역사와실학』 61집, 41-84쪽.

9) 김봉곤, 2016, 앞의 논문, 48쪽 주석13 참조.

10) 방동인 저, 2001, 『韓國地圖의 歷史』, 신구문화사, 188-190쪽.

11) 오상학 저, 2005, 『고지도』, 국립중앙박물관.

12) 오상학 저, 2015, 앞의 책.

13) 오상학 저, 2015, 『한국 전통지리학사』, 들녘.

를 정리한 그의 연구에서는 ‘천하도’가 산해경에 기반하였으되 도교적인 세계관을 구현하려는 것이 목적이 아님을 분명히 하였다. 이는 임란과 호란을 거치면서 서양의 마테오리치, 즉 利瑪竇와 같은 이들이 제작한 세계지도의 유입과 명으로 상징되는 중화의 붕괴와 중화적 가치의 수호자로 인식되었던 조선 지식인들의 복합적인 연결고리를 이해해야 독해가 가능함을 지적하며, 기존의 여러 학설들을 논지를 종합하여 수정 보완하고 있다. ‘천하도’는 서양식 세계지도를 경험한 조선 지식인의 중화주의적 대응의 산물로 볼 수 있으며, 위백규가 『환영지』 제작의 근본적인 이유라고 서문에 언급한 ‘이마두천하도’와의 만남과 그에 대한 자신의 해석의 산물인 『환영지』, 그리고 필사본을 수정하며 점차 ‘이마두천하도’가 『곤여만국전도』가 아님을 인지하면서 최종적으로 목판본에서는 이 지도를 제외했다는 언급을 하고 있다. 목판본에서 ‘이마두천하도’가 삭제되었다는 사실은 『환영지』연구에서 핵심이 되는 사안이 될 것이다. 이 지도의 독해를 위해 『환영지』를 제작하였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1882년 간행된 목판본은 위백규의 최후 정서본을 그대로 반영한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따르게 마련이다. 오상학은 이에 대해 알레니의 『지방외기』를 보고 본문의 세계지리 내용을 수록함에 따라 본문에 있는 ‘만국전도’를 통해 오류를 인식하였다고 언급하고 있다. 하지만 필자의 과문으로 이에 대한 근거 자료 제시를 확인하지 못하였다. 배우성(2014)은 목판본에서 ‘이마두천하도’가 삭제된 것에 대해 ‘문헌부족으로 알수 없음’이라는 유보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양보경(1987)¹⁴⁾은 그의 박사학위 논문에서 조선의 지리지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를 통해 『환영지』를 언급하고 있다. 협의의 지리지는 지역의 역사와 문화, 인물, 풍속 등을 수록하는 서적에 한정되지만 광의의 범위에서는 세계와 우주까지를 언급하고 다루고 있는 『환영지』 역시 지리지의 범위에 포함된다는 것이다.

[표1] 한국의 지리지 분류¹⁵⁾

분류	지리지의 종류		대상 지역	대표 서적	
광의의 지리지	협의의 지리지	興誌	全國	『東國輿地勝覽』, 『輿地圖書』	
		邑誌	道誌	道	『慶尙道邑誌』, 『湖南邑誌』, 『關東誌』
			郡縣誌	府·牧·郡·縣	『義州牧邑誌』, 『龍仁縣邑誌』, 『大麓志』
			村·洞·面誌	村·洞·面·里	『薰陶防鑄字洞誌』, 『金溪洞誌』
			鎭營誌	鎭·營·驛 등	『畿甸營誌』, 『群山鎭鎭誌』, 『笠巖山城鎭誌』
	邊防誌	변경지방	『北關志』, 『北行隨錄』, 『北塞記略』		
		外國誌	외국	『海東諸國記』, 『琉球風俗記』, 『寰瀛誌』	
		山川誌	山·川·名勝地	『東國名山記』, 『妙香山誌』	
		紀行 및 日記類		『遊頭流錄』, 『耽羅錄』	
		雜誌		『道路表』, 『魯城關里誌』	

박혜민(2018)¹⁶⁾은 그의 학위논문에서 위백규의 『환영지』에 대한 ‘이역에 대한 인식’을 주제로 분석을 시

14) 양보경, 1987, 『朝鮮時代 邑誌의 性格과 地理的 認識에 관한 研究』, 서울대학교 지리학과 박사 논문.

15) 양보경, 1987, 앞의 논문, 20쪽의 표에서 재인용 수정함.

16) 박혜민, 2018, 『조선후기 이역 인식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박사학위 논문.

도하였다. 환영지에 대한 해설과 판본적인 설명 이후 외국에 대한 기술에 대해 상세하게 분류하여 다루고 있는데, 『환영지』가 정식으로 역주, 교감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부문별로 상세히 외국의 사례를 번역하여 표로 정리하고 수록하여 향후 연구자들에게 사료적으로도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는 연구이다.¹⁷⁾

3. 『환영지』 연구의 과제

3.1. 서지학 분야

2022년 현재 위백규의 『환영지』에 대한 필사본과 목판본의 비교 및 교감, 표점 및 역주를 포함한 국역은 완전한 형태로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각 분야별로 연구를 통해 부분적인 번역과 인용이 존재하지만 통일성이 결여되어 있으며 전체적인 체계를 이해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른다. 또한 반복적으로 언급하는 바이나 필자 역시 『환영지』의 전체적인 면모를 충분히 이해했다고 말할 단계가 아님을 밝히고자 한다. 이 책은 한문학과 역사학, 고지도와 지리지 연구자들이 번역을 진행해서는 안된다는 판단이다. 전체적인 맥락과 흐름이 있는 책이며, 하늘의 '9천'과 땅의 '9주', '9주'는 다시 '81개의 지역으로 세분되며, 산해경을 비롯한 도교식 천하관과 남염부주지를 포함한 전통적인 불교 세계관, 중국의 五服圖로 표상되는 중화-오랑캐의 華夷觀에 대한 이해 등이 포괄적으로 수록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역주를 포함한 국역본이 절실한 상태이다. 특히 각 지도에 대한 상세한 해설이 없이는 그 맥락을 이해하기 어려운 개념도가 많기 때문에 철학적인 고찰도 필요할 것이다.

기존 『환영지』의 연구와 학계에서 이 책에 주목했던 중심 주제가 바로 '이마두천하도'에 있다는 사실은 향후 『환영지』의 연구방향에 중요한 시사점을 던지고 있다. 즉, 1882년, 1925년 간행된 목판본 보다 기존 미완성으로 '천하도'가 수록된 필사본에 대한 학술적인 주목도가 높다는 사실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현재 『환영지』는 초고본, 정초본, 정서본, 목판본이 존재한다. 배우성(2014)의 연구에서 판본에 대한 비교를 다룬 바 있으나, 지도의 차례에 주목을 하였기에 이 네 판본에 대한 세세한 문자 교감까지는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인문학 연구에서 문헌과 사료는 교감과 목록의 정리가 되지 않고서는 활용도가 떨어지게 된다. 淸나라의 사학자였던 王鳴盛(1722-1797)은 그의 저서인 『十七史商榷』 1卷 1篇에서 “目錄之學，學中第一緊要事，必以此問途，方能得其門而入。然此非苦學精究，質之良師，未易明也”라는 유명한 말을 남긴 바 있다. 중국에서 목록학이 서지학과 동의어라는 사실로 볼 때, 기초자료의 구축 아래서 더 높은 단계의 연구가 적층될 수 있을 것이다.

기존의 연구성과에 더하여 필자의 관건으로는 현존하는 정서본과 목판본 사이에 '정서본2'가 존재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목판본의 최종 조율이 위백규의 최종 정서본을 바탕으로 했다고 보기에는 둘 사이의 관계가 차이가 많기 때문이다. 심지어 정서본에서 수정하라고 표기한 글자도 목판본에서 동일하게 수정되지 않음을 볼 수 있다. '위3-1-4'(정초본)와 '위3-1-5'(정서본)은 상호 수정 관계가 성립된다. 하지만 '위3-1-5'(정서본)와 1882년 목판본과의 연관 관계는 중간에 다른 정서본이 있었음을 가설로 제시하는게 합리적으

17) 박혜민, 2018, 앞의 논문, 63-88쪽.

로 보이고 있다. 그 수정 주체가 위백규 본인이었는지, 혹은 후대의 위영복이었거나 고본을 소장하고 있던 위영복의 지기의 가문에서 이루어진 것인지는 현재로서 알 수 없다. 단순한 추정만이 가능한 상태이다. 우리는 목판본이 간행되기까지 근 100여 년이 지났다는 사실을 유념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위백규의 사후 김정호, 최한기 등과 같은 지리학자가 등장했고 최한기가 원형 지구를 2장의 지도로 제작한 『지구전후도』를 김정호와 합작하여 인쇄하여 간행한 것이 1834년(순조 34년)이었기 때문이다. 분명 서문에서 위백규가 언급한 바와 같이 이 책의 존재 이유는 '이마두천하도'에 대한 '합리적인 (화이관 내에서의) 해석'을 목적으로 하였으나, 그 주체인 '천하도'가 사라진 목판본은 실질적으로 존재의 동력이 저하되었다고 볼 수 있다.

필사본과 목판본간의 연계고리가 필요함은 서문의 첫 장에서도 다음과 같이 확인되고 있다.

[표2] 『환영지』 서문의 수정사항 반영 비교-제작 연대별

1. 서문1_환영지(위1-1-3-3, 필사본)_한국학호남진흥원_장흥 장흥위씨 존재고택 기탁자료_서문 없음
2. 서문2_환영지(위1-1-3-4, 필사본)_한국학호남진흥원_장흥 장흥위씨 존재고택 기탁자료_서문 유 - 수정사항: <u>不能也</u> -> '能' 목으로 삭제, 頭註: '不字下脫能字'
3. 서문3_환영지(위1-1-3-5, 필사본)_한국학호남진흥원_장흥 장흥위씨 존재고택 기탁자료_서문 유 - 수정사항: <u>不能也</u> -> '能' 밑에 글씨 추가 표시, 頭註: '筭' (=算)로 표기됨.
4. 서문4_존재집(1875, 목활자본)_제21권_서_《신편표제찬도환영지》 서문(新編標題纂圖寰瀛誌序) - 최종: '不能數也'임.
5. 서문5_新編標題纂圖寰瀛誌(1882, 목판본)_규장각소장_청구기호 奎5477_2권1책_서문 유 - 최종: '不能數也'임. ¹⁸⁾
6. 서문6_新編標題纂圖寰瀛誌(1925, 목판본)_국립중앙도서관소장_청구기호 한古朝60-21_2권1책_서문 유 - 최종: '不能數也'임. ¹⁹⁾

18) '數'의 이체 이형자 가운데 '筭'과 유사한 글자가 있는지 확인하였으나 연관관계가 있는 글자는 확인하지 못하였음을 밝혀둔다. 즉, 두 판본에서 다른 반영사항이 지시되고 있는 정황이 될 것이다.

19) 1925년 목판본은 판권지 추가 이외에는 추가된 사항이 전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대해서도 간행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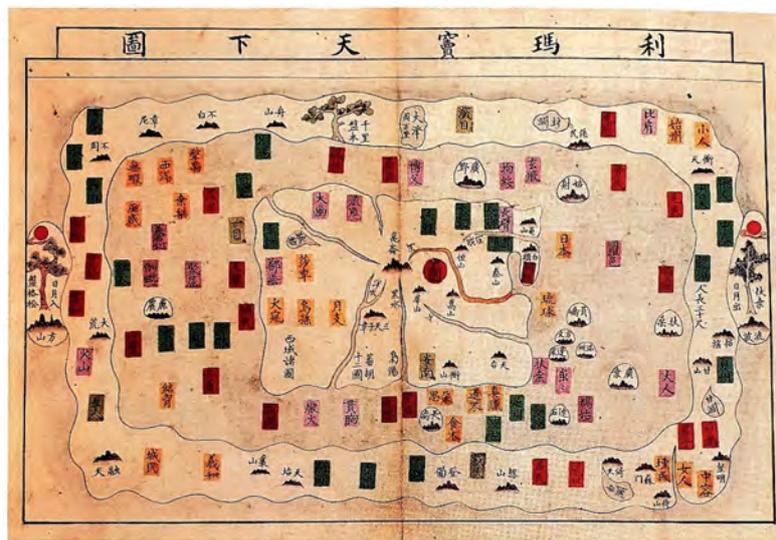


[도2] 순서대로 2,3,4번 환영지 서문, 5.존재집 권21 환영지 서문

기존 연구성과와 문집 등의 사료를 통해 보면 환영지의 저술과 편찬에는 다음과 같은 주요 기점이 존재한다.²⁰⁾

1. 1758년(영조 34) - 가을, 鄉試에 합격하다. ○ 「寰瀛誌」를 짓다.
2. 1787년(정조 11) - 河聖圖와 함께 「寰瀛誌」를 간행하다가 재용이 부족하여 중단하다.
3. 1795년(정조 19) - 11월, 별유를 받고 副司勇이 되다. 저작을 올리라는 명으로 「寰瀛誌」를 本官에 올려 보내다.

內閣, 즉 규장각에 『환영지』 책을 들이라는 正祖의 명은 『正祖實錄』과 『日省錄』에서 확인이 되고 있다.²¹⁾ 존재집의 최초 원고가 30권보다 많았다는 기록과 정서본을 급히 관아로 올렸다는 기록 등을 볼 때, 『환영지』의 또다른 정서본은 중앙정부에서 보관되었을 것이다. 역사의 부침속에서 내각의 자료가 현재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에 전체가 온전히 전해지지는 못한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현재 『환영지』 필사본은 국내외 조사목록 등에서는 확인이 되지 않고 있다. 다만 주목할 사실은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필사본 『환영지』로 그동안 고지도 연구자에게만 주로 활용이 되었던 자료이다. 그 이유는 이 지도가 ‘이마두천하도’를 비롯하여 『환영지』의 지도만을 채색필사하여 정서한 책이기 때문이다. 채색 등의 전체 상태로 볼 때 개인이 아닌 官에서 주도하여 제작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며, 이 필사본에 대해서도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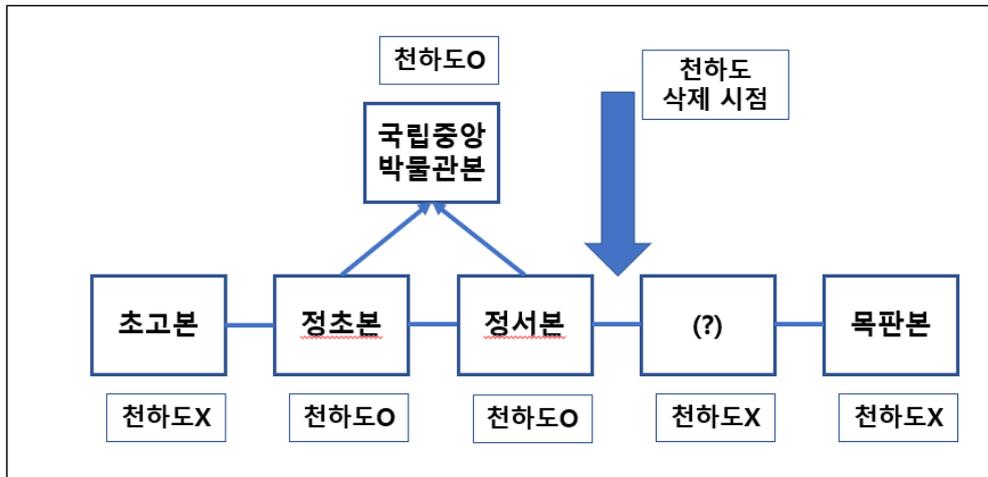
[도3]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채색필사본 『환영지』의 ‘이마두천하도’ 부분²²⁾

20) 아래의 기사는 한국문집총간의 『存齋集』의 서지사항을 참조하였다.

21) 정조실록, 정조 20년 병진(1796) 3월 6일(임자), 일성록, 정조 19년 을묘(1795) 11월 27일(갑술).

22) 국립중앙박물관 소장본, 청구기호: 신수14498.

[표3] 『환영지』 판본관계 및 ‘이마두천하도’ 유무



3.2. 고지도, 지리지 분야

필자는 전술한 호남의 4대 실학자인 위백규, 황윤석, 신경준, 하백원의 지리지와 고지도 제작에 대해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존재 위백규에 대해서는 본격적인 연구에 돌입하지는 못하였으나, 앞선 세 학자들에 대해서는 관견의 拙稿로 의견을 피력한 바 있다.²³⁾ 흥미로운 점은 4대 호남 실학자 모두가 지리지와 지도를 남기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시기적으로 후대인 하백원을 제외한다면 서로간의 지리학에 대한 교류가 여러 정황상 추정이 가능하다. 신경준-황윤석은 직접적인 지도, 지리학에 대한 정보를 주고 받았던 것으로 판단된다. 황윤석이 남긴 규장각 소장 『동국지도』의 발문이나 『여지도서』 제작에 대한 『이재난고』의 기록들, 신경준의 『도로고』 등의 지리지술과 고지도 제작, 하백원의 『만국전도』 제작 등. 4대 학자의 역사지리학에 대한 친연관계는 아직 명확히 규명이 이루어 지지는 못하였다.

본문에서 호남 4대 실학자를 언급하는 까닭은 존재 위백규 역시 『환영지』 저술의 시발점이 되는 ‘이마두천하도’를 친연관계를 통해 求得하였을 것이기 때문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위백규는 尹鳳九(1683-1767)의 문인이었다. 따라서 호서지방의 교류관계가 자연스럽게 이루어 졌을 것이다. 그런데 의문이 드는 사항은 18세기 중반 당시 전국적으로 유행하여 지식인 사회에서는 모를 수가 없는 ‘13장본 여지도’ 지도첩을 위백규가 진정으로 처음 보는 것인가 하는 점이다. 13장본 여지도는 원형천하도+중국도+유구국도+일본도+팔도총도+도별8장을 포함한 13장으로 이루어진 지도첩으로 수십종의 이본이 존재할 만큼 17세기 중반이후 민간에 유행하였다. 위백규가 ‘이마두천하도’라 이름한 지도는 당대 ‘원형천하도’와 큰 차이가 없이 유사한데 다만 좌우의 폭이 늘어나 있는 정도이다. 위백규가 생존한 당시에는 이미 마테오리치의 『坤與萬國全圖』와 알레니의 『職方外紀』, 베르비스트의 『坤與全圖』가 유입되어 있는 상태였으며, 이 중 『坤與

23) 필자의 줄고는 다음과 같다. ①황윤석: 정대영, 2016, 「서지학 답사기 ③: 1768년 8월 23일, 황윤석과 정철조 지도를 말한다」, 『문헌과 해석』 75호; 2017, 「지식인이 바라본 조선후기 관찬지리지 제작 - 영. 정조 연간의 지리지를 중심으로」, 『규장각』 51호; 2022, 전북대 이재연구소 학술대회, 「이재 황윤석의 지도, 지리지 저술 연구」, ②신경준: 2020, 「『江華島以北海域圖』와 『北方疆域圖』의 서지 및 지리정보 연구」, 『한국고지도연구』 12-2호, ③하백원: 2016, 국립중앙도서관 제5회 고문헌 학술심포지엄, 「규남 하백원가 소장 대동폭원 과 동국지도」(이기봉), 지정토론.

全圖』는 중앙정부에서 대형 목판으로 판목을 제작하여 간인을 하기도 하여 지식인층에 유포된 바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위백규가 처음 접한 지도가 윤봉구의 노론계 인사들이 수정하여 제작한 천하도의 한 종류로 제목 또한 ‘이마두천하도’라고 유포하여 위백규의 수중에 들어왔다면 전후의 맥락이 이해될 가능성도 있다. 위백규는 『환영지』를 제작한 이후 ‘이마두천하도’를 마테오리치의 지도로 파악하였다고 여겨지는데, 이러한 『환영지』를 윤봉구를 비롯한 노론계 인사들도 열람하였을 것이고, 심지어 정조를 비롯한 한양의 대신들도 열람한 것으로 확인되는데, 이들이 ‘이마두천하도’의 오류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점은 이 지도에 대한 또다른 가설과 설명을 필요로 하는 부분이다. 기존 배우성(2014), 오상학(2005, 2015a, 2015b)과 같은 『환영지』에 대해 가장 심도 있는 연구를 각 분야에서 진행한 학자들은 배우성의 경우 ‘이후 마테오리치의 지도가 아닌 것을 이해한 듯 하나 목판본에 뻥 주체가 위백규인지는 알수 없다.’는 논조를 펼쳤다. 한편, 오상학의 경우 목판본에 추가된 『지봉유설』과 『직방외기』의 근거를 들어 이들 책을 통해 오류를 인식하고 ‘이마두천하도’를 삭제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하지만 ‘이마두천하도’가 삭제된 『환영지』는 그 근본 목적을 상실하게 되는 태생적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목판본에서 내용이 추가가 되었다 하더라도, 또한 세계 지도를 다른 것으로 대체하였다 하더라도 다양한 모식도, 개념들의 설명이 최종 향하는 화살표가 되는 그 지점 즉, ‘이마두천하도’를 방대한 지리,역사,문화의 관점으로 설명할 필요가 없게 된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고지도연구자의 한 사람으로서 여전히 공부를 진행하여 답을 얻어야 할 부분이라 생각한다. 기존 학자들의 정치한 연구를 바탕으로 연구의 7부능선에 올랐다면, 이제는 精深의 단계로 좁고 깊은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다.

그리고 『환영지』의 핵심이자 존재이유가 ‘이마두천하도’라고 할 때 초고본으로 1974년 이후 판단되어진 <위3-1-3>의 16장의 지도자료의 경우 ‘이마두천하도’가 없는 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지도 의문이 든다. 혹시 이 16장의 책이 초고본이 아닌 정초본, 정서본의 부분 발췌본일 가능성도 조심스레 검토해야 할 것이다.

또한 현존하는 정서본과 1882년 목판본간에 분명한 본문상의 차이점이 확인되고 있는데, 어찌하여 戶口에 대한 정보는 100 여년이 지난 후에도 ‘현행화’ 되지 않고 영조 초로 추정되는 18세기 초의 자료를 무비판적으로 답습하고 있는지, 혹은 이 호구의 수치가 본문의 핵심이 아니기에 수정을 하지 않은 것인지도 추가적인 가설이 필요해 보인다.

[표4] 『환영지』 판본별 호구 수치 비교 - 모든 판본에서 동일함

1. 초고본(위3-1-3): 전국민호 1,550,374호, 경조오부 30,723호
2. 정초본(위3-1-4): 경조오부 30,723호
3. 정서본(위3-1-5): 경조오부 30,723호
4. 1882년 목판본: 경조오부 30,723호
5. 1925년 목판본: 경조오부 30,723호

‘이마두천하도’의 등장과 수정의 시기 추정도 지속적으로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다. 이에 연하여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환영지』는 어떠한 경로로 傳寫되었으며, 어느 판본에 해당하는 자료인지도 연구가 필요해 보인다.

[표5] 『환영지』 판본별 ‘이마두천하도’ 수록 여부 검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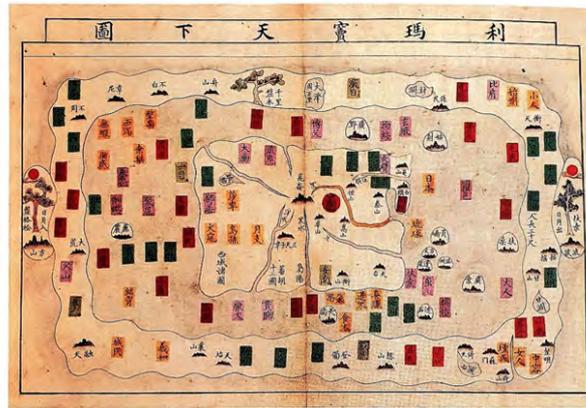
1. 이마두천하도1_환영지(위1-1-3-3, 필사본)_한국학호남진흥원_장흥 장흥위씨 존재고택 기탁자료_천하도 없음
2. 이마두천하도2_환영지(위1-1-3-4, 필사본)_한국학호남진흥원_장흥 장흥위씨 존재고택 기탁자료_천하도 있음_제목 이마두천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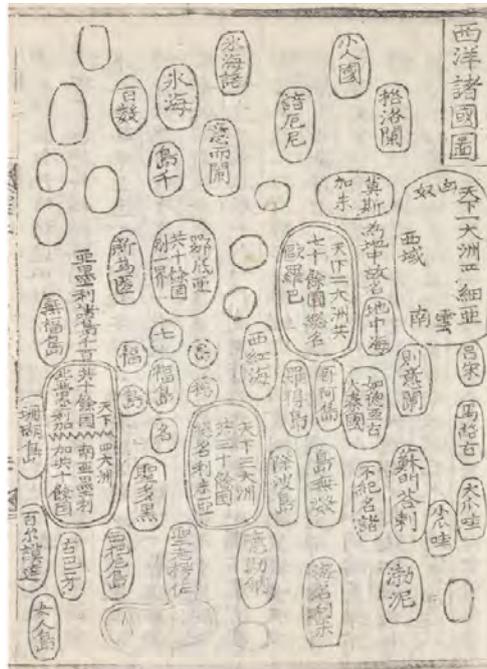
3. 이마두천하도3_환영지(위1-1-3-5, 필사본)_한국학호남진흥원_장흥 장흥위씨 존재고택 기탁자료_천하도 있음_제목 이마두천하도



4. 이마두천하도4_환영지(신수14498, 필사본)_국립중앙박물관_청구기호 신수14498_천하도 있음_제목 이마두천하도



5. 이마두천하도5_新編標題纂圖寰瀛誌(1882, 목판본)_규장각소장_청구기호 奎5477_2권1책_천하도 없음(대체)_제목 서양제국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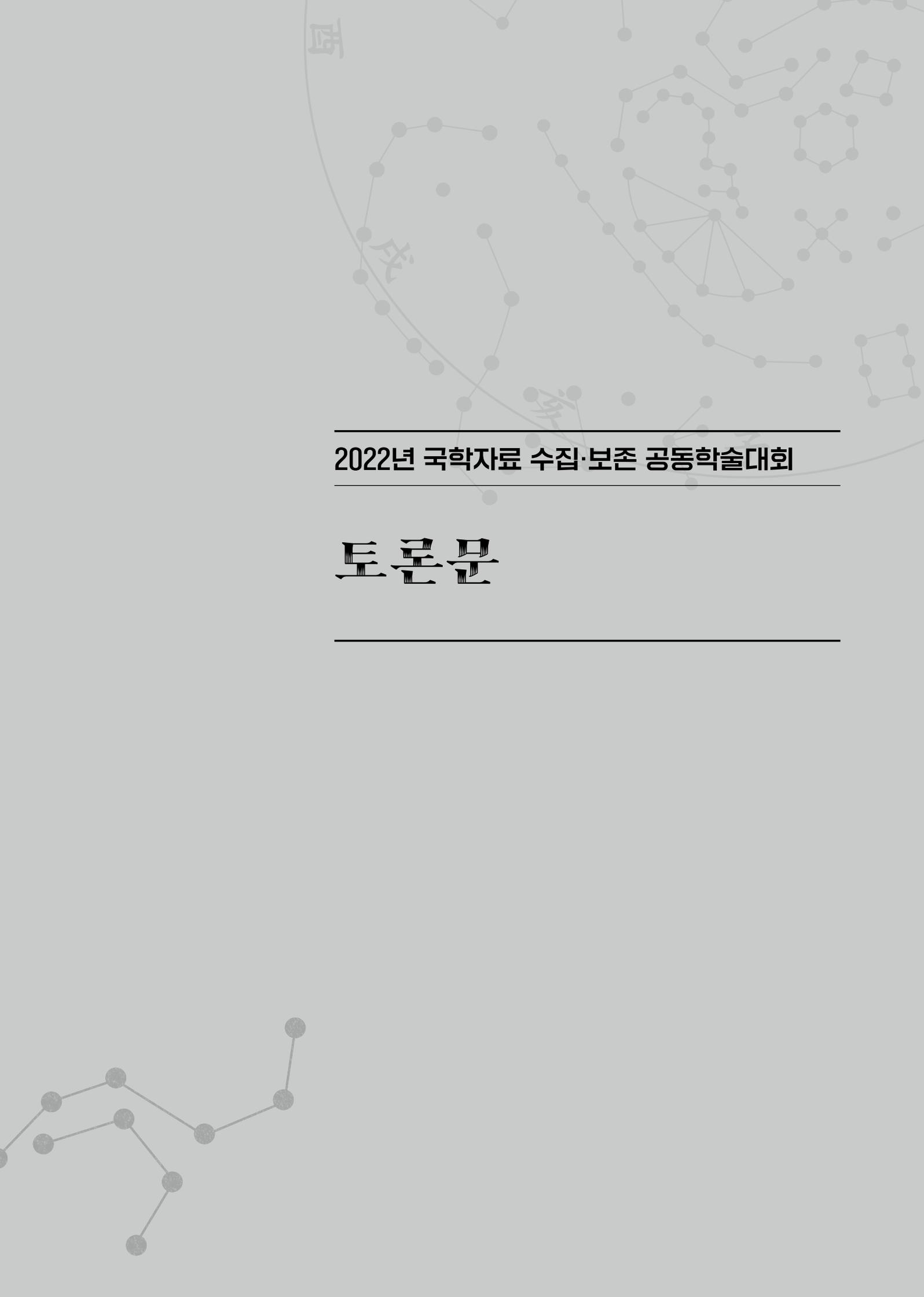
6. 이마두천하도6_新編標題纂圖寰瀛誌(1925, 목판본)_국립중앙도서관소장_청구기호 한古朝60-21_2권1책_천하도 없음(대체)_제목 서양제국도

4. 결론

불교의 경전인 『금강경』에는 ‘處一塵圍六舍’이라는 말이 등장한다. “은미한 곳에 고요히 머물면서도, 마음은 온 우주를 아우르네.”라는 뜻이 될 것이다. 존재 위백규 선생의 삶이 그와 같았을 것이다. 그가 『환영지』를 통해 천하를 구현하고자 했던 뜻 역시 중화에서 변방인 조선, 조선에서 변방인 호남의 장흥에 머물며 마음만은 하늘과 땅을 관통하고 있음을 당대의 지식인으로서 표현하고 싶었던 것인지도 모른다. 기존까지 수많은 선학들에 의해 존재 위백규의 『환영지』가 알려졌으며, 그 안에 수록된 ‘이마두천하도’를 비롯하여 전후의 경위, 판본에 대한 소개와 영인 등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졌다. 많은 연구가 이루어 졌지만 아직 끝은 아닐 것이다. 博學에서 精深으로 향하는 학문의 단계가 남아 있기 때문이다. 이제 필자와 같은 소학자들도 연구할 수 있는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1. 『환영지』의 중요성과 지도에 대한 연구는 많이 되었으나 앞으로 일반 번역이 아닌 역주와 논고를 상세히 수록한 환영지 번역본과 필사본 및 목판본 간의 상세한 교감기가 작성되어야 한다.
2. 『환영지』의 번역은 반드시 문리만을 통한 한문학 중심의 번역을 벗어나 학제적 번역이 수반되어야 한다. 60여 종의 지도와 개념, 모식도를 통해 18세기 지식인이 표현하고자 했던 천지의 이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역사, 철학, 서지학, 고지도, 지리지, 의례, 과학사 등 제학문의 협력이 이루어 져야 하며, 단순한 지도 번역이 아닌 개념도 하나 하나에 대한 해설과 역주가 있어야 심도 깊은 다음 단계의 연구가 가능할 것이라 판단한다.

MEMO



2022년 국학자료 수집·보존 공동학술대회

토론문

안동교 선생님의 논문

<존재 위백규 가 고문서 중에서 서간의 학술적 가치> 에 관한

토론 요지

임병권(충남대학교 충청문화연구소)

장흥이 배출한 훌륭한 실학자 존재 위백규(存齋魏伯珪, 1727~1798) 공에 관한 학회에 참여하고, 그의 서간에 관한 귀중한 연구성과를 공부할 기회를 얻게되어 기쁘고 감사합니다.

저자께서는 '서간의 단편적 정보들을 어떻게 학술적으로 접근하여 활용할지를 모색한 일종의 시론'인 발표원고의 맺음말에서 위백규 서간의 가치로 다음 세 가지를 들었습니다.

1. 위백규의 문집 《존재집》에 담기지 못한 다양한 정보들을 볼 수 있음
2. 이들 정보의 내용별·시기별 분류정리는 위백규의 생애 이해에 큰 도움이 됨
3. 다수의 단편적 정보를 연결·조합하면 사건·사실의 입체적 재구성과 논증이 가능함

그리고 위백규 서간 87편의 연구검토 결과로, 문집에서는 볼 수 없었던 1)다수 교유관계와 문서[書卷], 2)만언봉사(萬言封事) 분란 해소 과정의 상세한 이야기, 3)위백규도 과거 합격 후 '유가(遊街)'를 하였음을 파악하여 제시하였습니다.

위백규의 문집을 포함한 여러 상세정보를 연구하고 파악한 기초 위에 다수의 난해한 간찰을 해독한 다음에야 얻을 수 있는 이상의 성과에 찬탄을 드리면서, 이들 성과와 관련하여 한 가지 궁금한 사항을 말씀드리며 가르침을 청합니다.

서간의 인적 교류에 관한 종합설명에서, 위백규가 이이(李珥)→김장생(金長生)→송시열(宋時烈)→권상하(權尙夏)→윤봉구(尹鳳九)의 학맥을 이었는데 다른 유명 유학자, 윤봉구 문하 동문 학우들 그리고 자신의 제자들과 왕래한 서간이 없음을 들면서, 위백규의 교유가 폭이 좁았거나 선택적이었다고 보았습니다. 여기서 왜, 어떻게 그랬을까가 궁금해집니다. 반도 남쪽 끝 농촌의 양반 유학자가 어떤 사회경제적 기초와 사유 구조를 가졌기에 그럴 수 있었고 그렇게 되었는지를 알 수 있다면, 실학자 위백규의 삶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희망사항은 위백규의 서간 150편 전부를 해독하여 연구하는 것입니다. 특수한 축약표현을 초서로 쓴 필사본 서간을 연구하는 것은 지난한 일이지만, 마치 출토 문화재를 해석하듯이 선인들의 실생활 단면들을 날 것으로 파악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간찰은 그 세부 내용이 미시 생활사의 자료로 가치를 지니는데, 한편으로는 피봉 한장만으로도 지식인 상호간 교류의 존재를 보여주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18세기의 간찰 피봉 한 장은 지금 스마트폰의 문자메시지와는 비교될 수 없는 무게를 지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존된 문서 전부의 정보를 종합하여 고인의 생애 속에서 개별 사실이 지니는 무게와 상호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끝>

「장흥위씨 존재고택 소장 전적의 현황과 특징」에 대한 토론문

김방울(한국전통문화대학교)

1. 2장 1절 ‘소장 전적의 전체 현황’에서 “존재고택에서 필사본으로 소장하고 있지만 1875년 목활자로 간행된 위백규의 문집 『존재집』과 『신편십구사략속집대명기』 그리고 1822년에 간행된 목판본 『신편표제찬도환영지』를 소장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 어찌하다 보니 그렇게 된 것인지, 아니면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궁금하다.

2. 2장 2절에서 『사서의(四書義)』와 『오경의(五經義)』를 과거시험 준비용 도서로 파악했다. 『존재집』 권5부터 권10까지 「독서차의(讀書筭義)」가 수록되어 있다. 이것은 “사서(四書)에 대한 장절을 떼어 해석한 것으로 그의 경학 사상을 확인할 수 있는 득의의 작품”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리고 권11 이하에서는 「요전설(堯典說)」 등이 수록되어 있다. 이를 통해 본다면 『사서의』와 『오경의』를 단순히 과거시험 준비용 도서로 파악할 수 있는지 의심스럽다.

3. 1747년 위창조가 처음 저술한 『북도능전지(北道陵殿誌)』는 1758년 영조의 명에 따라 함경감영에서 간행되었다. 이 책의 존재고택 소장 경위에 대해 “이러한 책을 존재고택에서 소장하기에는 간행장소에서 멀고 책의 내용과는 연관성도 떨어진다.”고 하면서 “위창조는 『북도능전지』의 간행에 참여하면서 받은 간행본을 형인 위영조에게 전해주었을 것이며 다시 위영조의 아들 위광익을 통해 위백규에게로 전달된 것”으로 파악했다. 이 책을 위광익이 위백규에게 전해줬다는 근거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위창조가 위백규에게 전해주었을 가능성은 없는 것인지 궁금하다.

4. 각주 10번의 “睿覽未訖 上遽棄群臣”에서 ‘棄’자가 좀 부자연스럽다. “何必深恨也” 해석을 “어찌 깊은 한이 아니겠는가”라고 했는데, 이는 “어찌 깊이 한탄할 필요가 있겠는가”라는 정도의 의미가 아닌가 싶다. “以俟當世立言 君子之校讐云爾”를 “당세에 입언이 있어 군자의 교정이 있기를 기다린다.”라고 번역했는데, “當世立言君子들의 교정이 있기를 기다린다.”는 뜻으로 보인다. 말은 세운다는 것은 글을 써서 저술을 남긴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5. [표-3]에서 서명 → ?, 권차 → 권수

6.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존재집』은 1875년 간행된 24권 12책 목활자본이다. “『존재집간행시말』에는 위백규의 문고(文稿)가 거의 100권에 가까웠지만, 당시 편성된 원고를 거두어 모은 것이 겨우 50여 권이었다고 한다. 그리고 그 중 24권은 대내에 진상되어 정조가 열람한 뒤 규장각에 소장되었고 나머지 30여 권은 사가에 있다고 하였다.” 『존재집목록』에 따르면 「사서차의」는 내각에 올려 보내졌는데, 『존재집』에도 수록되어 있다. 「사서차의」의 경우 등사하여 올려 보내고 원고는 집에 남아 있었다는 말인지? 등사해서 올려 보낸 경우와 원고 자체를 올려 보낸 경우를 구별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 그리고 규장각에 봉입했다면 현재 남아있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필자의 생각은 어떤지 궁금하다.

7. [표-4]의 책들을 위세옥이 소장했던 것으로 추정하는 근거가 무엇인지 궁금하다. 중국본 『황명자치통기』에 대해서는 “위세옥을 통해 구입하기 보다 위백규 자신이 서울을 왕래하면서 구했을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다. 『尤菴先生言行錄』을 위세옥이 소장했던 것으로 추정하는 근거도 궁금하다. 위백규의 스승 윤봉구는 우암 - 권상하 - 윤봉구로 내려오는 계열이니 스승을 통해 얻을 수도 있는 것 아니겠는가.

8. “다산재는 위백규에게 학문과 스승의 연을 맺도록 도움을 준 위세보의 서재이자 독서의 공간”에서 위세보를 위세옥과 혼동한 건 아닌지? 위세보는 위백규의 조부이다.

9. [표-5]의 순서가 좀 혼란스럽다. 판종을 기준으로 하든가, 아니면 간행년을 기준으로 해서 새로 나열하는 것이 어떤가 싶다. 1665년 『천자문』이 장흥위씨 가문에서 간행되었다는 근거는 무엇인지 궁금하다.

10. 오자

四書疑 → 四書義, 說樂憲 → 說樂軒

존재 위백규의 『寰瀛誌』 연구 성과와 과제에 대한 토론문

김봉곤(전북대 이재연구소)

본고는 존재 위백규의 『환영지』에 대한 연구성과와 과제를 논한 글이다. 『환영지』는 주지하다시피 위백규의 세계관과 지리인식을 드러내는 저술로서 2개의 천문, 조석도와 64개에 다하는 지도를 포함하고 있어서 역사, 지리학 분야에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필자도 언급하고 있듯이 배우성의 지리지적 검토와 판본 및 중화의식 검토, 오상학의 원형의 천하도의 관점에 환영지를 검토하였던 것은 환영지에 대한 대표적인 연구성과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연구성과의 정리에 이어 필자는 서지학의 전문가답게 배우성의 연구가 1번 초고본과 2번 정초본의 본문 및 지도가 공개되지 않은 영인본을 대상으로 한 연구라서 시대적 한계가 존재한다고 날카롭게 문제를 제기하고, 한국학 호남진흥원에 기탁된 『환영지』 필사본 자료를 통해 필사본과 목판본간의 상세한 교감기가 적성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환영지』에 대한 연구는 이제 박학이 아닌 정심의 단계로 접어들어야 하기 때문에, 기존의 한문학 중심의 번역이 아니라 역사, 철학, 서지학, 고지도, 지리지, 의례, 과학사 등 제 학문과의 협력을 통해 개념 하나하나에 대한 검토와 해설, 역주를 붙여야 심도깊은 후속 연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본다. 이러한 필자의 견해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바이며, 두세 가지 질문을 통해 토론자의 소임을 다하고자 한다.

첫째, 필자는 표2에서 현재까지의 『환영지』 필사본과 목활자본, 목판본 검토를 통해 서문의 수정사항을 다음과 같이 분석하고 있다.

- 1) 위1-1-3-3, 필사본 : 서문없음.
- 2) 위1-1-3-4, 필사본 : 不能也 -> ‘能’ 목으로 삭제, 頭註: ‘不字下脫能字’
- 3) 위1-1-3-5, 필사본 : 不能也 -> ‘能’ 밑에 글씨 추가 표시, 頭註: ‘筭’(=算)로 표기됨.
- 4) 존재집(1875, 목활자본) : 최종: ‘不能數也’임
- 5) 존재집(1882, 목판본) : 최종: ‘不能數也’임
- 6) 존재집(1925, 목판본) : 최종: ‘不能數也’임

1)은 초고본, 2)는 정초본 3)은 정서본으로서, 不 다음에 能자를 삭제하거나 아니면 能자 다음에 다른 글자를 삽입해야 하는 것인가에 대한 사례를 보여주고 있다. 원래 이 구절은 천지사이에 음양조화가 실재없이 일어나고, 사물과 상수가 천차만별 다양하게 전개된다는 것을 말한 뒤에 나온다.

- (1) 정초본 : 總而號之 曰萬萬 而語其至 巧曆則不(能)一也
- (2) 정서본 : 總而號之 曰萬萬 而語其至則巧曆不能算也
- (3) 목활자본 이하 : 總而號之 曰萬萬 而語其至則巧曆不能數也

고전번역원 《존재집》 국역본에서는 목판본에 수록된 내용을 토대로 다음과 같이 번역하고 있다.

총괄하여 ‘만만(萬萬)’이라고 부른다. 그 지극함을 말한다면 제아무리 계산을 잘하는 사람이라도 그 수를 헤아릴 수는 없을 것이다.

위백규는 사물과 상수에 대한 이해에서 정초본에서는 不一, 정서본에서는 不能算, 목활자본에서는 不能數로 차례로 바뀌어진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왜 위백규가 정초본에서는 能을 빼고 一을 두었는지, 그리고 정서본부터는 能은 그대로 두고 一을 빼고 算 또는 數로 바꾸었지가 궁금하다. 이와 관련하여 위백규는 시권 책문에서 ‘一之理와 一之數’ 즉 일의 리와 일의 수가 어떻게 만물과 상수를 포괄하고 있는가를 검토하고 있는 것과는 무관하지 않다고 여겨진다. 필자는 一과 數, 不一과 不能數의 차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둘째, 필자는 『환영지』의 핵심이자 존재이유가 ‘이마두 천하도’에 있다고 하여 위백규의 천하관에서 ‘이마두 천하도’를 빼버리면 『환영지』 자체가 근본목적을 상실하게 되는 것으로 보았다. 그런데 목판본의 서양제국도 뒷면에 위백규는 서양 항해술의 우수성과 배의 구조, 마테오리치, 알레니의 천문, 지도를 소개하고 있다. 즉 위백규는 이때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자신의 이마두천하도가 마테오리치가 그린 「만국전도」가 아님을 알고 『환영지』에서 삭제하였다. 따라서 위백규의 천하관은 필자본 단계에서 목판본 단계로 옮겨지면서 변화가 일어났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위백규의 천하관의 변화는 실제 사실을 중시하는 실학적 사고를 반영하는 것이 아닐까 여겨진다.

셋째, 『환영지』는 필자가 연구하고 있는 신경준, 황윤석, 하백원의 지도와 비교할 때 어떤 특성과 의의가 있는지 궁금하다. 신경준이나 황윤석은 위백규와 동시대에 살았던 천문 지리 전문가였다. 특히 황윤석은 1768년 莊陵參奉으로 있으면서 남언옥(南彦猷)을 통해 마테오리치의 만국전도를 실제로 열람하였고, 1776년 8월 9일 홍대용을 통해 당시 가장 선진적인 태서곤여전도를 보았고, 관련 사실을 일기에 기록해 두었다. 그런데 『이재난고(頤齋亂藁)』에서는 1764년 6월 2일 석실서원 종향록에 위백규의 이름을 알게 된 사실을 기록하고 있으나, 이후 만난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 황윤석은 김원행의 문인이고 위백규는 윤봉구의 문인으로서 호락논쟁의 정점에 있었기 때문인지 거의 만나지 않았다. 이러한 교류의 단절로 세계관에 대한 차이가 나는지 모르겠다.

또한 19세에 들어오면 하백원도 1821년 「태서회사 이마두 만국전도(泰西會士利瑪竇萬國全圖)」를 제작하였다. 그러나 이 지도는 그 크기나 내용, 형태가 모두 마테오리치의 곤여만국전도가 아니다. 1623년 제작된 『직방외기』에 실린 만국전도가 정조 때 들어온 것이다. 따라서 그 내용과 수준에 있어서는 황윤석이 보았던 세계지도보다 미흡한 편이다. 그리고 19세기 중엽 이후로는 선기옥형(璇璣玉衡)과 기삼백(棼三百)으로 대표되는 중국 중심의 고대의 세계관으로 되돌아간다. 왜 그렇게 자꾸 후퇴하게 되는지 궁금하다.

넷째, 호남지역은 16세기 이후 많은 관찬, 사찬 지도가 제작되었다. 관찬 지도는 규장각을 비롯해서 국립중앙도서관,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등에서도 상당수 확보하고 있고 자료를 제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에 비해 사찬 지도에 대해서는 앞서 언급한 소위 4대 실학자 외에 다른 인물들이 제작한 지도가 별로 알려져 있지 않다. 그러나 정약용의 외가였던 해남윤씨 집안에서도 사찬지도가 만들어졌고, 19세기에 들어오면 사찬읍지가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피상적으로 알고 있다. 호남지역의 사찬지도의 분포나 수집 현황, 특징에 대해서 알려주기 바란다.

좋은 발표였으며, 공부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 앞으로도 많은 가르침을 바란다.

MEMO

2022년 국학자료 수집·보존 공동학술대회

고문헌을 통해 존재 위백규를 조명하다

발행일 2022년 10월 14일

발행처  (재)한국학호남진흥원

62383 광주광역시 소촌로 152번길 53-27, 4층

Tel. 062-603-9600

FAX 062-941-6705

<http://www.hiks.or.kr>

본 책자는 문화체육관광부 지원 “2022 호남국학 진흥지원 사업(기초자료 수집·보존)”의 일환으로 추진한 결과물이며, 여기에 실린 글과 도판은 (재)한국학호남진흥원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전재할 수 없습니다.

